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4월 9일 수요일(주간) 제416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의 사회참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4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 지원 스님과 양심수 후원 및 구속자 학생과 노동자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관계자들과 만났다. 총무원장이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배석했던 사회부장 미산스님에게 "종령을 정비하면서 종단 차원에서 인권위원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장스님은 또 "인권존중은 곧 불교의 가르침인데도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얼핏 보면 종단 차원의 인권위원회 제도화 검토 지시가 즉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장스님과 조계종의 최근 행보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들어 조계종 총무원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라크 전쟁으로 반전 목소리가 높은 이 때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평화법회를 열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초하루법회가 열린 2일 조계사와 수원포교당 등 전국 사찰에서 평화법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법장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쟁을 반대하는 호소문과 성명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회 이슈에 조계종이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 불교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러 불교단체들의 영향도 있지만, 조계종 총무원 새 집행부의 의지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려는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가르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많은 불자들은 지금 조계종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불교와 사회를 바꾸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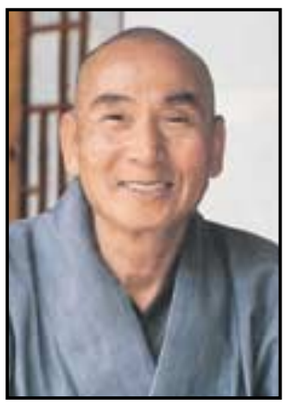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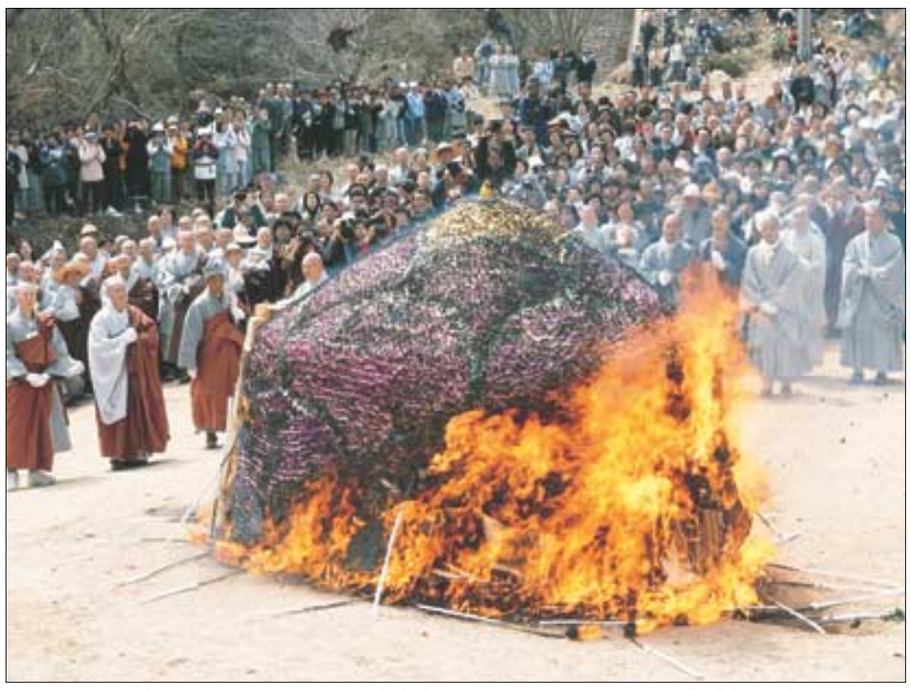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조계종 8대 종정 서암스님 원적

열반송마저 거부한 '무위의 삶'





◇서암 스님 다비식이 5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2일 봉암사에서 '수좌장'으로 엄수됐다.

여거(如去). 서암 스님의 입적 소식은 이 한 마디로 충분하다. '그렇게 가신 것이다.' 여실(如實)하게 생사를 떠난 것이다.

관련기사 3 · 7면

지난 3월 29일,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지냈던 서암 홍근(西庵鴻根) 스님이 세수 87 법랍 68세로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그리고 2일, 사리 수습 같은 건 하지 말라는 유훈대로 이생에서의 흔적을 말끔히 거두었다.

여거(如去)라는 말은 여래십호 중 하나인 선서(善逝)라는 말과도 통한다. '잘 가는(善逝) 이' 즉 미혹의 세계를 능히 뛰어넘은 사람을 일컫는다. 서암 스님은 바로 그런 삶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바랑' 하나면 육신을 위한 일체의 살림살이가 수습되는 '운수(雲水)'의 삶으로, 이른 바 '수좌정신'을 온 삶으로 증언했다. 94년 조계종단의 분규를 겪으면서 종정 자리를 털고 일어선 것도 '중 벼슬 닭 벼슬보다 못함'을 보여줬지만, 그 행위는 결코 또 다른 형태의 명예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성찰하는 것으로 스님의 가신 뜻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스님의 삶에 대한 신비화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큰스님들의 사후를 지켜본 사람들의 지적이다. 그것이 비록 지극한 추모의 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비화는 절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절대화는 맹목적 복종과 존경을 강요한다. 그것은 열반송을 묻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런 것 없다. 누가 물으면 노장 그렇게 살다 갔다고 해라"고 한 스님의 뜻과 10만 8천리다. 선가(禪家)의 오랜 관행인 열반송마저 마다한 스님의 열반송 아닌 열반송이야 말로 일체의 형식과 권위를 거부하는 선 정신의 발로이며, 앵무새 노릇 그만 하고 오늘의 선 가풍을 새로이 세우라는 준엄한 '할'이다.

서암 스님의 원적으로 근세와 현대를 아우르는 수행자 세대는 사실상 마감됐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의 수행자상을 세우는 일이다. 서암 스님의 '바랑정신'은 계속돼야 한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5 · 6공구 공사중단

국무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 구성"

최 건교장관, 법장 총무원장 예방

정부가 북한산 관통도로 5 · 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북한산 5 · 6공구 수락산 · 불암산 구간의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5 · 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 백지화(기존 노선 제외)를 주장해 온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북한산 문제는 이제 노선재검토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정부의 입장을 전해들은 법장스님은 "공사중단은 환영하지만 현 노선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며 '완전 백지화'를 요구했다.

최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재검토위 구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최장관의 제안이 기존의 방침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 입장을 검토한 뒤 노선재검토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 · 중 · 일 불교대회 북한도 참여할 듯

오는 10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6차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 중 · 일 3국 대표단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을 제6차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 대표단 초청은 일본측 국제불교교류협의회가 맡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측 대표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조불련측에 초청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조불련과 북측 대표단 참가 여부와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국 대표단은 제6차 대회를 10월 28~30일 일본법상종 총본산 청수사와 입정교성회 경도교회 등지에서 개최하고 각각 1백여명 안팎의 대표단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대회는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평화기원법회와 캠페인, 학술강연회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성사위해

탁연 스님, 민주 · 한나라의원 방문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계종이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1일 행자위 간사 전갑길 의원과 배기선 문화관광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전갑길 의원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이 꼭 필요하다"는 탁연 스님의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기선 의원 역시 "국립박물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대부분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소위원회 법안심사(17~22일)를 앞두고 조만간 한나라당도 방문할 예정이다. 탁연 스님은 "국가문화유산관리 체계 확립을 종단의 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 찾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窓,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교 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분
수습기자 약간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1975년 1월 1일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대졸 불자 대상…1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3년 4월 13일(일)
2.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gseo@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www.dhsystem.co.kr
ISO 9001 KAB
•실용신안 특허 0274038호
•특허 제 실용신안 0268824호

불자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空間藝術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붙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사찰 납품 다수 보유 •법흥사 •삼운사 등

맞춤 붙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붙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0-3(남동공단 167블럭 8롯트)
TEL : (032)822-0022~30 FAX : (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터 : (032)822-0030

사 설

평화 만들기 서원하는 봉축을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왔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연등을 만들고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봉축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신행단체들도 봉축 행사 준비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봉축위원회도 연등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올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마음이 예년과 달리 '무겁다'는 불자들이 많다. 이라크 전쟁과 괴질 공포, 경제 불안 등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축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해 오셨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 한 켠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행의 궁극이라 할 깨달음은 전쟁과 질병, 범죄와 같은 악한 인연을 제거하는데서 열리기 시작한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절신한 것은 평화의 실현이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건 전쟁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기에 하루 속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 만들기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올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행해지는 봉축 행사들도 모든 중생의 평화 실현 의지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기획할 것을 권하고 싶다.

삼보일배를 주목하라

세상이 화택(火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쟁회오리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다. 탐진치로 인한 처참한 살육의 장을 대다수 세계인들은 그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전쟁 반대, 생명 ·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진행, 절절한 참회의 장(場)이 되고 있다. 3월 28일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시작된 삼보일배에서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는 두 달동안 305km의 거리를, 세 걸음마다 오체투지 발로참회하며 전쟁 반대와 새만금 살리기를 호소하고 있다. 장장 7백리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은 5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종교 · 환경 단체는 물론 세계의 환경가들은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인 천혜의 자원 새만금의 간척사업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개발에 엄청난 거금이 투입되었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이유 등으로 갯벌간척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역대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무차별 환경파괴로 인한 과보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이번 '삼보일배'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무 등 여러 종교인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근의 사찰과 성당, 원불교 교당 등에서 삼보일배에 직접 참여(일정 거리)할 뿐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등 힘을 모아주고 있어 뜻깊다. 우리 종교인들이 마음을 합해 간절하게 하는 참회기도가 인류평화 정착과 상생(相生) 정신 확산에 일조하리라 믿는다.

현 정부도 하루빨리 '새만금 삼보일배'에 담긴 간절한 염원을 읽고 공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사미(니) 226명 배출

24기 행자교육 40대 입교 42% 승가고시 합격 218명 수계



◇조계종은 3월9~31일 범어사에서 24기 행자교육원을 열고 226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25기부터 연령제한…40세이상 입교불허

선학원 행자 8명도 사미(니)계 수계

40대 이후 출가자에게 마지막으로 입교가 허용된 조계종 제24기 행자교육원이 3월31일 회향했다.

범어사에서 열린 이번 행자교육원에서는 남행자 197명, 여행자 98명 등 모두 295명의 행자가 입교지원을 해 이 가운데 남행자 56명, 여행자 13명 등 69명이 서류심사와 입교갈마 및 입방고사에서 탈락하고 남행자 141명, 여행자 85명 등 22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또 이들 226명의 수료자 가운데 남행자 3명 여행자 5명 등 8명이 행자교육원 마지막 날 치러진 5급 승가고시에 불합격함으로써 최종 77명이 탈락하고 218명만이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번 수계식에서는 선학원 행자 8명도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처럼 불합격률이 높은 것은 행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입교 절차와 5급 승가고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자교육원은 전체 입교자 중 40대 이상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탈락자 가운데 이들 40대 이상의 비율은 60%나 됐다.

교육원은 고령 출가자로 인해 행자교육의 효율이 떨어지고 승가의 자질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40대 이하로 출가연령을 제한했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발심출가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열린 종회의 교육원 종정감사에서 40대 이상 발심 출가자에 대한 대책 및 보완에 대한 연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서울·인천 지하철역 봉축등·현수막 건다

서울과 인천 등지의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와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청년회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과 인천 69개 지하철역사에 봉축등과 현수막을 건다.

지하철 역사내 봉축등 달기 사업은 지하철역 마다 30개의 연등과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봉축등과 플래카드가 걸릴 지하철 역사는 1호선 종로3가 · 종각역 등 5곳을 비롯해 2호선 시청 · 신촌 · 동대문운동장역 등 10곳, 3호선 충무로 · 안국역 등 7곳, 4호선 혜화 · 명동역 등 6곳, 5호선 광화문 · 공덕역 등 14곳, 6호선 합정 · 삼각지역 등 8곳, 7호선 건대입구역 등 8곳, 8호선 잠실 · 모란역 등 5곳, 국철 부평 · 수원 등 6곳이다.

박봉영 기자

"군불자에 봉축위문품 보내자"

군불교진흥회 월말까지 캠페인 벌이기로

군불교진흥회(이사장 정각)는 불자 군장병들에게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은 육 · 해 · 공군 2만여 불자 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문품 안에는 각종 과자류와 음료수, 단주, 법문이 담긴 소책자 등이 담겨있고, 개당 2,500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된다.

위문품은 군법사 없이 군종병이 운영하는 법당에 우선적으로 전달되며,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경우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지정 기탁도 가능하다.

군불교진흥회 이사장 정각스님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02)749-5135 남동우 기자

통일·환경·인권·여성·노동분야 등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조계종, 23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계 시민 ·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2003년 불교 시민 ·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불교 시민 · 사회단체 공모사업은 통일 · 환경 · 인권 · 여성 · 사회개혁 · 노동 등 각 분야의 실천 및 연구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 단체당 1개 공모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총무원 사회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공모사업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02)735-5864

남동우 기자

첫 군불교찬불가 합창제

11일 국방회관 태극홀서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내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제1회 군불교 찬불가 합창제를 개최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군불교 찬불가 합창제는 원광사 · 보라매 · 1군사령부 · 계룡대 합창단 등 4개 합창단과 사병 중창단, 독창 등으로 나눠 열린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3주년 기념법회도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일제때 불교문서 · 자료

조계종, 목록집 발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던 일제시대 불교 문서와 자료가 책으로 나왔다.

조계종은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 목록을 한글로 정리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 종교관련 일제시대 문서 및 자료 목록집>을 펴냈다.

이 목록집에는 각 사찰에 대한 총독부의 사찰창립허가, 사유림벌채허가, 사유건물수선승인, 사유토지매각허가원, 사유토지기부허가원 등 사찰관련 서류 목록이 담겨져 있다. 조계종은 이 목록집을 통해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통일 이후 연고권 확보와 일제시대 이후 소홀한 관리로 망실된 삼보정재 환수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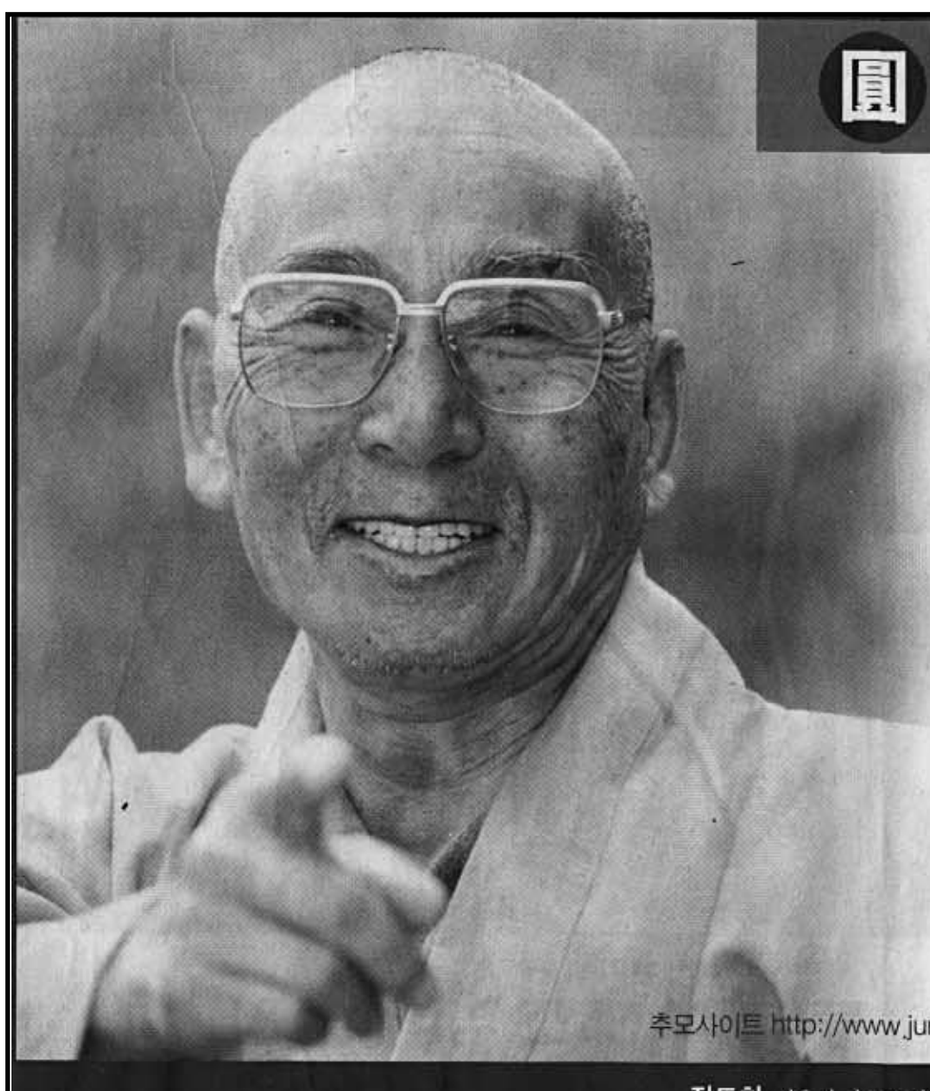
'현 대' 만 평

김 영 민



재가불자 위상 새롭게

圓 前 조계종 종정 서암당(西庵堂) 홍근(鴻根) 대종사 寂



만 마디 질문에 한 마디로 답하신 분
만 가지 말보다는 한 가지 행 더 중히 여기신 분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가신 서암 큰스님!
정토세상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재단법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法輪)
대 표 유수(濡首) 합장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스님의 열반송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한 평생 사시고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할 말 없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달리 할 말이 없다.
정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

추모사이트 http://www.jungto.org/seoam

서암 큰스님 추모 법어집



자기부처를 찾아 선사상의 진수 I
어디에도 걸림없네 선사상의 진수 II

눈앞에 빛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부처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가든지, 오든지, 변소에서 대변을 보든지,
심지어는 멱살을 쥐고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부처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자기 부처를 똑바로 봅시다.
- 서암 큰스님 말씀 중에서 -

정토출판 전화 02)587-8992 전송 02)587-8998 Email : book@jungto.org

정토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 대표전화 02)587-8990 | 대표전송 02)587-8998 | http://www.jungto.org

선거관련법 · 각종제도 개편 논의

조계종 종헌 · 종법개정특위 14일 첫 회의

총무원장 선거기간 · 선거인단 수 보완
종헌-종법-종령 상충부분 논의할 듯
'특위' 종단구조 · 제도 안정에 주력

지난 3월말에 열린 조계종 제157회 임시종회에서 구성된 '종헌 · 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종회 관계자들은 일단 선거관련법과 각종 제도 및 종단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 중원스님은 "종단 구조와 제도의 틀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법

총무원장 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핵심이다. 먼저 총무원장 선거법에서는 현재 10일로 돼 있는 선거 기간과 선거인단 선출방식 및 자격기준 등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10일간의 선거 기간으로는 사실상 종책 선거가 불가능하고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321명인 선거인단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원을 대폭 늘릴 경우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인원을 줄일 경우 '대표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장단점이 맞물려 있다. 선거인단 선출 절차와 자격기준도 어떤 식으로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회의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형태를 띠느냐가 관건이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권, 타락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법령 마련도 필수적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에서는 직능대표 선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선원, 율원, 강원, 복지, 사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능직 종회의원은 현재까지 종회 각 계파간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돼 왔다.

●제도 및 종단 구조 개편 관련법

우선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구니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법장스님의 공언대로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는 말사 주지 임명권을 본사 주지에게 이양하는 문제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총무원 부서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 · 개정 시급 종헌 · 종법

성보박물관과 법인 관리에 필요한 종법 조항 신설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불교유물 및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분야에 대한 법 조항은 전무하다. 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한 종법 마련도 필수적이다. 복지분야의 사업과 활동이 계속해 늘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관리 감독이 미약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종헌과 종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종헌-종법-종령 체계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사면

특위에서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장스님이 부처님 오신날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멸빈자에 대한 선별적 사면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를 포함한 사면 여론이 높아지면 종헌 개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현 종헌에서 멸빈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종헌을 개정하지 않고는 멸빈자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서암대종사 행장

봉암사를 최고 선수행 도량으로

신문배달로 고학 … 평생 '산승' 풍모 일관
용맹정진 · 명료한 법문 · 검약의 생활

3월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특별선원 희양산 봉암사 조실 서암당(西庵堂) 홍근(鴻根)대종사는 전날 봉암사 수좌 1백여명을 모아놓고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는 말을 남겼다.

서암당 홍근 대종사는 1917년 10월 8일 경북 안동군 녹전면 구송리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932년 16세에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스님이 되고 싶어 3년 동안 절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조건을 내걸고 예천 서악사에서 화산스님을 은사로, 37년 21세에 운달산 김룡사에서 금오대선사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 서암(西庵)이란 법호를 받았다.

스님은 비구계를 받은 38년에 일본대종교과에 입학, 신문배달과 짐꾼 등을 하며 고학했으나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고 걸려 2년 만에 귀국했다. 40년부터 김룡사 중암선원을 비롯 전국 선원을 돌며 '생사의 근본도리'를 화두로 용맹정진에만 몰두했다. 스님은 이 시기 금오 스님을 비롯해 만공 효봉 한암 스님 등을 모시고 정진을 계속, 수좌들의 귀감이 됐다.

45년 해방 후 미 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한 데 크게 실망한 스님은 징병 · 징용에서 돌아온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불교청년운동을 펴기도 했다.

특히 46년 계룡산 나한굴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살아서 이 굴에서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고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고행으로 선정삼매 속에서 청천백일을 보듯이 밝게 보고 역경계(逆境界)와 순경계(順境界)에 자유함을 체험했다. 그러나 한 수좌가 이 때의 오도송(悟道頌)을 여쭈자 "오도송이고 육도송이고 그런 거 없다."고 하였다.

스님은 47년부터 74년까지 금강산 마하연과 사불산 대승사 · 계룡산 나한굴 · 덕숭산 정혜사 · 가야산 해인사 · 지리산 칠불암 · 오대산 상원사 · 속리산 복천암 · 청화산 원적사 · 금정산 범어사 · 동화사 내원암 · 태백산 각화사 · 도봉산 천축사 · 희양산 봉암사 등지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75년 59세에 제 10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2개월만에 총무원장직을 버리고, 문경 봉암사로 돌아가 78년 수행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의 산문(山門)출입을 통제, 봉암사를 한국 최고의 선수행 도량으로 다져 놓았다.

79년 희양산 봉암사 조실에 추대되어 퇴락한 봉암사의 가람을 중창하고 승풍을 바로잡아 조계종 종립 선원으로서 기틀을 다진 분이 바로 서암 스님이었다.

용맹정진과 높은 지혜에서 우러나는 명료한 법문, 검약의 생활로 인해 스님의 주변에는 늘 수좌들이 모여들었다.

스님은 91년 75세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취임하고, 93년 77세에 제 8대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94년 서의현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고집하면서 일어난 종단 분규 때 종정에서 물러났다. 스님은 이후 경북 봉화군 태백산 자락에 '무위정사'라는 토굴을 짓고 약 7년간 은둔생활을 했다. 2001년 봉암사 수행승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조실로 들어가 2003년 3월 29일 오전 7시 40분에 염화실에서 8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민추본 · 평불협 북한사찰단청 공동추진

'단청불사추진위'로 창구 일원화

총재 법장, 추진위장 법타 · 학담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이하 민추본)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북한사찰 단청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과 민추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은 1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동추진 기구인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추진위원회(이하 단청불사추진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단청불사추진위 총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추진위원장에는 법타스님과 학담스님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단청불사 사업 주관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남측 단청불사추진위로 단일화된다. 사업 대상은 북한 59개 사찰 및 민족문화재로서, 2004년까지 총 60톤 분량의 단청 안료를 나눠 지원한다. 단청불사추진위와 조불련이 시범 사찰인 평양 법운암에 대해 공동 불사를 하며 기술을 전수해 주면, 다른 사찰들은 조불련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청불사추진위는 4월 중 통일부에 교류협력사업 승인 신청과 단청 재료 및 도구 1차분을 지원하고, 5월에는 시범작업단 방북 및 입재식을 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금강산에서 단청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및 전시회와 시범작업 회향법회를 할 예정이다.



◇1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타 스님(사진 가운데)이 추진위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기자회견에서 법타 · 학담스님은 "단청불사 공동 추진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대북교류 사업의 방식을 한 차원 높였다"며 "향후 불교계의 대북교류가 각 단체별 위상과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통일적인 조직형태로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스님 총 2만2천여명

비구 4,349명 · 비구니 4,382명
구족계 받지 않은 스님 의외로 많아

예비승을 포함해 현재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은 모두 22,2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원 총무부가 3월말 열린 제157회 중앙종회에 제출한 '승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구 4,349명, 비구니 4,382명, 사미 6,159명, 사미니 7,3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구와 비구니보다 사미와 사미니 수가 훨씬 많은 것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81년 이전 출가자들의 경우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승적상 아직까지 사미와 사미니로 남아 있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총무부는 설명했다.

예비승 제도가 도입된 95년 이후 출가해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을 포함한 전체 사미, 사미니 수는 1천여명과 1천4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미니가 사미보다 많은 이유는 행자교육원을 마치고 곧바로 강원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있는 사미와는 달리, 일부 사미니 강원의 경우 입학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행자교육원을 마치더라도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함에 따라 그 기간만큼 인원이 적체된데 따른 것이다. 한 해 평균 출가자는 400~450명 가량이며,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의례의 결정판! 통일법요집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에서 종단의 역량을 기울여 9년간 진행해 온 불교의식 통일화 노력의 결실입니다.
종단 내 의식에 밝은 스님들이 집필 · 회편하셨고, 강백 큰스님들께서 감수하셨습니다.
기존의 법요집에 비해 의식 집전이 편리하도록 활자를 키우고 편집을 새롭게 했습니다.
• 일용의식 | 1. 도량석 2. 종송 3. 대웅전 예경 4. 각단예불
• 상용의식 | 1. 불공 2. 천도재 · 49재 3. 시식 · 영반
• 제반의식 | 1. 점안의식 2. 이운 3. 방생 4. 다비 · 시다림 5. 욕불의식 6. 통알의식 7. 소심경
• 전문의식 | 1. 상주권공 2. 시왕각배 · 대례왕공 3. 영산작법
• 법 회 | 1. 정기법회 2. 일반법회 및 기도 3. 특별법회
• 평생 · 명절의례 | 1. 평생의례 2. 명절의례
통일법요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값30,000원
2003년 전면 수정판 발간!
불교입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02쪽 / 값5,000원
30만 명이 선택한 불자 기초교양 필독서!
불교 기초교리는 물론 사찰에서의 예절, 수행 등 구체적인 신행 실천 방법 수록
불교교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34쪽 / 값7,000원
불교 입문 과정을 마친 독자를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중급 교재
불교상담
글 방기연 / 300쪽 / 값10,000원
서구의 상담이론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접근한 심리상담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상담에 활용한 예화가 풍부하게 수록된 불교상담의 개론서!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글 도영 / 294쪽 / 값8,000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40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삶에 대해 사유하고 통찰하여 차곡차곡 쌓인 지혜의 참모습을 풀어낸 불교 이야기
• 전화:(02)733-6390(代) / 팩스:(02)720-6019 • 국민은행 765-01-0017-288 • 농협 053-01-254866 • 예금주 불교중앙출판사 도서출판 조계종

일주문



동대 행정대학원 동문회장에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3월 27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제16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불국사자원봉사자 발대식

종상 경주 불국사 주지는 8일 불국사 광장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 산행모임

수경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오대산 상원사에서 제34회 산행모임을 갖는다. (02)720-1654



천안 종교지도자협회 창립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3월 28일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천안지역 종교지도자협의회 창립기념식을 봉행했다.



국태민안 수륙대재 봉행

자인 부산 사하불교연합회장은 16일 다대동 수협 공판장에서 국태민안 및 고혼을 천도하는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노인복지관 탁구대회 개최

능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난 3월 26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제3회 서울 · 경기 노인종합복지관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거사림 가족수계식 봉행

원경 서울 성북구 심곡암 주지는 13일 심곡암 대웅전에서 거사림 가족법회와 수계식을 봉행한다. (02)914-8860



청화 스님 초청 점안법회

주경 강릉 성원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법당으로 청화스님을 초청, 봉불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033)661-5736



경찰청 수사국장 임명

김중겸 전국경찰불교회장은 3월 26일 경찰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불교의 인과율' 주제 강연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7시 인문대 3호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불교의 인과율'을 주제로 강연한다.



여불련 임원연수교육

김묘주 한국불교여성연합회장은 21~22일 송광사에서 지회 지부장들과 함께 지도자 연수교육을 갖는다.



카운슬러 대학 수강생 모집

고경순 대구 자비의 전화 회장은 15일까지 상담 및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1개월 과정의 제12회 카운슬러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합 포교사 초대단장

이진호 동산불교대학 제17회 총학생회장은 3월 22~23일 열린 연합포교사 품수식에서 포교사 초대 총단장으로 선임됐다.



어린이 식량지원 500만원 기탁

김중미 동화작가(<괭이부리말 아이들> 저자)는 3월 24일 한국JTS에 북한과 세계분쟁지역 어린이 식량지원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불교조각 · 회화실 설치… 대형 탱화도 전시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건무 씨



최근 차관급으로 격상된 새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이건무(사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3일 승진 임명됐다. 이 신임 관장은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한 후 1973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30년 동안 줄곧 박물관에서만 근무해온 '박물관맨'이다.

▲앞으로의 박물관 운영 계획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고 열린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이 세계적 추세다.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새 용산 박물관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사실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데도 그 동안 공간이 협소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방 하나에 단독으로 전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불교조각실 외에 불교회화실도 다시 들어선다. 대형 탱화도 전시할 생각이다.

▲역사문화기념관이 건립되면 타기관에 대여중인 조계종 소유 불교문화재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물관이 문화재를 독점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이미 국가 소유라도 대학박물관 등에 수탁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보존 · 관리 여건만 확실하다면 국가소유 문화재의 대여 전시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겠다."

▲최근 성보박물관이 많이 생기고 있다.

—박물관이란 것이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규모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종교가 불교로 돼 있던데?

—어머니와 집사람이 불교신자라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긴 하지만 정식 수계도 받지 못해 불교신자라기엔 부끄럽다. 집사람이 집에 조그만 불단을 모시고 있어 복잡한 일이 있을 땐 절하면서 마음을 달래곤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진제스님 원로의원 추대 기념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1일 통일대불전에서 8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조실 진제스님의 원로회의 의원 추대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제스님은 "오매불망 내 몸이 어디에서 왔는고 하는 화두를 붙들고 일념으로 정진하면 크게 깨우침이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진각복지재단 5주년 기념식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은 4일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에서 설립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효암 이사장은 "5년이란 짧은 기간에 노인복지시설 4개, 지역 복지관 3개, 장애우 복지시설 1개, 아동복지시설 10개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며 "내실을 더욱 다져 앞으로 불교 복지를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법정 스님 무소유의 삶

13일 KBS 1-TV 일요스페셜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의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13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KBS1 TV 일요스페셜 '법정, 산에서 그를 만나다'에서는 스님의 근황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메시지, 무소유의 삶에 관한 철학 등을 들어본다.

제작을 맡은 서용하 프로듀서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2001년 4월부터 길상사와 송광사 불일암 등에서 열린 법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여수령 기자



부산시 봉축위 결성법회

부산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2일 코모도호텔에서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설동근 교육감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오스님은 "올해 봉축 행사는 세계 평화와 만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의 자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전주 광명포교원 개원법회

선운사는 3월 31일 전주 남문로터리 인근에 광명포교원(주지 종혜)을 열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익산 도덕사 주지 청림 스님을 비롯한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법찬 스님(군산 은적사 주지)은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063)231-1203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서울 북한산 노적사(주지 종후)는 2일 부처님 진신사리 및 사리암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4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종후 스님은 "진신사리의 친견은 부처님께서 소리 없이 불법을 설하시는 것과 같아, 중생이 가야할 길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영문 불교서적 우리말 번역 추진"

한국동서비교문학회 4대 회장 정갑동 교수



"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 2년의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4대 회장에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갑동 교수(영어영문학 · 사진)가 최근 선출됐다. 동서비교문학학회는 97년 서구문학 속에 나타난 불교와 동양사상에 관심을 가진 영문학자 50여 명이 주축이 돼 결성된 학회. 최근에는 중국문학, 일본문학 등 문학전공자뿐 아니라 불교학, 인도사상, 노장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 160여 명이 참여, 비교문학과 학제간 연구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서 한 분과를 차지해 발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다.

'T.S. 엘리엇의 시와 불교사상'이 전공인 정 교수는 "서양문학, 하면 기독교 사상이라는 선입견이 많으나 사실 불교나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은연중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구미쪽 불교서적 번역을 통해 서구에서는 불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 교수 개인 작업이긴 하지만 6월경 <T.S. 엘리엇고 불교>라는 번역서가 나온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림 동문회
제 6대 회장 이 · 취임식 및 정기총회

■ 일 시 : 불기2547(2003)년 4월 11일(금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운동장위) 02)2260-8977
■ 연락처 : 기 획 실 장 - 장적스님
수석부회장 - 송묵스님, 연담스님
사 무 총 장 - 덕오스님
TEL : 02)936-1700
011-412-4432 / 011-307-3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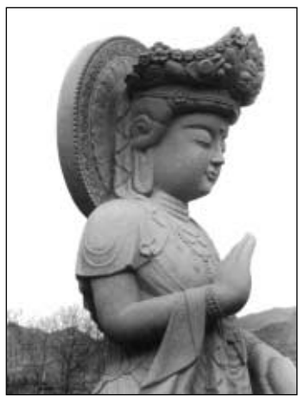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동림동문회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평화의 길은 용서·자비뿐"

수원포교당 2일 '초하루 반전평화법회' 봉행



◇3일 청년불자들이 반전평화 걷기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지침 채택

2일 이라크 전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교계 반전평화 움직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조계종은 초하루·보름 법회 등에 '평화를 위한 타종'과 발원문 봉독, 평화법문 등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에서는 초하루를 맞아 반전평화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 성관스님은 신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동에 가기도, 거기서 일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쟁은 전쟁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자식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말에 대해 대다수 신도들은 전쟁과 파병반대에 대해 하나의 뜻을 모은 것 같았다. 평화 정착의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참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뿐임을.

한편 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청화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여명이 모여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하고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과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했다. 또한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는 불자들의 전쟁반대와 평화의지를 모으는 '사이버 평화의 등' 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www.budgate.net/Scripts/cyberlotus/main.asp?code=antiwar)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일 나바로 의장(앞줄 가운데)이 삼보일배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국제본부 나바로의장

새만금 삼보일배 격려·방문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이 1일 새만금 삼보일배단을 방문해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나바로 의장은 "두 종교인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있으니 새만금 갯벌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는다"라며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8일부터 삼보일배를 정진중인 수경스님이 무릎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관절염이 있던 스님이 삼보일배를 시작하자 왼쪽 무릎에 물이 찰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왕진 온 의사가 삼보일배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스님은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남동우 기자

정년퇴직연령 65세 이상이 적당 59%

사회적응훈련 39·취업알선 필요 36%

"정년퇴직 연령은 65세 이상이 적당하며, 퇴직예비자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이 가장 시급하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이 3월 15일부터 3일간 복지관 이용 60세 이상의 노인 75명을 대상으로 정년제 의식을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령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 59%가 '65세 이상'을 답했다. 또 응답자 69%가 현행 정년퇴직제도는 부적절하며, 그 이유로는 건강하므로(56%), 경제적 이유(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년퇴직 이후 제2의 인생설계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4%가 설계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년이후 생산적인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년퇴직 준비를 위한 시급한 제도로는 사회적응훈련(39%)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밖에 재취업 교육 및 취업알선(36%), 건강 및 여가강좌(2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평노인복지관 곽선영 과장은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및 능력활용촉진사업 등의 신설과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SKC, 북한 어린이돕기 후원금 약정 (주)SKC(사장 김수필)은 최근 한국JTS(이사장 법륜)에 북한 어린이 영양식 후원금으로 1천 9백여만원을 약정했다. 사진은 3월 27일 정기봉 상무(왼쪽)가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오른쪽)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장면.

목탁소리

운불련, 무엇이 문제?

박원구 (대구주재기자)

3월 30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총회는 전국 23개 지회 중 21개 지회, 83명의 대의원이 참석,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총회에서 2월 운영위 추천을 받은 조홍인 부산지역회장의 연합회장 인준이 부결되면서 고성이 오가고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원래 운불련은 1차 운영위 회의에서 신임연합회장 후보로 부산지역회 조홍인 회장을 선출했다.

이것은 부산 안양 등의 군소 지역회가 "그간 운불련 운영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운불련을 탈퇴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며 조 회장을 강하게 추천한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 회장 경선에 나섰던 대구지역회 김주본 회장도 화합차원에서 사퇴를 발표, 어느정도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대의원들이 "운불련 회장은 4년 동안 단체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사무실 하나도 없는 지역회에 연합회장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조 회장의 인준을 부결시켰다. 결국 총회에서 새로 추천된 대전지역회 이길풍 회장이 운불련 5대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군소지회들의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운불련은 그 동안 단위 행사에 1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정도로 비교적 탄탄한 조직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 '거리의 포교사'로 포교일선에 서왔다.

그런 만큼 하루빨리 거대지회와 군소지회가 대화를 통해 새 회장 선출 문제로 서먹해진 감정의 골을 메우고 예전의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평화주제 봉축행사 다채롭게 진행

조계사, 동자승 이슬람사원방문·3천배 정진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주지 지홍)에서 '평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조계사는 세계의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며 26~27일 대웅전에서 3000배 용맹정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 실천행사로는 '동자승 30일간의 출가(16~5월11일)'에 참여하는 동자승들이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평화사절로 방문, 이슬람 어린이들과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는 우정을 다질 계획이다. 또 5월 1일 '창작찬불가의 방향성'을 주제로 문화교육관에서 불교음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찰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푸른 나무 심기(5일), 독거 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선물(28일), 노인잔치(5월 6일), '오세암' 영화시사회(17일), 소설가 조정래씨 등 초청강연회(15, 29, 5월6일)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나눔의 장터(5월1~8일), 이웃을 위한 등달기(2~5월8일), 이웃에게 등달아주기(10~5월 8일), 창작등경연대회(14~19일), 등만들기(7~5월 3일) 등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김원우 기자

실비 노인요양원 기공

연꽃마을 경기 안성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10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기공식을 거행한다.

올 12월 완공 예정인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442평 규모로 명상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면회실 등이 들어서며,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노인이다.

김철우 기자

인도 수자타 기술학교 입학식

교실5개·컴퓨터실·재봉틀 교육장 갖춰

인도 JTS는 3월 27일 둥게스와리 인도 JTS 문화홀에서 수자타 기술학교(교장 이화승) 입학식을 개최했다.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은 교장선생님의 학교소개와 교사소개, 신입생들의 선서, 학용품 기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지상 2층 건물의 수자타 기술학교는 5개의 교실과 컴퓨터실, 도서관, 재봉틀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천민출신 청년들의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1회 입학생으로 7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3년 동안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게 된다.

한편, 석가족을 중심으로 북인도 지역에서 불교중흥을 도모하고 있는 인도불교청년회(YBS, 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 슈레스)는 3월 27, 28일 양일간 인도 JTS 문화홀에서 300여명의 인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강의로 오계수지, 참회, 명상 등의 소개됐고, 참가자들 전원이 불교의 명상법과 정토회의 '참회수행법'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경신도통 이란 무엇인가? 心 대일여래의 근본 생명을 進退印으로 말과 형상과 문자와 재물과 장삼에 잊지않는 진성참주인을 대용맹정진. 경신 수행으로 영과 혼을 관리하는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래 칠불 창조주께서 경신일 좌시와 오시에 천지인 생명의 전생. 금생. 내생 윤회의 문을 열어 삼라만상 일체를 도깨비, 실개비, 헛개비, 망개비, 양개비 등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태란 습화로 성현과 성현, 진인도통군자, 선과 악을 진태인의 광명천의 도통을 기근에 따라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지구촌 모든종교, 종파와 인종을 초월하는 법도를 초능력 증표의 잣대를 받아 부처와 부처, 종교와 종교, 중생과 중생들에게 가벼이 전하지 않는 증법을 받는 날이 경신도통이며 각종 직업 부적, 의통, 재물, 말문, 예술, 서예, 도예, 음악, 문화 만조백관이 머리를 숙이는 날이 경신일이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만인의 스승이 되는 신출기물한 비법인 것이며 육신도통인 것이다.
● 우리곁에 가까이 와있는 달마법도로 만병의 근본인 비만, 중풍, 치매, 당뇨, 암, 관절염, 신경통, 음양 관리등 만병을 이길 수 있는 달마단전건강 즉시 기통법으로 만병을 관리하는 의통 능력자 되시고 천간 庚자를 찾는날이 경신인 것이다.
★ 달마 건강 3분 즉시 기통법으로 배꼽을 움직이는 진태인 법
여타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도를 구하여 천안통 능력으로 덕을 배풀고 도인이 되고자 하시는 진인들의 진태인 구입비 330만원
진태인 中 100만원
진태인 小 30만원
당일 동참금 5만원
경신을 찾는 도인들에게 진태인 주문으로써 즉시 서성명성 대광명 도통하는 것이다.

대도진인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비전 대도통군자 육신통 대법회
제75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계미년 4月 16日子시와 17日 오시(음3月 15, 16日)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잣대로 천안통에 신비의 초능력을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하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으로도 말법중생을 제도하는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용맹정진 도통에 도전 하시어 천하의 비밀장으로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잡신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인간에게 주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와 하늘에 의지하거늘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고 도를 통하여 어디에 쓸려고 고행하십니까! 이번 법회에는 생명을 노리는 중풍, 치매, 혈압당뇨병, 관절염, 각종 병을 자기 스스로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에 본인이 입문하시고 견성득도 하여 일류스승 되소서.
이 기도는 모든 종교종파를 초월하여 내가 알고 스승이 되는 기도로서 마음의 고통이 많은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자는 즉시 안정을 찾는 수행인 것이다.
卍 명당비법과신비의통앙철학 최단기 특강 (일요일 오후5시) 心
● 입제 : 4월16일 수요일 (해시) ● 해제 : 17일 목요일 (해시)
02) 821-6622/821-7767~8/016) 239-3110
1호선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 25, 94, 72-1, 105, 26, 303, 142, 26-3, 102번) 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달마 진인 도통 회장 天龍眞人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장 泰日합장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DWS 2000 칼푸용 • DWS 1000 LED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 문의 (032)582-6235~6 구입 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 문의 (031)986-0277~8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종조 창종정신 선양 · 교학 의식체계 정립

총지종, 정체성확립 나선다

종조사상 연구 · 총본산등 건립 구체화

법요의식도 대폭 개선 · 통일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이 종조의 창종정신 선양과 교학 · 의식 체계 정립 등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총지종은 지난해 10월 법공 통리원장 취임 이후 종단 법요의식, 종헌 · 종법체계 확립 등 종단 재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의 시행을 위해 전당건설위원회, 종조전건립위원회, 불사법요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종조 원정대성사의 창종정신과 종단의 교학 · 의식 체계 개편도 진행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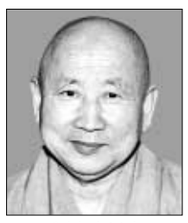
총지종은 3월 24일 종조 원정대성사와 기로스승(원로급 성직자)들의 어록과 행장 정리, 총지교상 연구 등 교학과 종조사상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통리원 교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종조사상 연구는 1차적으로 종령 록정대정사와 기로스승들로부터 종조사상과 행장을 육성 녹음하며, 현직스승과 원정대성사의 친 · 인척, 생존 당시 주변인물들의 증언도 채록할 계획이다. 이후 각종 문헌자료 조사, 현지답사 등을 통해 자료보완 및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총본산 건립의 일환으로 이달 18일부터 종조전 조성 불사에 들어간다. 서울 총지사내에 마련되는 종조전은 종단의 법맥과 종조의 사상, 교상을 잇는 전당으로, 종단 내에서는 종조전 불사에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상징적으로 여기고 있다. 총지종은 종조전 건립을 시작으로 총본산 건립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지종은 사원별로 제각각인 불사법요의식도 대폭 개선, 통일시켜 나간다. 불사법요위원회는 3월 27일 모임을 열고 법요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준제법( )과 의궤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장원 주관으로 불사법요 정비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장원은 현재의 준제법을 근간으로 삼귀의와 준제공덕송 등을 첨부해 대중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사법요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현재 종단은 전반적인 답보상태에 있는 교화의 활성화와 정통밀교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조사상 정립과 불사법요 개선 등을 통해 밀법홍포와 종단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본자스님


◇법수스님


◇고암스님

지방종회 · 선거관리위 구성

종회의장 본자스님 · 선관위장엔 고암스님

태고종 경기남부교구

태고종 경기남부교구는 3월 21일 사찰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방종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임 종회의장에 본자스님(용인 연화사), 부의장에 법수스님(안양 불성사), 선거관리위원장에 고암스님(안양 망월암)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교구는 지난해 사퇴이후 공석중인 종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했다.

새로 선출된 지방종회 의원은 혜천(수원 영통사), 성중(안성 약사사), 타무(평택 천연사), 오공(안산 지장사), 지법(이천 관음사), 혜성(여주 신고달사), 혜은(화성 법흥사) 스님 등 총 9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덕(용인 관음사), 설성(여주 대왕사) 스님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신임 지방종회의장 본자스님은 "새로 선출되는 종무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교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구 스님과 신도들의 중지를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미륵종, 부산 미륵한의원 개원 미륵종은 3월 29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미륵한의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을 비롯해 1백여명이 참석했다. 미륵한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수익금을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스님전용 실버타운 · 만불전 조성

승가종 무량사, 종합도량 5년불사 계획

대한불교승가종 진주 무량사(주지 묘담)가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무량사는 3월 22일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열고 실버복지타운을 포함한 5개년 종합 가람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님 전용 실버타운 조성과 108평 규모의 만불전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량사는 종합 불사 추진을 위해 이미 2만 5천평의 부지를 매입, 경남지역 포교와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도량을 위한 불사에 들어갔다.

33명의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실버복지타운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연건평 330여평 규모로 건립된다. 100여평의 부지에는 법당을 비롯한 간병실, 물리치료실, 체육시설 등도 개설해 입주 스님들이 수행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량사는 소속 종단에 관계없이 입주를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실버타운을 개방할 방침이다.

무량사 주지 묘담스님은 "무량사 실버타운이 불교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게 시 판

강좌 ▲서울 능인복지관은 11일까지 교양강좌 사군자 · 동양화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진행되며, 3개월 과정이다. 손님상 차림과 홈뷔페 미니 특강(9일)도 함께 진행된다. (02)571-2988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30일 오후 7시 법당에서 동국대 정병조 교수를 초청, '행복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042)624-6555

▲부천 원종복지관은 28일 오전 11시 오정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오정문화센터를 개원, 헝겊 인형교실, 임산부 기체조, 목공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32)677-0108

구인 ▲광주 전남 불교연대는 통일, 인권, 환경, 언론 등 분야에서 함께 일할 간사 1명을 구한다. 자격은 30세 미만 여성, 컴퓨터 사용가능한 사람. 마감은 15일. (062)263-4742

▲안성 연꽃마을 감로당은 생활지도원으로 일할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마감은 채용시까지. (031)671-3677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회계담당자 1명을 구한다. 마감은 21일. 회계 경력자 우대. (02)928-0750

▲원주 시립복지원은 복합장애를 가진 부랑인 입소자를 돌볼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불교신자, 컴퓨터 이용 능숙자. 지원서류마감은 10일. (033)747-1795

행사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6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제3회 서울 경기 노인복지관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동해사암연합신도회(회장 구성호)는 12일 경포아파트 해운회관내 해동사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11)9320-7650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은 11~13일 성주사지, 수덕사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또 위빠사나 수행체험과 다도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02)763-0229

이전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학산)은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15-53번지로 총무원 사무실을 이전했다. (02)491-1624~5

인사 ▲신수회 △고문 이영자 △회장 이남숙 △부회장 김재화, 조명숙, 강옥형 △총무 김민자. 신수회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이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월봉스님 취임법회가 3월 27일 마산 경남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열렸다. 월봉스님은 "종도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해 경남지역 사찰과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청년불자 단합법회 봉행

천태종 중 · 고교 학생회 졸업생과 대학생, 전국청년회원들로 구성된 신행모임인 천태청화는 3월 29~30일 총본산 구인사와 금당불교연수원에서 춘계 단합법회를 열었다. '새로운 도약, 하나되는 청화'를 주제로 열린 단합법회는 관음정진, 무드라 수행, 강의, 적멸궁 참배,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방법과 불교문화, 젊은 불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위해 청년불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진각종

경주교구청 헌공불사

진각종은 1일 경주 황남동 홍원심인당에서 경주교구청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효암 통리원장, 백상승 경주시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경주교구청 헌공불사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행정을 이관하는데 있어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역포교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위덕대에 건강복지센터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3월 24일 사회체육학부 부설 건강복지증진센터를 개설했다.

예체능관 내에 개설된 건강복지증진센터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과 체력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 성인병 예방 및 처치를 위한 식이요법과 과학적인 운동방법을 처방한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체격 및 신체구성검사, 일반 의학검사, 기초체력검사, 근 · 관절 기능검사, 운동 부하검사 등을 실시,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체력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처방을 내리는 체계를 갖춰 과학적인 운동처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복지증진센터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체력측정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체력관리실에서는 운동처방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훈련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총지종

61회 춘계스승 강공회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제61회 춘계 스승강공회를 실시한다. 강공기간 중에는 승단총회와 정기종의회, 원의회가 각각 개최된다.

승단총회에서는 결원된 종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종단 현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화활성화를 위한 토의와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의회에서는 종법 개정과 종단내 각 기구의 임원 선임, 산하기관 감사보고 등이 이뤄진다.

한편 통리원은 법공 통리원장과 새 집행부가 구성된 후 처음 맞는 강공회인 만큼 종단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일승종

삼봉사 납골당 건립결의



일승종 중앙종회(의장 혜인)는 3월 25일 구리 삼봉사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삼봉사내 납골당 건립을 결의했다. 삼봉사 납골당은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건립되며, 지상1층은 극락전 법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生) 지장도량 '심원사 지장전 중개축 불사' 모연문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 보개산 심원사가 지장전 중창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심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生)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신앙의 근본도량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도 친견하기를 소망하는 지장보살님이 살아계신 절이라는 환희심에 심원사에는 경향각지의 불자들이 모여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사 사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심원사 지장보살님은 90cm크기의 아담한 석불로, 순박한 얼굴에 자비한 미소가 매우 다정하게 느껴지는 보살님이십니다.

이 생(生)지장보살님은 지금까지 10여평 남짓한 지장전에 봉안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에 건물이 쇄락해져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기도하고자 찾아오는 불자들을 다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심원사 대중들과 신도회는 경향각지 불자 대중의 간절한 발원을 모아 '지장전 증개축 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원사가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금 규모의 두배가 넘는 30평 크기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사의 중요한 불전이자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상징이 될 이번 불사에 전국의 선남선녀들의 정성과 기도가 모아져 지장보살님의 위신력과 자비광명이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지장경을 꼭 읽고 기도하셔야 할 분 ※

◇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
◇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분
◇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노력을 들인 것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분
◇ 유난히 모든일에 장애가 많은 분
◇ 항상 깊은 잠을 못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분
◇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분
◇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분

♠ 동참방법
◇ 대들보 ◇ 기 둥 ◇ 주춧돌 ◇ 기와 ◇ 서까래 ◇ 도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종무소 전화 (033)455-3468

♠ 심원사 찾아가는길
서울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4호선 수유리 역앞에서 동송행 버스를타고 '관인'에서 하차.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있고,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심원사 영험 實話

"생불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불임은 <심원사 사기>가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3년 전인 720년 어느날, 이순석 이순애 형제 사냥꾼은 지금의 심원사가 위치한 보개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발견하고 화살로 쏘아 맞췄습니다. 멧돼지는 죽지 않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환희봉 아래에서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멧돼지를 추적하던 형제는 멧돼지는 없고 대신 우물 속에서 자신들이 쏜 화살이 팔에 꽂힌 석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는 석상에서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으나 화살은 뽑히지 않았고 석상은 계속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는 크게 깨닫고 "대성이시여 저희 잘못을 깨우치러 몸소 나투신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는 살생을 아니하겠습니다."하고 그즉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한 생(生)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사진>이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심 원 사 주지 도 후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서암스님 영결식을 마친뒤 운구행렬이 봉암사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봉암사 일주문 옆 연잎으로 장엄된 봉암사 연화대에 종정 법전스님 등이 거화하고 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셨습니까

서암당 홍근대종사 다비식

여법하게 살다 여법하게 가신 영원한 수좌 서암당 홍근 대종사. 조계종 내 대표적인 선승(禪僧)이었던 서암 스님은 3월 29일 오전 7시 40분 봉암사 염화실에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세수 87세, 법랍 68세.

세속적인 욕심에 연연하지 않았던 스님은 조계종단의 8대 종정을 지냈지만 문중도 사찰도 없이 오직 수행에만 열중한 진정한 스님이었다. 이 시대 수좌들의 사표였다.

스님은 임종게를 남겨달라는 수좌들에게 "달리 할 말이 없다.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스님의 삶은 한국 수좌들과 불자들에게 살고 죽는 일이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임을 보여줬다. 스님의 열반은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중생들의 번뇌를 불살라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도정임을 확실히 인식시켰다. 그래서 스님을 여읜 불자들은 고통도 슬픔도 없다.

2일 서암 대종사 영결식이 희양산 봉암사 대웅전 앞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수좌장'으로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 노무현대통령, 이창동 문광부 장관,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상배 한나라당정책의장, 신도대표 무궁화 보살은 "철석같은 신념과 원력으로 정진했던 모습은 출가사문의 귀감이 됐다"며 애도를 표했다.

또 영결식에 참석한 1천여 선승들은 스님이 남겨준 정진력을 본받아 여법한 수좌가 될 것을 발원하는 자리가 됐다. 수좌들은 영결식과 다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구동성으로 서암 스님 수좌상을 얘기하며 '결단코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서원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정진하는 10년 가행정진에 들어간 고우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은 "30대 수좌로 김룡사 금선암에서 수행하던 중 폐암으로 방황하던 나를 바로잡아주신 은인"이라며 "당시 스님은 50대 수좌로 봉암사 6년결사 후 금선암에 오셨는데 스님의 바른 행과 언행은 수좌들의 모범이 됐다"고 회고 했다.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수좌회장' 봉행
"여법한 수좌 될 것을 발원"
"큰스님 유훈따라 사리 수습안해"

봉암사 구참 납자인 설정스님(수덕사)은 "스님은 평생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한 신념이 철저하신 분이었다"며 "선과 교 그리고 신학문을 겸비하신 선지식이었던 스님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력은 오직 수행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은 "30년간 큰스님을 뵈면서 망상 분별 집착을 버리고, 탁마하시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줬다"며 "스님께서는 수행자는 언제나 안에서나 밖에서 현재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본분사를 잃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것만이 수행자의 길이라 가르켜 주었다"고 말했다.

2년차 수좌 정견스님은 "수좌들의 사표였던 어른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뼛속에 남아 있다"며 "스님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출가자가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수행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굳은 수행정진 의지를 드러냈다.

영결식후 곧바로 발인이 이어졌다. 400여장의 만장이 펄럭이는 가운데 시작된 운구행렬은 인로왕번 명정 건사 오방번 무상게 위패 영정 법주순으로 이어졌다. 다비장을 향한 서암스님의 법구를 따르는 1천여 스님과 4천여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큰스님을 여의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오후 12시 30분경. 희양산 봉암사 일주문 옆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됐다. 조계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 봉암사 주지 원타스님 등은 참나무와 가마니, 볏짚으로 만든 높이 2.1m의 연화대에 거화했다. 스님의 법구가 불길에 휩쌓이자 한 수좌 스님은 두손을 모으고 "서암 큰스님은 수좌들이 가야 할 길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표였다"며 스님의 원각해탈을 염원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수화풍 4대가 모여 가합(假合)된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과멸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다비식. 스님의 다비식은 시방세계 모든중생의 몸과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대중들에게 분명히 일러줬다. 스님은 수행의 길은 대자유를 얻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생할것도 멸할것도 없으니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음을 보여줬다.

한편 문도대표인 서호 스님은 "큰스님의 유훈에 따라 사리는 수습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봉암사= 김원우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연꽃으로 장엄된 스님의 법구가 일주문을 나서고 있다.



◇불자들이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400여장의 만장을 들고 운구행렬에 함께했다.

전국선원 수좌회서 요청

왜 수좌회장 치렀나

전국 선원에서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해온 조계종의 '대표 수좌'였던 서암 대종사의 영결식이 2일 오전 11시 봉암사에서 전국수좌회장으로 치러졌다.

서암대종사는 조계종 8대 종정을 지냈기 때문에 종헌종법에 의거 '조계종 종단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좌회장으로 장례가 결정된 것에 대해 고우스님(각화사 선원장)은 "올 2월경 간화선 수행체계 논의당시 7명의 수좌회 간부들이 모여 '수좌회장'을 논의했다"며 "3월 중순 수덕사에서 열린 도성암 성찬스님 다비식에서 봉암사 수좌를 통해 서암스님이 미음만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국사찰의 선승모임인 전국선원수좌회는 3월 29일 저녁 서암스님 장례식을 논의키 위해 봉암사에 온 종단 관계자들에게 "이 시대 대표 수좌였던 큰스님을 기리기 위해 수좌장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수좌회의 뜻을 따르겠다"며 "서암큰스님 장례가 종단장의 격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암스님 영결식이 한국불교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수좌장이었지만 전국 선방의 수좌들이 대부분 참석, 어느 영결식보다 장엄했다는 평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법칙을알아야세상의시대변화를알겠으니…
오랜세월산사에서토굴을짓고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삼정스님 시대가변하면 병도변하고그시대에따라먹는음식도약도변해야된다고한다.현대의병은그 원인이 어디에서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독속에서살아가고있으며 온일류가 자연의법칙을 거역한 죄로에전에없던 각가지 중병을앓으며 죽어가고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질병들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해독하고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상업주의 우려 속 반면교사 역할도

틱낫한 스님 방한이 남긴 것

틱낫한 스님이 3일 이화여대 강연을 끝으로 두 번째 공식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 출국했다. 스님의 이번 방한을 앞두고 본지(404 · 413호 참조)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출판 상업주의'를 우려했었다. 또한 외국 스님들의 잦은 방한에 비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론 한국에도 틱낫한 스님 이상의 스님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스님들의 회향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님 방한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짚는 것은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한 반성적 점검도 될 것이다.



◇3월 2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화' 강연.

쉽고 현실적인 법문… 재탕 · 지루한 점 '흠'
무리한 진행 – 행사마다 10분~1시간 지연
새만금서도 '걷기' … '이벤트 전락' 비판도

⊙신간 홍보 사절단?

본지(404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틱낫한 스님의 이번 방한은 출판 상업주의의 혐의를 지울 수 없었다. 그 근거는 스님 방한을 주최한 명진출판사의 신간서적 홍보. 명진측은 방한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진에서 나온 스님의 책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특히 스님 방한에 맞춰 출간된 '힘'을 여러 책들 중 제일 위로 올려 서옹스님이나 보성스님, 도법스님 등에게 선물했다.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스님의 선물 대부분이 명진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고, 그 책들 중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는 것이 신간서적이라면, 이것은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을까?

⊙무리한 진행 잘못된 진행

스님은 방한 내내 행사 예정시간보다 늦게 나타났다. 10~20분은 예사였고,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순천 송광사에서는 일반인들이 대웅전 앞에서 30분 이상 추위에 떨었고, 남원 실상사에서는 1시간 이상 스님을 기다렸다. 이것은 주최측이 스님의 나이(77)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스님의 결함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스님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또 스님은 방한 내내 귓속에 이어폰을 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른바 사설 경호원들이다. 스님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호원들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둘러싸여 대중들과 격리된 스님의 모습이 '해외 유명 연예인'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나친 딴지걸기일까?

⊙걷기명상 또는 이벤트

틱낫한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걷기명상(Walking Meditation)'. 하지만 방한 중 이 걷기명상이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 첫번째가 3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민 평화 염원대회'. 주최측이 주장하던 10만명 운집(2천명)은 차치하더라도, 스님은 대회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 한 뒤, 군중 가운데로 걷기명상을 간단히 '시범'보이고 버스에 올랐다.

두 번째는 3월 38일 부안 해창갯벌에서 열린 새만금 삼보일배 현장. 스님은 여기서 '새만금'이나 '갯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삼보일배를 시작하려는데, 생뚱맞게 '걷기명상'과 '플럼빌리지'에 대한 소개만 했다.

⊙쉬운, 그러나 지루한 법문

틱낫한 스님이 한국불자들을 사로잡은 주요한 코드는 법문이 '쉽다' '현실적이다' 이 두 가지. 스님은 저서와 강연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거론하며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방한 기간 중 스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자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말이 나오는가'가 취재 포인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틱낫한 스님 방한, 한국불교의 반면교사

스님의 방한과 관련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국불교가 자초한 일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정신적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불자들이 틱낫한 스님과 스님 방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원인을 분석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제2의 틱낫한, 제3의 틱낫한 스님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이번 방한과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비구는 여성과 단둘이 승차하지 말라
담배 · TV · 전자게임기는 멀리 하도록
틱낫한 스님, 바라제목차 개정본 발표

틱낫한 스님이 3월 31일 중앙승가대에서 바라제목차(비구 250계의 항목) 개정본을 발표한 이후 한국불교계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반된 의견의 골자는 '계율 개정에 대해 승가의 공의를 모았어야 했다'는 것과 '현대적 청규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계율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율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제불교 단체에서도 논의 중인 만큼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 승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도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측은 "계율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계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꼭 행해야 할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틱낫한 스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합당한가 안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의 바라제목차는 특히 현대사회와 밀접한 자동차, 텔레비전, 전자오락, 주식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자동차… 비구는 자기 차를 가지면 안되고, 여성과 단둘이 자동차를 타면 안된다.

물질… 비구는 담배나 향신성 물질로 간주되는 것이나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가라오케 전자게임기 등 장비를 가지면 안된다.

행위… 비구는 상스러운 책이나 점치는 도구를 가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사면 안된다.

개정본 발표에 대해 스님과 플럼빌리지 차원의 문제로 한정하면 되지 '개정'의 차원까지 의미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러나 '비구는 자기 차를 가지면 안된다'면서도 '운전하면서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모순은 원칙과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예를 제시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임태리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오늘을 사는 어르신들

'나'를 찾아서 모이신 분들
황혼기가 삶의 절정 되길

시험이란 아이나 어른이나 긴장하게 만드는 것인가 보다. 센터의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나는 종종 어르신들의 시험 감독관이 된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학창시절 무서운 시험 감독관이셨을지도 모를 우리 어르신들은 다시금 학생이 되신다. 중국어회화반 기초시험이 있는 날. 시험지를 들고 교육실에 들어서는 나에게 30여명의 어르신 응시생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바로 두툼한 시험지 뭉치로 옮겨간다. 정적과 함께 흐르는 긴장감. 몇몇 어르신들이 그 긴장을 풀어보시려는 듯 허험, 허험 하고 헛기침을 하신다.

곧이어 시험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각자 그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가신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풀어내야 할 문제의 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발갛게 상기된 어르신의 얼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 있다. 안타까움을 만면에 가득 띄운 한 어르신의 눈길은 자꾸만 차마 가방 속에 넣지도 못해 옆자리 의자에 가만히 놓아둔 교과서로 향한다. 슬금슬금 나이 어린 감독관의 시선을 확인하는 어르신의 모습에 나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면 안타까움의 절정에 달한 어르신의 마음은 옆에 놓인 교과서를 얼른 한번 들추어보고 만다. 그 짧은 순간 오갔을 무수한 갈등과 긴장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지! 바로 옆 책상에서는 자신감과 소신에 찬 한 어르신이 시험을 보고 계신다. 막 힘없이 척척 답을 써 내려가시는 이 어르신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옆자리 어르신. 아마도 미처 많은 준비를 해오지 못하셨나보다. 영 어려우신 듯 한동안 문제풀기를 멈추시고는 한손으로 입 언저리만 쓱쓱 문지르시더니 이제는 인생의 눈이 하얗게 내린 머리칼을 연신 쓸어 올리신다.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에 나는 뒤돌아서서 미소를 참을 뿐 차마 주의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시험의 부정행위가 아닌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배움에 대한 순수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읽는다면 그 누가 딱부러진 주의를 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세대인가. 뼈아픈 전쟁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오로지 생을 위해 자신의 얼마나 많은 꿈을 접어야만 했는지. 인생의 많고 많은 인연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잊으며 살아왔어야 했는지. 이러한 이해 앞에 시험시간 에피소드는 그저 웃어넘기고 말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벽암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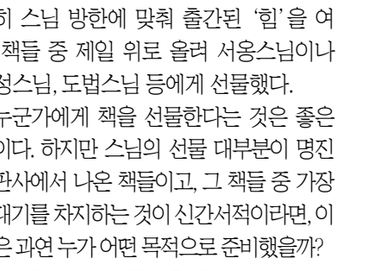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여기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그런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나'를 찾아,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여기 이렇게 모인 어르신들. 그렇게 모여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생즉학(生卽學)'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인생의 황혼기를 삶의 절정의 날로 살아가실 것이라 기대한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영가(조상신)을 천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중엄신을 제도할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빙의령)
◆ 영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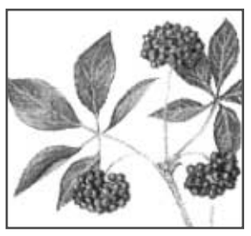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방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문의처 02)3453-3421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 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헌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린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사람과 법' 법률사무소 불자 변호사 3인방

'붓다의 법'과 '세간 법', 두 개의 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불자 변호사 3인방이 바로 그들. 지난 1일 변호사 이름들로 빼곡한 서초동 법조 단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첫 시선을 잡아 끈 '사람과 법'이란 이름. 궁금했다.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설명은 간단했다. 법 앞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란다. 덧붙이자면, 사람을 위해 법이 봉사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뭉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했다. '붓다의 법'이 사람을 평화롭게 한다. 젊은 불자 이홍주 · 조영봉 · 박태원 변호사, 이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이홍주


◇조영봉


◇박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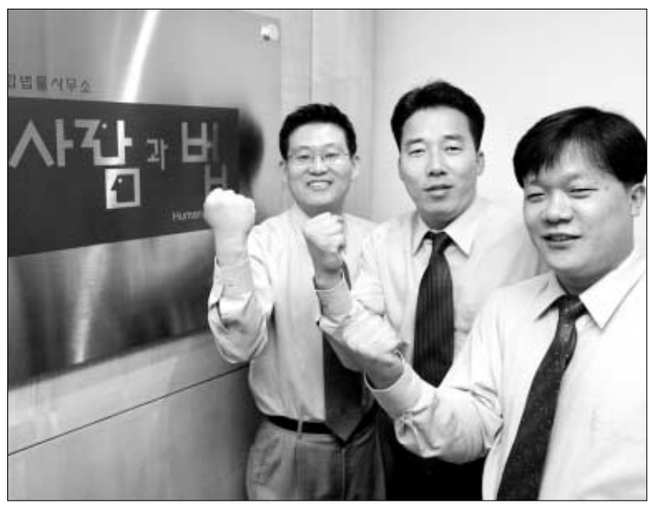
"佛法으로 세간법에 향기 심어요"

●뭉친 이유= 법 앞에 '사람'을 세우고 싶었다.

사람부터 알고 싶었다. 사법 시험 공부할 때도, 불교학생회 · 청년회 활동 시절에도, 사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절박했다. 이홍주(42) 변호사는 중 · 고 시절 부산 내원정사 정련 스님의 '마을상좌(유발상좌)'로 지내면서, 조영봉(41) 변호사는 정릉 청암사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박태원(36) 변호사는 홍천 11사단 군법당에서 제각기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99년. 이들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생으로 만났다. 첫 눈에 마음이 통했다. 곧바로 연수원 내 불교모임 다르마 법우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홍주 변호사는 회장을 조영봉 · 박태원 변호사는 법우회 회원으로, '붓다의 법'과 '세간 법'을 오가며 연수원 2년을 치열하게 지냈다. 그간 무료법률상담 봉사 활동도 같이 했다. 서울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4개월 동안 불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사람'을 좀더 배우고 싶어서였다.

"상담내용은 다급했습니다. 주로 채권 · 채무 관계 상담들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에서 묻어나는 불자님들의 넉넉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지식만을 가진 차가운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가슴 따뜻한 불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죠."


◇'젊은 불자변호사들의 파이팅'.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3인방 이홍주(왼쪽), 조영봉(가운데), 박태원 변호사가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홍주 변호사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헤맨 '길'을 이때 비로소 보았다고 했다. 곧이어 조영봉 변호사도, 박태원 변호사도 말을 거들었다.

"'사람을 알아야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과 서로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기투합하고 지난해 2월에 '사람과 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이름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람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사람을 위해 법이 봉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불자법조인의 길= 우리는 이렇게 걸어간다.

"절묘한 줄타기였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세간법 속에서 붓다의 연기법은 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불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비심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영봉 변호사가 그간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대답은 갖고 있었다.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부처님 법속에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행은 더욱 간절해졌다. 또 자기반성의 시간도 길어졌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들은 매일 <금강경> 사경과 다라니를 왼다. 이 변호사는 아예 사경집을 들고 다닌다. 틈만 나면 한자 한자 새기면서 흩어진 마음을 다잡는다. 조 변호사의 신행은 소박하다. 출 · 퇴근길에 만나는 걸인들에게 보시금을 건네준다. 박 변호사는 '법전 대신 경전을 끼고 다녔다'는 다르마 법우회 지도교수 조희대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정신을 되새긴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불자법조인의 길은 붓다의 법과 세간 법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삶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도 젊은 불자법조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사람과 법'의 변호사들은 오는 5월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동문회 결성을 추진한다. 기수별 모임의 한계를 벗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연수원 30 · 31 · 32기를 중심으로 동문회를 구성해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 시설을 방문, 무료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02)591-660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법연수원 제31기 다르마법우회 동문
무료 법률상담, 5월 법우회 동문회 창립
"불자들 권리의식 높이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모임에선

금천구청 공무원 불자회 창립법회

서울시 금천구청 공무원 불자회가 지난 3월 28일 금천구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원욱 스님,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법회에서 한경헌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공무원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경찰불교회 합동법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 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 지역 경찰불교회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울 지역 경찰불교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운불련 5대 회장 이길풍 씨

대구 동화사서 정기총회 · 대의원 수련회



한국운전기사불자회(이하 운불련) 제5대 회장에 운불련 대전지회 이길풍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운불련은 지난 3월 30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9차 정기총회 및 대의원수련대회'를 갖고, 당초 제1차 운영위에서 추천한 부산지회 조홍인 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했다. 곧이어 운불련은 제2차 운영위를 열고 대전지회 이길풍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선출 과정에서 낙선된 부산지회장을 비롯해 안양, 수원지회 등 10여명의 대의원이 지금까지 운불련 운영에서 회원수가 적은 소수지회가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소요가 있었다.

대구 동화사= 박원구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

회원 교육과정 '입문-참선'으로 확대개편
지회별 경전연구회 … 전문분야별로 활동

늦은 밤, 연구실에서 바라본 별빛은 아름답습니다. 계속되는 실험들로 몸은 고되지만, 가슴 한 편에 저미는 부처님 법은 언제나 감로수로 다가왔습니다. 모니터에 붙여놓은 법구 한 자만으로도 지친 신심은 어느새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는 지난 1987년에 창립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연합단체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 9개 지회로 회원만 4백여 명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자랑을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회원들의 불장도 마련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1월, 10월 대전 태전사에서 우리 연합회가 마련한 두 차례의 산사음악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단했지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범패, 바라춤 등의 불교음악 공연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사음악회를 연간 행사로 정례화해 지역 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원이 자기의 연구프로젝트 진행에 좇기다 보면, 법회를 자주 봉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수당도 없이 밤늦게 일하는 것이 연구소의 특징이다 보니, 10년 이상의 친구이면서 경조사에도 서로 연락을 못하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경조사



◇지난해 10월 대전 태전사에서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가 마련한 '제2회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 이날 초청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이 영산회상가를 연주하고 있다.

모임이었습니다. 연구와 공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경조사에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연합회는 지회별 경전연구회 결성을 추진합니다. 4백여 명의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성된 연구단지인 만큼 연합회 활동이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신행활동에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교입문교육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도법사 도일 스님(태전사 주지)의 지도로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또 2월에 배출된 첫 수료자 30명을 대상으로 참선 전문교육 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단순 입문교육에서 '입문-참선'으로 확대 개편해, 명실공히 '순환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뿐인가요? 산하 9개 지회를 순회하는 합동법회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창립 이후, 줄곧 제기돼온 지회별 지도법사와 회원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회별 정보공유의

■김천석 회장(KT&G 중앙연구원)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동자승 이야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얼굴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홀홀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험한 산, 물을 찾아도 한 지 걸림도 없이 묻고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큰은 한 법이요 사이다. —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변역 석명정 | 값 8,500원

마음 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읽는 그대로가 '금인경 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8,500원

“초기불교, 부파불교와 다르다”

엄연한 차이 불구 대부분 소승으로 오해

“초기불교만 올바른 가르침” 고집은 잘못

‘불교평론’ 봄호 초기불교 특집



“초기불교는 불교가 분열하기 이전의 불교를 말한다. 따라서 대승불교에 의해 소승불교로 비판받았던 부파불교와 초기불교는 엄연히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불교를 소승불교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 한국불교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녔던 ‘간화선 위기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초기불교가 조명을 받고 있다.

초기불교 경전인 ‘빠알리 니까야’의 한글 번역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초기불교 수행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한쪽에서는 ‘초기불교 근본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들린다.

불교 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14호)가 특집으로 다룬 ‘초기불교를 다시 본다’는, 그 어느 쪽이든 제대로 된 초기불교 이해를 통해 오늘의 한국불교를 다시 보자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초기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비판하는 부파불교가 아닌데도 <아함경>과 같은 초기불교의 경전이 부파불교에 의해 전승돼 왔고, 부파불교의 소의경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승경전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의 결과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마저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초기불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불교가 대·소승을 포함한 모든 불교의 뿌리이고, 후대의 불교는 모두 초기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기불교는 대승불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승불교는 결코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기 교단사를 전공한 이자랑 박사(동국대 강사)는 율장에 나타난 인도불교 승단의 생활을 살펴봤다. 이 박사는 “율장에서 확인되는 인도불교 승단의 모습은 의외로 재가신자와의 접촉도 빈번하며 의식주에 관해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출가의 목적이 의식주 생활의 제한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불교 승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출가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재가신자의 평가였다는 점이다. 이 박사는 “불교 승단은 재가자의 평판에 매우 민감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율장의 수많은 규정이 재가자의 권유나 비난을 계기로 제정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율장을 통해 이해하는 한, 재가자의 눈에 비친 모습과 그 판단이 출가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초기불교 수행의 요체인 팔정도와 실제 수행법인 사념처관과 호흡관법을 소개한 미산 스님은 “초기불교 수행법이 후기에 발달된 모든 불교 수행법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토대를 이루긴 하지만 초기불교만이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그밖의 다른 전통은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서 일탈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불교의 바른 수행 전통을 보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의 명랑법사가 사천왕사에서 유가명승 12명과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 밀교의 비법)을 행해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고, 고려 말까지 그 단석(壇席)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단석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신라 사천왕사 좌우경루 초석 문두루비법 행하던 단석이다”

장충식 교수 주장

동국대 장충식 교수(미술사학과)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39집에 기고한 논문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에서 금당지 후방(북쪽)의 좌·우경루(左·右經樓) 초석이 바로 문두루비법을 행하던 단석이라고 지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천왕사지의 금당지 후방에는 동서로 대칭하여 각각 12개의 초석이 토단 둘레에 ‘ㅁ’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1930년 일본학자 후지시마 이후 경루의 초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장 교수는 이 초석의 특수한 형태에 주목했다. 초석은 상면 중앙에 각기 직경 약 20cm의 원공(圓孔)이 있고, 원공 주변에 약 50cm 내외 크기의 이중 돌기선이 정방형으로 몰딩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네 모서리 부분에서 사각을 이루면서 초석의 네 귀퉁이로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우동(隅棟) 형태를 취하고 있다(사진). 장 교수는 “경루라면 초석 자체가 기둥에 숨겨지기 때문에 원공이나 몰딩과 같은 조형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반드시 외부에의 노출을 전제로 하고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남아 있는 초석이 12개가 아니고 24개일까? 장 교수는 “당시 유행했던 통일신라의 좌우대칭식 가람배치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좌우대칭이므로 24개이지만 좌우를 각기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효 화쟁사상 노사분쟁에 적용 대립·갈등 생산적 관계로 전환”

김영종 교수

“노사 관계 당사자가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영종 교수(행정학)는 <원효학연구> 제7집에 실린 ‘원효의 화쟁사상에 의한 노사분쟁의 조정’을 통해 “원효의 화쟁사상은 다양한 신라시대 종교적 교리와 주장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기본적 사상이지만 오늘날 노사분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비롯한 대립과 갈등의 해결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원효에 대한 연구 논문과 단행본이 1천여 권에 이르지만 노사 분쟁이나 노동 문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와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김 교수는 노사분쟁이 이해의 상반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개 노동 문제나 경영 상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노사의 일방적인 판단,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오해와 곡해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화쟁사상의 세 가지 적용 원리가 노사 갈등과 파업을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 교수가 밝힌, 원효가 화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란 △전개와 통합의 자유 △자기중심주의의 배제 △상황 이해주의이다. 김 교수는 “화쟁사상의 뿌리가 되는 일심(一心)사상 또한 노사가 궁극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절(4)

열려있는 불국토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천년의 역사를 가꾸어왔다. 고구려와 백제가 수도를 두세 차례 옮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라인에게 있어서 경주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신성한 이상세계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신선사상의 이상처인 선계(仙界)를 지금 무열왕릉의 뒷산인 선도산(仙桃山)으로 삼았고,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낭산을 도리천(忉利天)으로 믿고 그 위에 선덕여왕의 능을 조성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토함산 자락에 불국사라는 새로운 불국토를 건립하였다. 신라인들이 경주를 성역화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불국토인 불국사는 석가정토와 아미타정토로 이루어졌다. 먼저 석가정토를 들어가 보자. 푸른 구름과 흰 구름이 화엄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상종에 의한 것인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적으로 보면 부처님별로 전용 공간을 마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불상은 7세기에 와서 비로소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 등 도상적 구별이 나타나는데, 사찰의 공간에서는 불국사에서 그러한 특징이 보인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불국사의 건물 가운데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돌로 된 기단과 탑, 주춧돌 정도이다. 대웅전과 극락전, 그리고 회랑 일부는 18세기에 재건한 것이고, 나머지는 20세기에 와서 새로 복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단은 신라미술을 대표할 만큼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두 개의 무지개다리(홍예교), 자연스런 바위와 정연하게



◇불국사 전경. 앞 왼쪽이 아미타불 영역, 오른쪽이 석가불 영역, 그 뒤쪽에 비로자나불 영역, 그 오른쪽이 관음보살 영역이다.

석가정토·아미타정토로 이뤄진 불국사 홍예교·구름 상징 돌기둥 석조미술 정수

[靑雲橋와 白雲橋]을 밟고 오르면 석가불의 몸에서 발산하는 자주빛 이내로 된 문[紫霞門]에 다다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석가불(석가탑)이 설법하고 다보불(다보탑)이 증명하는 장중한 드라마를 목격하게 된다. 이들 탑 뒤에는 큰 영웅, 즉 석가불이 계신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 뒤에는 말이 없는 전각이란 의미의 무설전(無說殿), 그러나 큰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당이 좌우로 길게 뻗어 있다. 그 옆의 아미타정토를 들어가 보자. 연꽃과 칠보로 장식된 다리[蓮花橋와 七寶橋]를 오르면 서방극락의 입구임을 알려주는 안양문(安養門)이 있다. 그 문을 들어서면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전이 있는 것이다. 석가정토를 중심에 놓고 아미타정토를 그 다음 단계로 놓았다. 이러한 구성

다듬어진 부재를 조화롭게 꾸민 석축, 구름을 상징한 석주 등은 석조미술의 정수이다. 기단은 2개로 된 다리를 올라가야 될 만큼 키를 높이 세웠다. 그 까닭은 기단 밑의 속세와 그 위의 불국정토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한 고려일 것이다. 불국사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사찰이나 탑은 모두 기단이 높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한층 높아진 부처님의 권위와 삼국통일에서 얻은 자신감이 맞물려서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토함산에 불국토를 조성한 이는 재상 김대성(金大城)이다. 그는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성의 지극한 효심은 그의 부모를 넘어 오늘날 우리들까지 불국토로 이끌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문양을 집대성한 한국의 美 『무늬』

사진 · 안장헌 / 글 · 이기선



문화재 사진작가 「안장헌」의 섬세한 영상과
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인 「이기선」의
유려한 해설이 돋보이는 한국무늬의 집대성

무늬에 관한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무늬를 그림으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무늬가 베풀어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원형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그야말로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무늬의 원광석인 책이다.
오늘날 각종 산업과 문화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사가들은 물론 종교인, 디자이너, 문화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특징
1) 무늬를 있는 그대로 살린 원색 사진
2) 충실한 자료는 답사와 연구의 길라잡이
3) 258페이지에 수록한 총 308컷의 풍부한 도판
4) 최대한 한글화한 무늬 용어
5) 쉽게 풀이한 무늬의 발생과 상징성

4X6 변형 배판, 스노우 화이트, 총256쪽
정가 28,000원



저승길을 가며 타는 꽃가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는 호사가 아닌가. 더구나 무덤 가를 지키고 있는 망주석이나 장명등에도 무늬는 베풀어져 있다.
이렇듯 무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문양 작품들에 담긴 선조들의 장인 혼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시 장인의 정신으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무늬에 깃들어 있는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무늬의 창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부디 이 책이 출간됨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헤맴 없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원배(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호영출판사 TEL 02-3442-5131 FAX 02-511-1882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1-9686-3676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구인 구직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보현정사
(서울 교대부근)
02)583-1080
016-321-10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암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구 함
▷서울 서대문구
(월 80만원, 60세미만)
02)394-9018
017-236-8761

사찰에서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실 신심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 학력, 연령 제한없슴
(보시는 있슴)
대한불교조계종 보림사
053)751-4674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김포위치
011-9710-0237

팔공산 금강(선원)사
일반 보살님이나 노보살님, 기도하실 분 모십니다
▷소원 성취 기도
▷ 정법 기도 도량
053)983-3020

산사나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61)772-4109.5401
011-9302-1618

공양주 구함
가족과 함께 절에서 살면서 공양주 보실분을 찾습니다
※별도의 공양주 채가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
02)914-42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6-521-0003
054)975-0003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011)9638-8229

연수 및 수련 장소 제공
1. 초 · 중 · 고등학생 수련이나 대학생 MT 환영
2. 일반 직장인 및 단기간 수련법회 하실 분도 가능
※ 경관이 수려하고 강을 끼고 있어 MT나 수련 장소로 적합함 30名이내 가능하고 취사도 가능
011-485-4661
043)733-126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 가평
031)584-1541
011-9723-09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밀양 여여정사
(50세 전후)
055)355-9290~1

공양주 보살님 (급) 구합니다
(처사님도 구함)
▷ 50세 이상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구 함
▷ 경기 평택
031)683-5820

안정된 생활의 불심있고 자비로운 배우자(男)를 찾습니다
▷ 나이는55세~63세
011-748-3367

산에서 천일 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조용한 산속에서 기도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이상
054)552-8544

공양주 겸 사무원(女) 모집합니다
▷40~50세 (경기 고양시)
019-211-8533

이전 강좌
알림 정보

신비한 비법
구성으로 본 내정법
사주없이 현실을 말할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분 전화 연락바랍니다
019-306-0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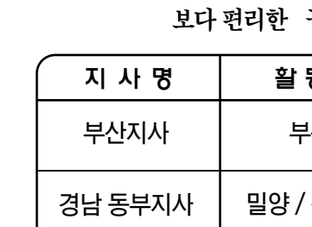
상황버섯
캄보디아산 자연산
1kg 200,000원
055)381-1143
011-882-1149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천도재등 재의식 법문이 필요한 사찰 연락주십시오
형편따라 봉사하겠습니다
자성 합장
011-9866-0904
02)909-0904
e-mail : dhchong@naver.com

운세 30초내 잘 맞추면 입금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탈종공고
· 법명 : 거산 · 사찰명 : 성불사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과 맞지않아 대한불교 임제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4월 9일
대한불교 임제종 총무원장 법하

· 법명 : 해동(041-0173) · 사찰명 : 성불사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과 맞지않아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4월 9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본명 : 박원채 · 법명 : 일연
·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88-1번지
위 사찰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4월 9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사상
●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 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031)256-5605, 016)433-5605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豆土)
발명특허원 15826호
가. 제품의 특성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를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된다.
나. 청국장의 효능
⊙ 정장 작용 - 변비 해소
⊙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다. 가격 : 77,000원 (낫도씨, 볏짚, 볼약콩 500mg 포함)
라. 양구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12,000원/1kg, 8,000원/1kg
※신청 : 우리콩 운동본부 033)481-4894. 온라인 (농협) 123-17-000466 정락훈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체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易 도가비전 전수 氣
도통역 기공법
건강 사업 성공 등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氣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음
●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 전화 : 02)935-2728 핸드폰 : 017-208-2866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욱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녕 / 의령	혜봉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지사	대구 · 경북	손문철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 /1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지사	광주 · 전남	주용직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위치:전남 •법 당:30평	•위치:인천	•위치 : 전남 순천
•요사:40평 •부지:3천평	• 법당 및 요사 : 40평	•법 당:20평
•가액:3억 5천만원	•가액 : 3000/100	•요사 : 45평
※고찰터에 자리잡고 우람하고 힘찬 바위가 어우러진 기도도량임	•가액 : 4천(특급)	•부지 : 1000평
		•가약 : 3억

※ 전국 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사찰 안내

● 서울 67평
● 보증금 : 9천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
● 시장, 교통 요충지
● 일산 75평
● 보증금 : 1500만원
● 월 세 : 60만원
● 시설비 약간 (절충)

◈ 납골당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妥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천년고찰 사적지 터

● 위치 :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 약 900평
● 한옥 1동
● 천년 역사의 삼청석탑이 있으며 문화재 복구비 지원 가능함
● 양도가 : 5억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5천만원
● 역사 깊은 도심 포교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전생요법 최면치료 영가천도로 병원과 약으로 치료 포기받은 환자
각종암,고질병,중풍,정신병등 태초의 능력으로 치유시킴
태양, 별, 달의 氣와 자연초로 완치
영통기도 신통기도 각종기도법 개인지도
(기 치료법 전수받을 여성구함)
041)942-9599
017)409-9599

불교의식 무료강좌

성불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천만 불자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성불에 도움이 되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진행스케쥴 : 목탁, 요령, 태징, 각단예불등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 서울 광진구 노유 1동 23-3 3층 (자세한 약도는 www.kumgang.or.kr 참조)
◆인원 : 30명 ☎ 02)462-9413

※본 선문은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초종파 교육도량입니다.
※수료후에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선문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약 16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 안내

● 위 치 : 경주 양남
● 대 지 : 약 10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60평
● 가 액 : 5억
※울산에서 30분거리
※납골당사업 가능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220평
● 법 당 : 30평(2층)
● 요사채 : 55평
● 가 액 : 9억
※ 송림속의 도심사찰
※ 교통 주차편리

● 위 치 : 청도⇔밀양
● 대 지 : 약 40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1억 3천
※ 기가막힌 절터
※ 도로 건축허가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상계동 당고개 전철역에서 500m
● 부지 : 300평
● 법당 30 평, 요사 20 평, 나한전 (노천)30 평, 약수 2개
● 주차장 완비(10대정도 가능)
● 6월 불하예정
● 가액 : 3억 5천만원(가액 절충)
02)952-7220
011)9997-9932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칠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중간지점
● 1층 22평, 2층 32평
● 대지 : 60평
● 임법당. 바닷가 별장
● 심야전기 조립식 15평
● 주차 무한대 가능
● 가액 : 2억원
011)9372-5977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대로변 코너 4층 건물중 3층
● 건물 35평, 삼존불, 특 A급 시설
● 가액 : 보증금 1 천만원 월세 80 만원 시설비 2 천만원
02)973-5492
011)9764-4494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경북 고령
● 부 지 : 4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5평
● 가 액 : 2억2천만원
● 위 치 : 서울
● 부 지 : 1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6억5천만원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터)안내

● 위치: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 진로농장
● 특징: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3천 7백평 (준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055)755-717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중심가 (주엽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5평)
● 앞뒤로 아파트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절충
031)919-0306
011)9701-0603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성안동 신도시주택가
● 대지 144평, 건평 150평 전망 최고좋음
● 1층 점포 2합 30평, 2층 요사채 80평, 3층 법당 4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절충가능, 전세가능) 주변시세 평당 200만원
● 용도변경, 타용도(가든) 가능
019)574-9460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 氣功 교육원
02)3446-4118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사찰(급)안내

● 위치 : 임진강 앞에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대지193평, 요사채70평, 법당 20평,방 6개,욕실 2,주방 3,거실3
● 법당단청했음
● 미륵 부처님 모셨음
● 산세수려하고 큰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 가격은 답사후 결정
011)9036-790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시내버스 종점
● 대지 135평. 신개발지역
● 임법당 20평. 요사,주지실 40평
● 삼존불 봉안. 2층 대웅전 불사중
● 가액 : 1억 5천만원(융자안고)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825-166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032)652-9384
011)729-601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6)444-5758

사찰(급)안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1)861-9163

포교원(급)안내

● 위치:울산 중구 학성동 역전시장 함월초등학교 정문앞
● 방2칸, 다용도부엌, 2층 40평, 시설물 약간 있음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1)9315-8768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시 최고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개, 공양방1개,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9천만원, 월세 7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011)9354-91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광명시전철 7호선광명역 앞 (4층 건물중 3층)
● 법당 :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3자, 각단 탱화 등
● 보증금 :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일체 2천만원
02)2618-0908
011)9717-900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7,000만원(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지목 : 준 농림지(田)
● 평수 : 208평, 건물없음
● 사정상 급매
● 가액 : 평당 2만5천원
● 동강에서 5분거리 (풍수상 명당터)
011)806-486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사
● 대지180평, 국유지 300평 사용
● 법당, 산신각,주지실, 요사방 9개
● 가액 : 1억 5천만원
● 전세 : 5천만원
031)885-5564
017)228-1159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에게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55)356-8056

포교당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지하철역 인접하고 버스종점 옆
● 대지 : 대지 53평, 3층 건물
● 구조 : 방 3칸, 거실, 주방 大, (인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특징 : 대단지 아파트(7600여세대)건립예정 지역으로서 포교원 최적합함.
● 가액 : 1억 3000만원(약간 절충가능)
051)331-9937
016)872-8050

포교당 안내

● 위치 : 신도시 중심상가 (역세권)
● 시설 : 160평. 시설완비
● 가액 : 3억원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보십시오)
011)9183-899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상가 2층, 총 34평
● 방1, 주방 1, 법당, 화장실
● 보일러 시설 완비
●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 토굴도 있슴, 문의 가능
011)9867-9822

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1km
● 계곡 암자터
● 논 496평
● 가액 : 1500만원
011)939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소사역부근(1호선) 도보 5분거리
● 법당 : 50평(낸난방시설)
● 삼존불 봉안, 후불탱화, 신장 탱화
● 범종, 인등단, 영가단(시설 최상급)
● 사무실, 주지실, 공양실, 2층 옥상 사용가능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1)9599-9468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통영간 중간지점
● 부지 : 500평, 법당 : 20평
● 시설 : 삼포목재 단청된 30년 역사의 전통사찰양식으로 산신, 용왕각이 모셔져 있음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가 인접하며, 절뒤에서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임.(넓은 주차 시설)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능)
011)9209-789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
● 평수 : 164평, 田 256평
● 건물 : 20평
● 슬라브 요사채(방3개, 거실, 욕실)
● 법당 : 조립식 10평, 화장실: 실내외 각각 1개
※ 스님이 급한 불사로 저가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4천 5백만원
011)486-127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김포
● 법당 : 32평
● 요사 : 20평
● 부지 : 4천 2백평
● 가액 : 11억 5천만원
018)244-8238
031)701-1880

암자별장 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법천사
● 대웅전(법당) 40평, 휴게실 25평, 주택 50평
● 대지 3,400평
● 가액 : 10억원
● 대진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교차지점
055)963-2250
019)294-225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한옥 목조 임법당
● 대지 370 평, 건물 40 평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 대지 165평, 건물 35평
● 가액 : 5천 8백만원 ● 사정상 급매
● 임법당 1개, 황토구들방 1개 황토방 1개, 목욕탕, 입식부엌, 다용도실
● 주문진에서 10분거리 (비산비하 도인 은신처)
016)207-88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중심가
● 층 건물 2,3층 합 100평
● 큰방3개, 넓은 주방, 넓은 거실, 창고방 2개
● 법당, 목조 불상, 석가모니 삼존불(관음전)
● 전체 전세 8천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30만원 중 택일
● 내부 시설비는 면담후 결정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시설A급
011)9301-22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7분)
● 대지 : 200 평
● 법당 : 콘크리트 27평 1층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요사채 : 27평
● 공양간 : 입식(현대식)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
● 대지 : 1,364평
● 건물 : 산신, 용왕각, 요사채
● 법당 : 대웅전 법당 기초 완료 (불사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도개 온천방향으로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3억 (가액조정 가능)
011)532-892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성남시 남한산성 부근 전철역 도로변 옆
● 평수 20평, 스님방 5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영단
● 도시가스, 외부간판 설치돼 있슴
● 시설비 : 1천 3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031)732-0471
016)557-0471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역 5 분 거리 수원도청 입구, 대로변
● 삼존불, 후불, 신불,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 건물에 2층 20 평
● 법당 15 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011)669-4221
031)257-6622

토굴 및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 입구
● 법당 : 목조 20평
● 요사채 20평, 후원(주방) 8평
● 보증금 : 1천 5백만원 (장기 임대 가능)
● 시설비 : 3천 5백만원
※비구니스님 수행처 매우 적합
016)9703-401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 개금불상, 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슴
● 현재 법회중 (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특혜 : 시설비약간만 받음(⅓) 답사후 결정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주지스님 공찰때문에 '급' 해결
011)9343-0780

목어

오래된 시집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내게는 오래된 시집이 한 권 있다. 표지 좌측 상단에 자명 황청원 박진관 시집이란 명조체가 있고 중앙에는 '歸鄕'이라는 글씨가 붉은 명조체로 새겨져 있다.

1979년 한국문학사에서 펴낸 이 시집은 당시 동국대에 재학중인 세 스님의 작품이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서문을 쓰고, 송혁 선생이 시 세계를 조망하고, 정현종 시인이 발문을 붙였으니 대가들의 시선도 상당하게 끌었던 시집이다. 구절구절 젊은 스님들의 시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고 있다.

이 시집의 첫 표지를 넘기면 황청원 시인의 서명이 나온다. 나는 당시 청원 스님에게 이 시집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이 시집을 간직하고 있다. 세 스님의 열정만큼이나 나도 시인을 지망하는 문학 소년의 열병을 앓으면서 살아온 까닭이다. 그 시집 속에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이 아직 숫총각인 채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집을 엮은 세 스님. 그들의 삶을 나는 지금까지도 엿보고 있다. 환속하여 시를 쓰면서 불교방송을 통해 불음(佛音)을 전파하는 황청원 시인.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서 운동가로 살면서 이른바 시국적인 단어들을 화두로 투쟁의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그리고 설악산 백담계곡 무금선실(無今禪室)에서 3년 결사를 맺어 용맹정진하고 있는 자명스님.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화두를 챙겨들고 있지만, 치열한 그들의 삶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내게 낡은 시집 한 권으로 남아 있는 24년 전의 그 젊음이 세 분에게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음이겠다.

한 복지관장 스님의 '아름다운 퇴임식'

3월 28일.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복지관에서는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다. 관장 각우 스님을 보내는 날이었다. 떠나는 스님은 퇴직금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분 4백만원 전액을 후원금으로 내놓았고, 직원들은 스님에게 노트북을 선물했다. 복지관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이끌었던 스님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다. 마지막 날까지도 복지관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스님의 퇴임식. 아름다운 뒷모습이었다.

장군죽비

사찰에 부담 떠넘기는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포교원이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69개 지하철 역사에 봉축등과 플래카드를 내건다.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포교원이 부담하지 않는다. 사찰 또는 단체 명의를 넣어주는 대신, 제작 · 설치 · 관리 비용을 개개사찰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좋은 취지로 이뤄지는 만큼 방법 또한 좋은 모양새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라크 전쟁을 읽는 지혜

왜 미 · 영 연합군은 이라크를 침공하였나. 이번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자.

미 · 영 연합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이유는 테러국가에 대한 응징, 석유자원의 확보, 첨단군사무기의 실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이번 전쟁은 유엔의 결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이라크를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과 군사대응방책을 동시에 하려다가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자 미 · 영 연합군만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 아니던가.

전쟁이 끝난 후 미 · 영의 세계지배구도는 이라크를 교두보로 유지하면서 친미세력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범아랍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러시아 · 중국에 대한 지역적 봉쇄작전을 펴서 세계의 판도를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덕성'(Morality)이라는 것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1등가는 나라가 아니라 1등부터 190등까지의 나라를 통솔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독재정치, 인권탄압 등을 자행한다면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그 나라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은 '도덕성의 잣대가 불명확하다', '황야의 무법자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아직도 람보와 같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두번째는 '자국의 이익추구'(National interest)정책이다. 다른 나라가 어찌되었던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가치관이다.

이 도덕성추구정책(민주당)과 자국이익추구정책(공화당)은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마치 야구에서 수비가 끝나면 공격이 되고, 공격이 끝나면 수비가 되듯이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부시행정부는 이 두 가지의 잣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독불장군식 정책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세계역사의 흐름은 제1차 세계체제(식민지쟁탈시대)와 제2차 세계체제(산업혁명시대)를 거쳐 제3차 세계체제(팍스아메리카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본다. 제3차 세계체제는 미 · 소간의 패권경쟁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전횡을 하는 시대를 말한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루과이라운드, WTO, 환경라운드 등을 비롯한 '미국식의 표준'을 세계 각국에 들이대는 것이다. 제1차 세계체제가 330년간 지속되었고 제2차 세계체제도 200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역사의 탄력법칙에 따라 제3차 세계체제도 앞으로 200~30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는 반전(反戰)을 해야 하고,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사의 흐름과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국제관계로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대립현상이 마치 목숨을 내걸고 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지역간대립, 세대간 대립에다 이제는 참전, 반전의 대립이 하나 더 보태졌다. 이제 이러한 대립적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필요성과 당면 과제

새 정부 들어 문화재관련 기관의 위상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미 1급에서 차관으로 격상됐고, 현재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급 청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17~22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청 위상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은 학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문제. 그 필요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탁연 스님



◇이춘근



◇황평우

문화재청 위상 강화 더이상 미룰수 없다

▧행정체계 일원화와 함께 진행돼야

조계종단의 문화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국가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종단으로서는 적극 환영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8천여 건의 지정문화재와 몇 십 배나 되는 비지정 문화재 전체를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의 200여명 남짓한 중앙조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부조직이래야 각 지자체의 몇 안 되는 행정공무원이 다 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차관청 승격은 국가 문화재관리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 아래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문화재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이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보완해야 할 조직임에도 제도 자체가 이를 막고 있어 인력 교류의 불가능, 사업의 중복, 지방박물관과 지방문화재연구소의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뿐 아니라 문화재관련 기관의 행정체계 일원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기관이 상위기관이 되어야 한다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다. 효율적 문화재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탁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청 승격에도 조직·인원 축소, 업무 증가

그 동안 문화유산 관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대선공약에 이어 구체적인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이 그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이 현재의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실제 관리조직이나 인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2국 체제, 1급 기관이기 때문에 겪는 타 기관과의 사전 협의 · 조정기능 제약, 전문행정인력 절대 부족 등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5만여 점에 이르는 불교문화재의 보호, 도난 · 도굴 감시 등의 업무는 물론이고 문화재 현장감시시스템 정착, 보호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조사 · 발굴, 문화재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전통문화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전통문화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총괄기관인 문화재청의 위상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장)

▧명칭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할 필요

최근 1급청인 문화재청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전통문화가 경제논리, 개발논리에 밀려 주요 국가정책의 외곽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각 계에서도 대부분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직재 상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차관급에 상응하는 실 · 국의 확대가 뒤따라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오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재화의 좁은 개념인 '문화재'를,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하며 청의 명칭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참여 정부'다. 그 동안 문화유산의 연구와 관리정책은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독점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유산계도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첫번째로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6개 분과)와 신설되는 제도분과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문화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관리를 위해 새로 출범할 '문화유산청'은 전문직이 정책 결정의 중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수정보완본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 시식 · 굿 ·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바인더차트 분개 매월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기존「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해 드립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CD ₩2,000,000
● 효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효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재가불교진단 무차대회 연다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 주제 19일 대불청 부산지구 주최

'사부대중' 틀 깨고 새로운 출·재가 관계 모색
위축된 우바이·우바새들의 자기성찰 자리

한국불교, 특히 재가불교의 현실을 진단하는 재가불자 무차대회가 열린다.

고정화된 사부대중의 틀을 깨고 출가와 재가의 상호 상승적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번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황국근. 이하 대불청 부산지구)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마련한다.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5시 부산불교교육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재가불자 무차대회는 지역의 청년불교운동을 이끌어온 대불청 부산지구가 비구, 비구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우바이, 우바새들의 자기성찰의 자리로 마련한다.

불법에 대해 일체의 차별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무차대회 형식을 빌려 4시간 동안 진행될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 1600년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재가불자들의 무차대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국불교를 위한 고언, 충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는 김용태 신라대 전 총장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재가불자의 역할'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수행, 교육, 조직 분야로 나눈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수행분야에 실상사 학엄학림 각묵스님의 '재가자,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교육분야에 곽만연 동아대 교수의 '재가불자의 자기 거울-교육' 조직분야에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의 '상가조직의 뼈아픈 현실과 방안'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륜스님,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 하만경 부산경남 교수불자회 회장 등의 토론자들이 가세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자, 토론자는 물론 참여 대중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 발표가 가능한 이날 행사는 한국 재가불교 진단을 통한 문제점 자각과 해결책 모색의 자리로 재가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제고, 재가불자의 내적, 질적 향상, 재가 단체 및 구성원간의 사상적 연대 모색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불청 부산지구는 이번 무차대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참석대중을 중심으로 재가불교의 활성화를 위한 단위조직 결성도 계획하고 있다.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외무부회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법담은 물론, 신행, 교육, 조직 등에서 안고 있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가자 입장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값진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51)467-524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불교청년회 회장단 이·취임법회

통도사 불교청년회는 3월 30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비롯 청년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던 이종희 회원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통도사 불교청년회가 수행, 포교에서 모범이 되는 청년회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석사 의상대재에 참가한 불자들이 3월 31일 무량수전 앞에서 법계도를 돌며 정대불사를 하고 있다.

영주 부석사 의상대재 봉행

영주 부석사(주지 근일)는 3월 31일 경내에서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상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의 법문에 이어 의상대사 조사당 앞에서 종사열반제를 지내는 순으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에 이어 스님과 신도, 시민 등 사부대중 500여명은 합장한 채 국내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인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앞마당에 마련된 법계도를 따라 걸으며 법성게를 염송하는 정대불사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정대불사는 부석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엄경판인 고려각판(보물 제735호) 636장을 참가자들이 직접 머리에 이고 봉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흐린 날씨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다. 영주 부석사는 매년 2월 29일을 창건주 의상대사 기일로 정하고 '의상대재'를 봉행해왔다.

박원구 기자

신라때 추정 토기 30여점 양산 개원사 일대서 발견

4~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시대 토기 30여 점이 1일 경남 양산 개원사 일대에서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토기 중 7점은 비교적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으며 나머지 30점은 파손된 채 발견됐다.

경남도 문화재 전문요원 신용민씨는 "발견된 토기는 약 4~5세기경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개원사 일대에서 나온 토기를 통도사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깨달음의 길' 주제 연극 생활불교회, 봉축일 기념

대구에서 스님의 출가수행 및 구도행각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사)대한생활불교회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공연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8~9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이만희 작, 박현순 연출로 김현규, 정광진 등 지역의 중견 연극인들이 출연해 극중 탄성과 도법 두 스님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역경을 연극으로 그려냈다.

박원구 기자

현웅 스님, 대구성당서 참선 특강

종교간 이해와 평화증진 법문



미국 버클리에서 간화선을 지도하는 등 20여 년을 해외포교에 정진해온 현웅스님이 대구 천주교 성당을 방문해 설법했다.(사진)

현웅스님은 3일 대구 천주교 범어동 성당의 오전 미사에 참석해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참선'에 대한 특강과 함께 종교간 이해와 평화증진을 위한 설법을 펼쳤다.

이날 법문에서 현웅스님은 "참선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묵상을 통해 절대자와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참선은 생각을 떠나 존재하는 깊은 내면, 즉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주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웅스님은 저서 '묻지 않는 질문'(민속사)의 출판기념 법회를 2일 경북 칠곡군 망월사(주지 동진)에서 가졌다. 박원구 기자

'禪心' 주제 움직이는 미술 표인숙 씨 '감로심 연구전'

2000년 국제바다미술제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조각가 표인숙 씨가 선심(禪心)을 주제로 한 키네틱아트(움직이는 미술)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3일까지 부산 피카소 화랑에서 열렸던 표씨의 '감로심(甘露心) 연구전'에서는 선시를 맹인용 점자로 새긴 스테인리스 입방체와 자연석 덩어리가 구동장치에 의해 천천히 아래위로 움직이도록 해, 삶에 대한 불교적 성찰이 표현됐다. 천미희 기자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글 통허 스님 등 책으로 출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달랬던 각종 추모글이 책으로 엮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다라니 선념회 통허스님과 대구 문인협회는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발표되거나 알려진 추모 글들을 엮어 책으로 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자에 실릴 글들은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에 의해 쓰여졌거나,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추모글 등 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모음집은 일반인들의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모원고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다라니 선념회 통허스님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충격적인 사고의 아픈 기억을 통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 필요해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경부고속철 경주역사 지붕·내부 불국사 이미지·문양 등 설계 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가 천년고도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외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3월 31일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기본설계안에서 역사 지붕과 내부공간에 불국사와 전통 건축 이미지와 문양 등을 반영과 함께 전통 문화 전시공간을 확보해 신라 천년 고도에 어울리는 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경주 역사 건립과 관련해 불국사와 석굴암의 주요 부분을 재현하고, 왕릉과 포석정 등의 경주지역 유물 등의 이미지를 경부고속철 역사 실내외 건축 및 전시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건설될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는 현재 건축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연면적 32,00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대합실과 편의시설, 역무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2003 팔만대장경 축제' 열려
9~13일까지, 경판 이운경로 재현

'2003 팔만대장경 축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경남 합천군과 해인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9~11일 열리는 '팔만대장경 이운경로 재현'이다. 이 행사에는 연인원 1,500명이 참여해 고령 개포에서부터 해인사까지 대장경판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연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팔만대장경 축제는 이외에도 9일 오후 7시 30분 축제 공연 개막식과 함께 마당극, 사물놀이, 축하공연 등을 시작으로 13일 회향까지 인경체험, 템플스테이, 티베트 만다라 특별전시회, 전통음악회, 지역 특산품 판매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어울림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박원구 기자

해운대 달맞이 언덕축제 현각 스님, 삶의 의미 강연

해운대 포럼이 주최하는 제6회 해운대 달맞이 언덕축제가 3~6일 달맞이 언덕 일원에서 개최됐다.

행사 첫째날인 3일 추리문학관에서 열린 '명사와의 만남'에서 현각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색은 삶을 뿌리째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104 신중탱화' 점안식 선지사 개산 1주년

김해 선지사(주지 원천)는 4일 개산 1주년을 맞아 '104 신중탱화' 점안식을 가졌다.

이날 점안식에서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은 "탱화 속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면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104 신중탱화'는 안으로는 부처께 귀의하여 수행 정진하고 밖으로는 불법 수호의 역할을 원력으로 삼고 있다. 천미희 기자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유물전시관 개관

임진왜란 의승(義僧)활약상 한눈에



◇여수 흥국사는 4일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의승수군을 기리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사진=주용직 광주지사장

임진왜란 당시 활동했던 의승 수군(義僧 水軍)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있는 유물전시관이 여수 흥국사에 건립됐다.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4일 조계종 호법부장 종열스님과 화엄사 주지 명섭스님, 이개호 여수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을 개관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에는 흥국사 괘불(보물 제1331호), 흥국사 대웅전석가모니후불탱(보물 제578호), 흥국사 관음전관음탱(보물 제1332호), 흥국사 응진전 십육나한탱 6점(보물 제1333호) 등 흥국사 소장 보물 11점과 흥국사 보광전아미타후불탱, 대웅전 삼장탱 등 지방문화재가 전시된다.

이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친필인 공북루 현판, 수륙재 제문 등 의승 수군 관련 문서와 상량문 등 임진왜란 당시 의승 수군의 활약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유물이 선보이게 된다.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50여평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16억 4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2000년 5월 착공해 3년여에 걸쳐 완공했다. 지상 1층에는 의승 수군 유물을, 지상 2층과 지하1층에는 불교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흥국사는 1천여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수시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이순신 친필 공북루 현판등 1천점 전시

"불교사와 문화 이해 교육장 활용 기대"

흥국사 주지 명선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의승 수군이 머물렀던 흥국사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유물전시관을 찾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유물을 통해 불교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 문화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보덕학회 설립 10주년 맞아

불교학 연찬, 포교사업 지원에 앞장

행사비용 포교지원 사업에 사용키로

불교학 연찬과 포교사업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를 후원해온 (재)보덕학회(普德學會)가 3월 30일 10주년을 맞았다.

보덕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10주년 기념자료집 발간을 제외한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이사들은 재단의 설립이념에 맞게 기념행사 비용을 모두 불교계 포교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1993년 3월 30일 설립한 보덕학회는 그동안 동국역경원의 팔만대장경 한글화 역경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한국불교연구원의 고 이기영 박사의 평생 역작인 원효사상연구서 발간을 지원했다. 또 실상사 화엄학림의 연구비, 서울의 전통사찰 발간, 수화서적 발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성의 권익 옹호 사업, 육군사관학교 수련관, 승가대학 비구니 교육관, 소쩍새 마을 시설비, 불교단체의 청소년 수련대회 지원 및 보조사업을 펼쳐왔다.

재단법인 보덕학회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우리나라 대표적 중소기업인 유성기업 유홍우 회장이 1993년 회사창립 50년을 맞아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교지원 재단인 '보덕학회' 를 설립했다.

김원우기자

용주사 지역문화 구심체로

'효행 본찰' 용주사(주지 정락)가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거듭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효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화성시와 함께 가칭 '제1회 용주사 효문화 축제' 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용주사 효문화 축제' 는 승무와 영산재 등의 불교문화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행사인 '승무제' 와 경로잔치인 '백수제', 불교음악 위주의 '산사음악회'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승무제' 는 용주사에서 수개월간 머물며 공부했던 고(故)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 에서 따온 이름이다.

효문화 축제를 준비한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효' 사상과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림으로써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대구지하철 희생자 49재 봉행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두백)는 7일 대웅전에서 대구지하철 희생자 유가족들과 40개 사찰 주지스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를 봉행했다.

백양사 주지 두백스님은 이날 49재에서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잠겨있고, 전 국민들이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평화기원 한민족도보대행진 출정식

여의도~선유도 공원까지 가족걷기대회로 진행



원공스님이 주도하는 한민족 도보 대행진 Peace Korea 출정식이 가족과 함께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선유도공원까지 약 4km를 걷는 행사(사진)로 진행됐다.

3월 30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전 구간 행진단원 20여명과 일반시민 약 3,000여명이 참가했다.

대한적십자사 환경정의시민연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한민족도보대행진은 선승 원공스님과 불자장성 전인구 예비역 준장이 남북이산가족상봉기원,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모금(02-3705-3657~9), 해안환경보호를 위해 7월 7일까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금강산, 휴전선 구간 등 100일간 총 3,000km를 도보로 행진하는 행사이다. 행진단은 4일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를 지나고 있다. 도보대행진 행사일정 및 구간별 현황은 홈페이지 (peacekorea2003.com)를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365일 염불삼매, 자비행 밑거름

대구 금강삼매원 금강회 다섯 보살

"이른 아침 반듯이 좌정하고 앉아서 금강삼매경 독경을 하면 마음이 맑아져 하루가 편안합니다"

대구시 달성동 금강삼매원 금강회 총무 이수경 보살(42)은 이른 새벽, 가족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 방 한 켠에 모신 다라니 앞에서 금강삼매경을 독송한 후 하루를 시작한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 보낸 이보살은 잠시 쉴 틈도 없이 금강삼매원 법당을 찾아 경전을 독경하며 염불삼매에 빠진다.

칠곡군의 집에서부터 대구시내 법당까지 1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지만 여간해서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매일같이 금강삼매원 법당에 출근하는 신도는 모두 다섯 명의 금강회 회원들. 이들은 금강삼매원 신도회의 주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일찍부터 금강삼매원 법당에서 매일같이 독경하는 금강회 다섯 보살들은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법당에서 여러 도반들과 같이 일심으로 금강삼매경을 독경하면 환희심이 절로 난다"고 말한다.

법당에서 금강삼매경을 독송한 금강회 회원들은 절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등 절일을 집안일처럼 돌보면서 소소한 데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

더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다른 신도들의 법회준비도 금강회 보살들 몫이다. 법당 청소, 공양준비는 물론 불자들이 법회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법당에 모여 기도할 정도로 다른 신도들 뒷바라지를 수행의 연장으로 여긴다.

금강회 보살들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강회 회원들은 한 달에 2~3차례 떡, 과일 등 음식을 싸들고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있다. 또 선서화가이기도 한 주지 성호스님이 법당에서 무료 사군자 문화강좌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 노인들을 위한 무료 49재를 봉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10여 년 전 금강삼매원 신도가 되었다는 금강회 총무 이수경보살은 "주지스님께서 발원한 부처님 법의 사회적 실천인 사회복지 불사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법당 청소, 공양준비, 자비행은 수행 연장

사회복지 불사 서원 이뤄지도록 힘 보태고 싶어



◇이수경보살(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금강회 다섯보살은 매일 금강삼매원에서 염불삼매에 빠진다.



추천의 말

성호스님 금강삼매원 주지

총무 이수경보살을 비롯한 금강회 다섯 보살들은 우리 금강삼매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배같은 존재들입니다. 금강회 보살들은 항상 다른 신도들 보다 앞서서 절 살림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절에 처음 오는 신도가 있으면 바로 달려가 절하는 법에서부터 참선, 금강삼매경을 독경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정성입니다. 보살들의 한결같은 정진과 자비행은 금강삼매원 성장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정진·보시 등 초심 잃지않는 신행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배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4월 2째주, 4째주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파동명상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영적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 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향나무 묻으며 '좋은세상' 염원





당진 안국사지

전쟁은 지옥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쟁은 지옥의 풍경을 연출한다. 오랫동안 지옥 세상에 본적을 두고 살아 아수라(阿修羅)의 습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 수시로 이 세상에 출몰하며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언어가 없으며, 오직 '충격과 공포'의 무기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편가르기와 패싸움에만 능숙할 뿐이며, 총구와 포신의 방향만이 역사를 개척하는 이정표인 것이다. 인간 세상 어딘들 전쟁의 그을음이 없으랴만 또 다시 사막의 모래알들이 피로 물을 들이니 거기에 대물림하는 증오와 분노의 씨앗들이 안타까운 것이다.


◇작고 소담하지만 눈여겨 볼수록 향내가 나는 안국사터에는 미륵삼존불 입상(보물 제100호)과 오층석탑(보물 제101호)이 있다.

당진 땅 안국사 터는 그저 편안한 곳이다. 작아서 좋고, 절이 아닌 절터라서 좋다. 안국사터에 가면 이미 전쟁의 그을음은 지워지고, 할미꽃 꽃다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안국사 터에 가면 '탕약(湯藥)' 냄새가 난다. 향화(香火)가 끊긴 대신 탕약으로 나라와 민생들의 통증을 달래주는 것이다. 오천년이면 이 나라의 역사도 늙었다. 나무로 치면 노송쯤 되며, 바위로 치면 첩첩이끼를 거적 삼아 두른 너럭바위쯤 될 것이다. 보약을 먹을 때도 된 것이다. 전쟁도 겪을 만큼 겪었기에 용포를 두른 사람이라면 구국도생(救國度生)의 요령도 알 것이고, 겁탈과 굴종의 수모도 당할 만큼 당했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라면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베개를 높이는 법쯤은 알 것이다.

안국사 터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있다. 조상들의 타임 캡슐인 '침향(沈香)'을 묻었다는 매향에 관한 기록이 빛바랜 세월 속에서도 진한 관솔 향내를 품기고 있는 것이다. 안국사 터 매향비는 거대한 몸집의 범선(帆船)처럼 생긴 '배바위'이다. 어떻게 세월의 풍랑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는지, 조그만 절 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몸집이다. 이 배바위에는 뱃머리와 꼬리 부분에 음각의 글씨들이 줄을 맞추고 있다. "경오년(庚午年) 2월에 북쪽 '천구'라고 하는 포구 동쪽에 향을 묻었으며 화주승과 주민들의 힘으로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경오년의 가장 최근은 1990년이므로 그로부터 60년 전씩 몇 번의 갑자를 거스른 어느 해 경오년에 이 비를 세웠을 것이다.

매향비는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 극락을 이루어 주길 기원하면서 향을 묻고 빌었다는 미륵신앙의 산물이다. '미륵하생 신앙'은 곧 변혁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에 매향비를 세우는 일은 비밀결사처럼 은밀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다. 매향비는 이 곳 안국사지 뿐 아니라 당진에서 조금 떨어진 해미에서도 발견되었고, 고창 선운사, 영광의 법성포와 영암 엄길리, 해남 맹진, 장흥 삼십포, 신안 암태도, 금강산 삼일포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향은 신에게 바치는 으뜸의 공물이다. 향의 종교이기도 한 불교에서 '침향'의 존재는 '향 문화'상징하는 꽃인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개펄에 참나무 또는 향나무를 묻어두면 천년의 세월을 거쳐 단단하게 응고된다. 침향이 된 향나무는 강철처럼 단단해서 두드리면 쇳소리가 난다고 한다. 구효서는 <나무남자의 아내>에서 침향에 관해 미당의 안목을 빌렸다. 미당(서정주)은 침향을 가리켜 '물속에서 몇 백년을 묵었다가 떠 오른 참나무를 말린 것'이라 하였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동쪽 노령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육수(陸水)와 산협 사이를 10여리 거슬러 올라오는 황해 조류가 서로 만나 합수가 되는 장수강(長水江)이란 곳에 묻혀있던 것'이라고 한다. 미당은 그 냄새를 일컬어 '실파와 생강과 미나리와 새빨간 동백꽃, 거기에 바다 복지느러미의 냄새를 합친 듯한 미묘한 향내'라고 하였다.

한국불교의 침향처럼 여겨지는 안국사터는 작고 소담하지만 눈여겨볼수록 향내나는 것들이 많다. 절 터 중턱에 위치한 삼존불 입상은 보물 제 100호로 월악산 미륵대원지의 미륵대불 입상을 닮았다. 방형의 보관을 쓴 본존불은 아미타불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하였는데, 손가락은 굵고 입은 작으며 코는 마멸되었으나 예의 '충청인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은 조각 수법은 본존불을 닮았으나, 오른쪽 보살은 무릎 아래가 땅 속에 묻혔고, 왼쪽 보살은 얼굴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 상태이나 오종종한 모습들이 조금도 불편한 기색이 없다.

보물 제101호인 안국사지 오층석탑은 돌로 쌓은 2단의 축대 중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다. 석탑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몸돌이 틀어지고 하대석이 주저앉은 듯하나 소박한 솜씨를 그대로 간직한 아담한 몸매는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석탑 옆으로는 절 터를 돌보는 듯한 암자 같은 민가가 한 채 있는데, 절 터에 진동하는 탕약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이 곳이다. 안국사 터에는 탕약재 뿐 아니라 1백여 개에 달하는 항아리들이 절 터를 꽉 채우고 있다. 항아리들은 이 절에 머물던 대중들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어떤 것은 포대화상으로, 어떤 것은 동자승 모습으로 불쑥 내민 복장(腹藏)마다 된장 고추장을 담고 민중들의 양식이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이후에도 보약을 먹여 정신 차리게 하고, 된장을 달여 살찌우고 싶은 것이 안국사지의 바람인 셈이다.

살펴보면 안국사지 주변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유원지로 다듬어지고 있는 듯하다. 절 터 뒷 기슭에 수없이 잘려나간 소나무 그루터기와, 근래에 새로 지은 듯한 대나무 울타리의 '토굴' 한 채가 그렇게 보인다. 출입금지 팻말을 걸고, 사립문을 닫은 토굴 안에는 어느 눈 푸른 납자가 면벽을 하고 있는지 인기척을 하여도 반응이 없다. 안국사 터에는 엄나무가 눈에 띈다. 엄나무는 한약재로 쓰일 뿐 더러 무속에서는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도구로도 쓰인다. 이 땅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기에 온갖 귀신, 도깨비들을 물리치기 위해 온 몸에 가시가 돋친 엄나무들이 자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소풍지로 적당한 안국사 터가 술 냄새, 화장품 냄새로 뒤범벅된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제나 찾아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라의 고마움과 불가의 넉넉함을 깨닫는 절 터, 안국사지는 안국사지로 남는 것이 옳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부여 정림사지 편

사진=고영배 기자

미륵신앙 간직 매향비…거대한 '배바위'

코 마멸 삼존불 입상 얼굴에 '충청인 미소' 잔잔히

주변 나무 벌목, 계획적 유원지화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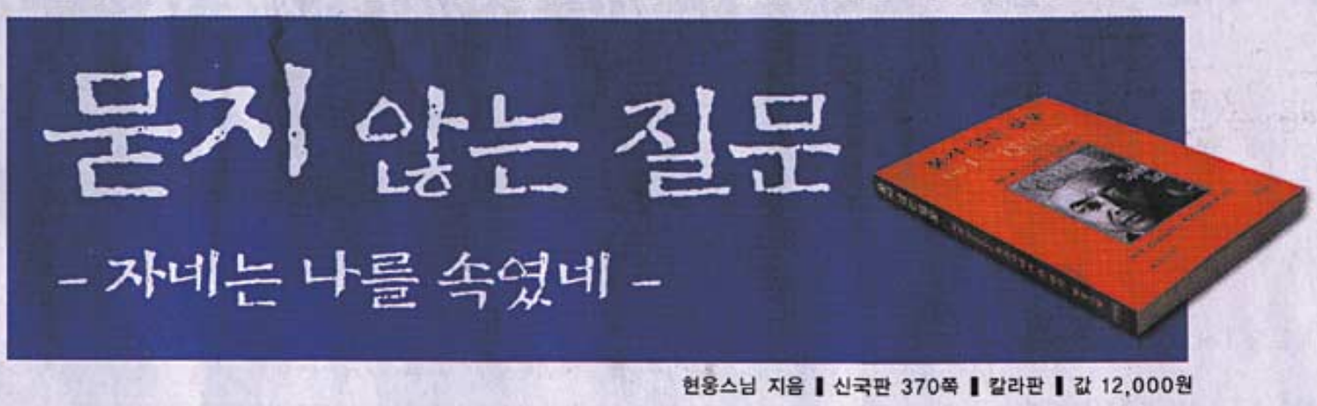

◇조그만 절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몸집의 배바위. 이 바위에는 매향에 관한 기록이 빛바랜 세월속에서도 진한 향내음을 풍기고 있다.

안국사터 가는길

안국사 터는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에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서산 · 당진IC에서 내려 당진에서 32번 국도로 서산방향 7.9㎞를 가면 안국사 표지판이 나온다. 안국사 터는 수당리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저수지를 끼고 골짜기 안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산밑에 자리 잡고 있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미국 버클리에서 20년간 한국불교 포교에 힘쓴 현웅스님의 법문집!



현웅스님 지음 | 신국판 370쪽 | 칼라판 | 값 12,000원

깨달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 명상을 해야한다.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 과정이다. 깨달음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좋으니까 하고, 저것은 나쁘니까 안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혼란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번뇌와 망상을 없애려고 할때
현실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 320쪽 | 값 7,5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여성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

"맹렬여성이라고요? 속 꽉 찬 불자예요"

NGO 여성불자 활동가

정선애 위정희 윤주옥

참여정부의 첫 내각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여성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민 ·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활동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시민단체에서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시민운동단체를 이끌어 가는 30대 여성불자 세 명을 만났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펴고자 하는 그들의 에너지가 '개인' 차원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화' 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문제점 파악 위해 항상 현장에 불자들 시민단체 더 많은 참여를 여성들 끊임없이 자기계발 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불자로, NGO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늘 '소수'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능력은 기본, 사명감은 필수다. 왼쪽부터 정선애, 위정희, 윤주옥 씨.

▶나는 NGO 활동가

위정희(3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199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에서 활동했다가 다시 경실련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개별기구에 대한 자문 역할과 민주시민교육포럼 등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선애 씨

정선애(38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저 역시 1996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다가 99년 몇몇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대안마련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죠. 처음으로 인터넷을 시민참여의 장으로 만들고 네티즌들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윤주옥(39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대학생 때 노동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몇 년 일하다가 94년 딸아이를 가진 후부터 환경운동에 눈을 떴죠. 지금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지금 있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로서의 나는?

정선애= NGO 활동가라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시민들의 참여가 쉬워졌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위정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를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 경불련에서 활동할 때 IMF 직후 서울역에 노숙자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갈 곳 없는 이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공원에 노숙자 지원센터를 세웠어요. 대학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을 간 것도 '복지'라는 것이 실제 내 이웃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위정희 씨

윤주옥= 저는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국립공원 보존운동에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의견도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입장도 제대로 전달해야 하니까요.

▶불자로서의 정체성

위정희= 불교는 내 사상과 가치관의 기반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틈틈이 초기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육성을 느끼려고 하죠. 아무래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설립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고 활동가들도 불자가 수적으로 '엄청난 소수'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요. 일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불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선애= 고등학교, 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를 보게 됐어요. 학창시절 '민중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자연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윤주옥=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불교와 생태운동, 환경운동의 접합점을 찾아내고 싶은거죠.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을 무척 편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저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스님'이라서 그런가요?(웃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윤주옥 씨

▶여자로서 산다는 것

위정희=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키운다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맞벌이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죠. 또 현재 시민단체의 리더 입장에 서있는 여성이 많지 않잖아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정선애= 활동가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남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여성으로서 그 문화에 적응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바꿔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윤주옥= 여자라서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출장 갈 때면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결국 저 스스로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NGO의 역할

윤주옥=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부상한 이후 NGO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흔히들 요즘을 'NGO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과 2~30년 전보다 훨씬 더 분화되고 전문화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위정희= 맞아요. NGO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고 더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활동가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정선애= 단체들이 다루는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추구해야하는 공동의 가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녹아들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죠.

▶일은 내 삶의 의미

정선애= 제 좌우명이 '사명감에 살고 사명감에 죽는다'예요.(웃음)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순간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요.

윤주옥= 환경운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죠.

위정희= 나의 열정과 이상이 조직의 이상과 맞아 떨어질 때, 일하는 '맛'이 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겠죠?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계최고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릴레이 수행일기



김대중

(주)H&S(휴먼과 과학)회장

농부가 일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하듯이 우리들도 여러 겁의 생사고해에서 시달리다가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늘 환희롭고 감사하다.

20년 전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병>(키레르코르), <죽음이란 무엇인가>(이원섭 번역), <열반경의 세계> 등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고 삶의 고뇌를 알게 되면서 불법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후, 조계사를 재적사찰로 다니면서 인천 용화사 송담 큰스님을 친견하기 전까지는 불교도 단순한 종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큰스님으로부터 '이뭣고' 화두를 받은 후부터는 닥치는 대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다.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한 평생을 희로애락의 많은 고비 고비를 겪으면서 마침내 일생을 하직하고 어느 곳으로 또 가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없고,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참선법'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확신이 들어 이때부터 늘 '이뭣고' 화두를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선을 배운 뒤, 부처님의 본뜻을 제대로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 동산불교대학에 1기로 입학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몰두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를 6년간 다니면서 관음정근 1일 1만독을 하는 등 수행정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포교사단을 출범시키는 일선에 서게 되었다. '이뭣고' 화두만을 고집하지 않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는 동체 대비의 자비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포교사단 1기 부단장, 2기 단장을 맡으면서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표어 아래 정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끝내지 않고, 포교사도반들과 함께 실천하며 정토를 일구어 가는 일에 미력하나마 더욱 매진하고 싶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남들로 존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해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하는 대승적 종교행위(수행)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참선 배운후 포교사단 출범에 앞장 서
수행·포교 '불이'라는 마음으로 정진

남은 생애 내게 마지막 원력을 담은 테마가 있다. 그것은 포교를 통하여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불자들의 수행력으로 정법을 전하는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의 주변 모든 것에는 법향이 그윽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H&S(휴먼과 과학)의 사훈은 '무상'(無常 : 계속 변화해야 한다), '유일'(唯一 : 기술은 최고이어야 한다), '불이'(不二 : 노사는 하나이다)이다. 직원이나 관계자들도 사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오늘도 이 땅을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로 불국토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용맹정진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한다.

탁낫한 스님의 정념 수행

"지금 이순간을 느끼세요"

'호흡명상' 통해 몸·마음 하나로
자신에게 "고요히, 깊이"등의 메시지

"들이쉬며 내쉬며 막 피어나는 꽃처럼, 신선한 아침 이슬처럼,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아주 견고한 대지처럼, 나는 자유네~."

3월 2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틱낫한(77) 스님과 함께 하는 3일간의 수행'은 여독을 푸는 '온전한 휴식(Deep Relaxation)'이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됐다.

3백여 수련생들은 여장을 푼 후 체육관에 모여 바닥에 드러누웠다. 지친 몸을 눕히고 쉬노라니 한 비구니 스님이 나와 '숨을 들이쉬며(Breathing in)' 등 몇 곡의 찬불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수련생들은 자장가 같은 노랫소리에 몸을 맡기고 몸의 곳곳을 의식하면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명상을 40여분간 진행했다.

불자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 일반인, 스님과 수녀 등 참석자들은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에서처럼 정념(正念, Mindfulness) 수행을 체험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종(鐘) 명상 등 기본적인 명상법을 배웠다.

한 비구니 스님이 "깨어 있는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호흡과 걸음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만약 말을 꼭 해야 한다면 걷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스님은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풀들이 만드는 생명의 축제 속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법회 도중에 2~3차례씩 울리는 종 소리에 맞춰 하는 '종 명상'도 독특한 수행법이었다. 종이 울리면 수련생들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호흡에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도착한다.

저녁 공양 후 처음 수련생들과 만난 틱낫한 스님은 '정념(正念)' 수행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칠판에 한자를 써가며 설명한다. "정념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한자어인 '염(念)'이 지금(今)과 마음(心)이라는 두 글자로 이뤄진 데서 알 수 있듯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틱낫한 스님은 "마음을 현재에 온전히 두는 수행으로 평화로움과 기쁨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실현하라"고 당부한다.

이튿날 정념 수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걷기 명상(사진 아래)은 틱낫한 스님과 스님들을 필두로 수련생들이 넓은 수련장을 매우 느린 속도로 걷는 형태로 진행됐다. 걷기 명상은 보통 들숨 하나에 두 걸음, 날숨 하나에 두 걸음으로 걷는다. 걸을 때마다 자신에게 "고요히 고요히, 깊이 깊이" 등의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걷기 명상과 먹기 명상을 마친 후 조상과 고향, 영적 가족 등 3가지 뿌리를 느껴 보는 '땅과 깊이 만나기' 등의 수행도 했다. 절하는 형태로 두 손을 마주 모아 연꽃 봉우리를 만들고 서서히 몸을 낮춰 땅에 사지와 이마가 편안히 닿도록 한다. 지구의 힘을 온몸 가득 받아들이는 지구와 접하기는 3~5번씩 한다.

이어 진행된 것은 '불살생(不殺生)'을 비롯한 전통 불교의 5계를 서구인의 현대생활에 맞게 응용한 '다섯 가지 마음 챙김 수행'. 이 프로그램은 미국인 목사 2명과 독일인 부부 법사 등 틱낫한 스님을 따르는 재가 신자 6명이 토론형태로 진행했다. 미 조지아주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는 알 링고씨는 세 번째 마음 챙김인 '성(性)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면서 "결혼도 이혼도 해보았는데 성적 욕망의 충족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며 "이 마음 챙김 수행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별 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수행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간편한 수행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 지장선원장 지공스님은 "참나를 자각하는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대중포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선, 위빠사나, 단전호흡 등 이미 다른 수행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중급이상의 수행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차상훈(69) 경기대 교수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전문 수행자들에게는 초보적인 수식관에 머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순서였던 5계 수계식(오른쪽 사진)은 시 낭송회 같던 수련회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줄곧 영어로 말하던 틱낫한 스님이 수계식 때는 베트남어로 반야심경을 외웠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을 모국어로 독경하시는 스님의 목소리가 대중의 가슴을 울렸다.

천안=김재경 기자





정념 수행은 선인가? 위빠사나인가?

매순간 대상·일에 몰입 평상심 실현
임제선과 위빠사나 절충한 생활선

틱낫한 스님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수행을 '정념(正念, mindfulness)'이라고 말한다. 이 '정념'은 원래 '잡념을 버리고 늘 향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팔정도(八正道) 가운데 하나이다. <중아함 염처경>에서 설한 몸, 느낌, 마음, 법(法)을 관하는 사념처관(四念處觀) 즉 위빠사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틱낫한 스님이 정의하는 정념은 이와 달리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상태를 강조한다. 틱낫한 스님의 제자들은 위빠사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일과 대상과 철저히 하나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정념 수행은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平常心)'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임제종의 생활선에도 닿아있다. 틱낫한 스님이 임제종의 42세 법손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임제 선사는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이 없다(卽時現今更無時節)"고 일갈한 바 있다.

임제선은 바로 목전에서 법을 듣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인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무위진인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작용(卽今目前現用)'을 의미한다. 임제 선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을 깨달아야 경계의 장애로부터 해탈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매 순간 어디에서도 주인노릇하며 진실과 마주하는(隨處作主 立處皆眞)' 것이다.

틱낫한 선사는 위빠사나의 관법을 수용해 이러한 임제선을 더욱 구체적, 현실적으로 응용한 생활선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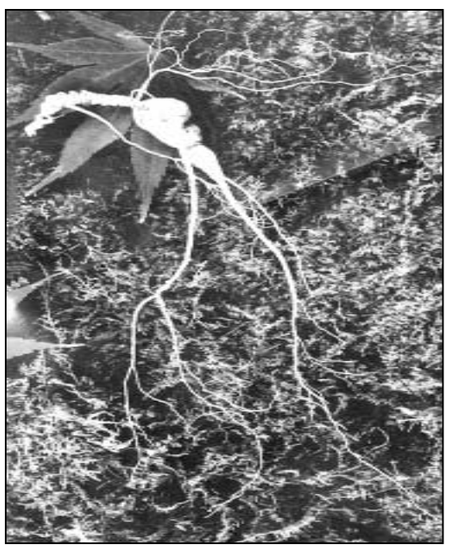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 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 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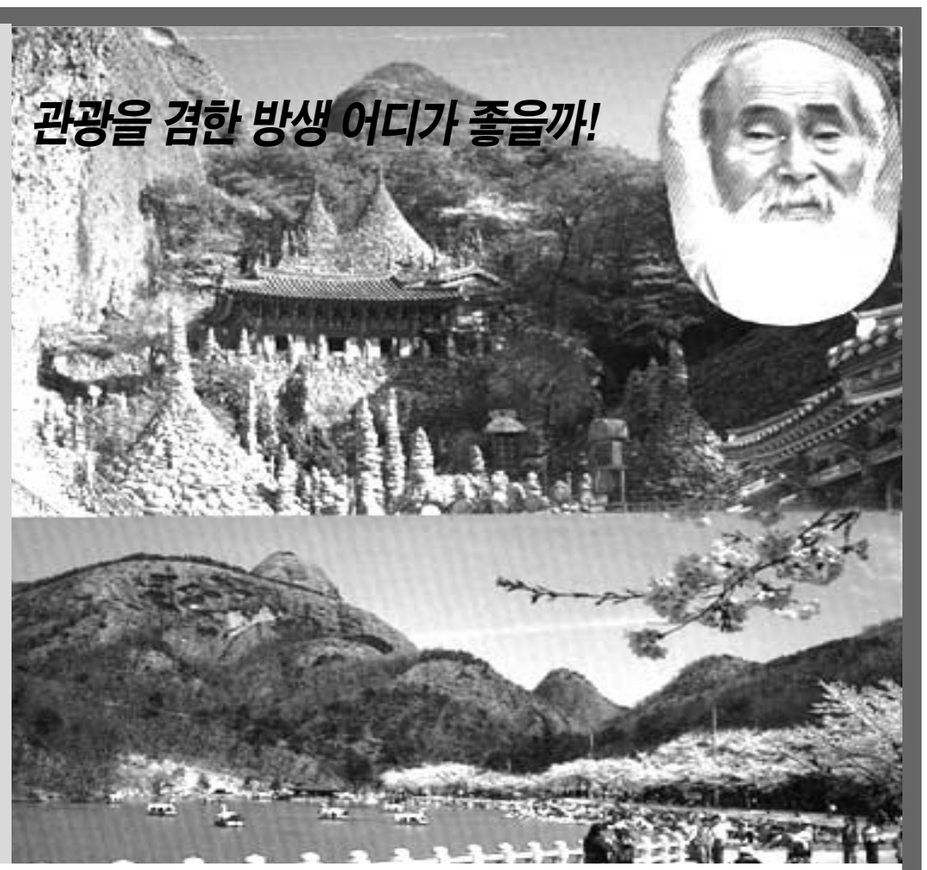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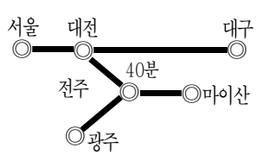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법회에서 참회하면 밝아진 자신을 만나죠”

바라밀현장

신행회의 소년원 봉사

“모든 생명 죽인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도둑질한 중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합니다. 사음질로 범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꾸민 말로 과장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신행회 서울지부(회장 이정렬) 주최로 3월 30일 오후 국내 유일의 여성 청소년 수용시설인 안양 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법당에서 열린 정기 일요법회. 이날 법회에는 50여 소년원생이 참석해 잔잔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선정 · 보시 · 인욕반 등의 명찰을 가슴에 단 소년원생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듯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22년 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년원생들과의 인연이다. 신행회원들은 두 가지를 늘 발원하고 있다. 첫번째는 소년원생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심어주자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이날 법회 주제도 소년원생들에게 꼭 필요한 ‘친구 사귀기’이다. 원래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소년원생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따스한 인간적인 유대를 맺고자 노력한다. 회원들은 법회가 끝난 후 공양을 하며 한 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나누기 위해 분주하다.

“진미(가명)야, 너는 언제 나가더라?” “다음 달에 나가요.” “어느새 벌써 일년 반이 지났구나. 그 동안 잘 참았다. 나가더라도 꼭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생님, 그 동안 너무 감사해요. 꼭 편지 보낼게요.” “그래 꼭 연락해라.”

신행회원들은 소년원생들과 법회를 통해 맺은 인연을 사회에 나와서도 유지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엿한 직장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소년원생들은 신행회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먼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도울 일이 없나 찾기도 한다. 신행회 회원인 최 대원심 보살(50)도 17년 전 법회를 통해 알게 된 한 소년원생과 인연을 맺고 있다. 소년원에서 나온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대원심 보살의 어머니 병 수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신행회원들은 보시행이 나와 남을 동시에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고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다.

봉사와 수행의 공동체 신행회가 발족한 것은 지난 81년. 참선뿐만 아니라 봉사도 수행의 중요한 방편임을 강조한 영명 스님(전남 순천 신행선원장)을 만나면서부터다. 영명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은 불자들이 하나 둘씩 스님 곁으로 모여 들었고, 그들은 보현보살을 닮겠다는 서원을 세운 후 신행회를 결성했다. 서울 법련사 청년회원이 중심이 된 불자들은 별도로 서울 지부를 만들어 22년 동안 매주 두 팀으로 나눠 안양소년원, 광명보육원 등을 찾아가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신행회 회원과 소년원생들이 초파일 연등을 만들기 위해 종이 연잎을 비벼 만들고 있다.

소년원생들 교화 위해 22년째 헌신

보시행, 나·남 변화시킨다는 믿음에 정진



신행회 서울지부 **이정렬** 회장

“돈보다 마음 앞세운 봉사를”

“신행회가 22년 동안 계속해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은 돈보다 마음을 앞세우는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행회 서울지부를 맡고 있는 이정렬 회장(45)은 20년 동안 쌓은 수행의 힘이 꾸준한 자원봉사를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면벽 수행, 화두 참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등의 공부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행회 회원들은 매년 여름 순천의 신행선원에서 3박 4일로 열리는 ‘참선 및 독송 수련회’에 참석,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는 기회도 갖고 있다.

“회원들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수행을 병행한다”고 자랑하는 이 회장은 그 자신도 20년 넘게 봉사를 하면서 참선수행을 하루도 거를 때가 없다.

신행회 서울지부는 올 초파일을 맞아 독경대회, 찬불가 대회, 니르바나 연주단 공연 등 소년원생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心 마음비추기

마구니가 선지식 되는 인연

어떤 사람이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곡절이 필요한 법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부처님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여기에도 빼 놓을래야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연이 작용했다. 그 인연의 주인공은 군대 시절 함께 지냈던 목사 후보생이다. 한 내무반 옆자리에서 생활을 했던 그 목사 후보생은 독선적 시각으로 불교를 무시하고 공격했다.

따라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늘 갈등과 반목이 심했었다.

당시에 나의 불교에 대한 신심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할머님이 스님이셨던 탓으로 독실한 불자라고는 했지만 불교라는 글자의 뜻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맹신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와 언쟁을 할 때면 늘 수세에 몰린 채 무시를 당해야 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른다. 어느 때 나는 외출을 나온 김에 서점에서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나도 불교를 공부해서 그의 공격에 맞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틈틈이 불교를 공부했고 그로 인해 불교에 대해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장애도가 곧 성취도라 했던가, 그로 인해 나중에는 부대 내에 법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자그마한 법당까지 세우게 되면서 제대 말년에는 군종병으로 활동하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다.

제대를 하고 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군생활 중에 만났던 그 목사 후보생이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을 그에 대해 항상 궁금한 마음과 함께 일종의 그리움까지 생겨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지하철을 타기위해 종로 3가역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게 누구인가? 바로 그 목사 후보생이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그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가워하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찻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은 세월과 함께 변한 것이다. 그에게서 과거의 독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과거의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요즈음 그는 내가 있는 선원에 와서 며칠씩 쉬었다 갈 만큼 부처님과 가까워졌다. 이를 두고 보더라도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사람의 만남을 평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수행이란 보살의 가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마군의 방해로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일 법사 (下)

“가르침 삶 속에서 실천” 강조

성일 법사의 스승 구산 선사(송광사 조계총림 초대방장)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든 만났고, 한결같이 ‘이뭣고’ 화두로써 법문의 화제로 삼았다. 모든 이가 불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대신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많은 붓글씨로써 대중에게 불연을 맺게 했다.

이러한 구산 선사의 중생교화 원력은 불교의 육(六)바라밀에서 따온 ‘칠바라밀의 생활불교’에서 엿볼 수 있었다. 송광사의 달력에는 ‘월요일은 베푸는 날, 화요일은 올바른 날, 수요일은 참는 날, 목요일은 힘쓰는 날, 금요일은 안정의 날, 토요일은 슬기의 날, 일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성일 법사는 오랫동안 지녀온 습기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스승이 설한 두 가지 일화를 그의 저서 <선의 원리>에서 자주 인용했다.

“첫째는 개구리의 등에 업혀가는 전갈이 강 한복판에서 개구리를 물어 개구리와 전갈이 다 죽게 되는 경우이다. 전갈은 개구리에게 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반복했던 습성을 참을 길 없어 개구리를 물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는 코코넛 구멍 속에 들어있는 먹을 것을 움켜쥔 원숭이 이야기다. 먹이를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손이 빠져나올텐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잡히고 만다.”

성일 법사는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계율, 선정, 지혜 등 삼학(三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구니 위상이 높은 한국에서 수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삶속에서 참선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녀가 참선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심리치료를 병행해 불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마음을 주로 다루는 분야가 심리학과 심리치료이다. 따라서 참선과 공통점이 많은 방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심리치료가 종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 되기 쉬운 반면, 참선은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성일 법사의 판단이다.

성일 법사가 남편 스티븐 배첼러와 몇몇 재가 법사들과 함께 운영중인 영국의 가이아 하우스 명상원에서는 단체 또는 홀로 수행이 모두 가능하다. ‘은자의 집’에서는 원하는 기간만큼 홀로 명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샤르팸 하우스 내에 1년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만들고 기숙사도 갖추어 놓았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샤르팸의 교육과정에는 심리치료, 서양종교, 서양철학, 요가도 포함되어 있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명상 외에도 정원에서 일하거나 사회봉사를 경험하는 과정도 마련해 놓았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쁠 때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과 자비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성일 법사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다.

김재경 기자

명상, 사회봉사 경험 생활에 적용

“비구니 위상 높은 한국서 수행 감사”



◇성일 법사가 지도법사로 재가자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 가이아하우스 명상원.

이 시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재가불자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창립 37주년

재가불자 무차대회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



발제자
- 김용태(신라대 前총장)- 기조발제
-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 수 행
- 곽만연(동아대 교수) - 교 육
- 최 연(중앙신도회 사무 총장) - 조 직

2003.4.19 (토) 오후 5시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 (부산불교회관4층)

부산불교회관 오시는 길



• 문 의 : 051) 467-5241 사무국 • 주 최 :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 후 원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조계종 중앙 신도회,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텔레비젼,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염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로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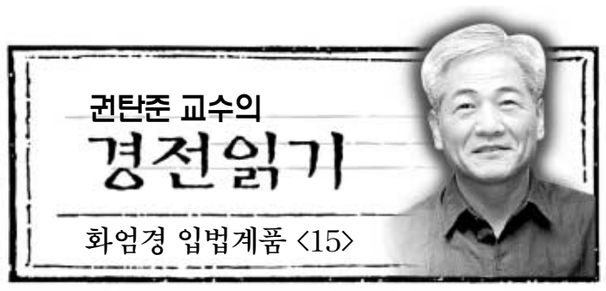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 (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 입니다.

생식완료 현미, 메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컴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참회와 발원의 의의

진실한 삶 구하는 마음 바탕으로

참생명 확립, 진실한 삶 살기위해 귀의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토로하는 참회와 발원의 게송을 통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선재동자가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계기는 문수보살로부터 모든 부처님에 관한 법과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들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그 법문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던 것이다.

선재동자는 진실한 삶을 구해서 문수보살을 찾아온 사람이다. 그로부터 듣게 되는 '부처님에 관한 법'과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이 선재동자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서 한없이 밝은 지혜광명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므로 무지에서 비롯된 인생의 미혹으로부터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진실로 부처님께서는 어둠속을 헤매는 인간을 광명의 세계로 해방해서 자각과 확신에 찬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교의 근본적인 의의는 인간존재의 미망(迷妄)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실한 삶에 뜻을 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자 종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진실한 삶을 구하던 선재동자는 부처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근거와 의지처를 발견하게 된다. 무량한 세월동안 어둠속을 헤매던 선재동자는 부처님 법을 만나 비로소 광명된 세계를 열게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두운 삶과 대비되는 부처님의 밝고 거룩한 삶에 대해 접하고 나서 진실한 삶에 눈뜨게 된다. 그야말로 어둠이 빛을 만난 것이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진실의 빛을 만나서 비로소 진실을 알고 동시에 스스로의 어두움에 대해 알게된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설하는 게송의 첫머리 부분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깊이 뉘우치면서 참회하는 설해져 있는 것이다. "불도(佛道)는 참회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같이, 진실한 삶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란 어둡고 어리석었던 삶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참회하면서 토로하는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은 그대로가 우리들 모든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실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재동자의 참회를 접하고 나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어두움에 대해 알고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면 진실의 빛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회는 반드시 새로운 진실한 삶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참회하면서 발원하는 내용은 자신의 어두움을 없애고 광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빛이 진실한 가르침이라면 빛이 오는 곳은 부처님이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들은 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이었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발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을 자기 스스로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궁극적인 종교적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구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체득되지 않고서는 인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욕망으로써 살아가고, 보살은 원(願)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理想)에 도달하려고 발원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대승의 구도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 분이 갖추고 계신 거룩한 덕을 스스로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상을 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노력이 그 사람의 삶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맑고 밝고 자비롭게 하며 그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향상되며,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스스로 갖추고 불국토를 장엄하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참회와 발원을 통해서 새로운 광명의 삶을 열게 되는 것은 그가 진실한 삶을 구하는 맑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맑고 진실함으로써 진실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진실과 거짓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리석음의 허물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기심으로써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생명을 확립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맑고 진실한 마음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실이야말로 인간생존의 진정한 귀의처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⑩

혜원의 돈교비판(1)

돈교는 자신의 교설을 부정하는 꼴

<간화결의론>이나 <원돈성불론>에서 나타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선사상을 돈교로 이해할 수 있는가'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해보면, 보조는 결코 선을 돈교와 동일시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교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장의 돈교(頓敎)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그의 <탐현기(探玄記)>나 <오교장(五敎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장은 돈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돈교란 언설이 곧장 끊어짐이요, 이치와 성품이 곧장 드러남이며, 이해와 실천이 점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곧장 이루어짐이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장은 언어와 대상, 이해와 실천이란 네 가지의 측면에서 돈교는 점차적인 성취가 아니라, 곧장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장의 제자인 혜원(慧苑)은 돈교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화엄경을 해설한 <간정기(刊定記)>에서 표명한다. 먼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돈교를 '말 떠남'으로 정의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언어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대상을 드러내는 교설이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교설은 절대적으로 언설에 의존해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언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설이 아닌 관계로 교설을 분류하는 범주로서 오교(五敎)와 같은 교판에 돈교는 포함될 수 없다. 교판은 언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어떤 언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결과가 되어서 오류에 빠진다.

그러므로 법장이 정의한 돈교가 자기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교'라는 범주에 넣지 말고, 유마거사처럼 그냥 끝까지 침묵으로 남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혜원은 끝까지 말 떠난 침묵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다운 침묵은 침묵하는 것까지도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그래도 돈교가 하나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결국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어떤 이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해야하고, 다른 가르침과도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결국 교설의 형태를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 떠남의 가르침은 끝내 자신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다른 언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국이 된다. 이것은 다른 교설과 구별되는 교설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되는 입장이 존재해야 하는데, 돈교는 자신의 교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혜원은 역시 언어와 대상이 관계를 가진다면, 서로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말 떠남'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교판에 포섭할 수가 없고, 만약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교판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영역이라는 점이다.

만약 일부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선을 돈교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는 돈교처럼 선은 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부정하기만 하는가? 두번째 질문은 선이란 교설과는 별개의 다른 영역인가? 셋째, 만약 다른 영역이라면 선에서 대화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이런 질문은 중국 당 시대에나 고려후기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점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동시성 원리와 진공묘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사람의 마음이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집단무의식은 우주의 허공을 충만하는 집단무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동시성(同時性)의 원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수 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왔었다는 느낌, 현실에서의 이 순간이 언젠가 꿈에서 한 번 보았던 순간 같다는 느낌 말이다.

동시성의 원리란 이와 같이 우연의 일치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시성이란 인과적으로 서로 결부돼 있지 않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의 의미있는 일치를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파울 카메러는 <연속성의 법칙>저서를 통해 동시성과 관련된 경험 사례를 100가지나 수록하는 등 동시성 현상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동시성 사건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동시성의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 가를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다. 물이 담긴 어항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어항을 우주라고 생각하자. 어항속의 물은 우주의 허공을 꽉 채우고 있는 매체다. 이 어항속의 물은 칼 융에 의하면 '집단무의식'이 된다. 이 어항 속의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한 요동을 친다. 그 결과 이 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존재들은 다시 가지치기를 하면서 존재의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은하계도, 태양과 달도, 너와 나도, 나무와 짐승, 공기와 물, 산소와 탄소, 원자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앞 쿼크와 참 쿼크 등 모든 것들이 이 어항 속에 있다. 그것은 모두 어항속 물속에 잠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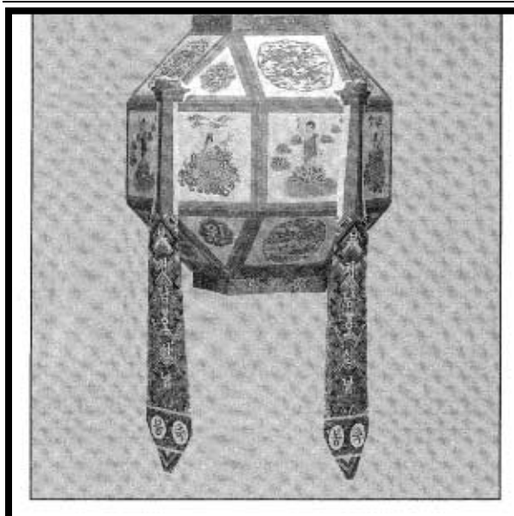
물속에 살고있는 '나'라는 존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질료는 물이다. '너'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모인 우주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너'도 '나'도 동일한 물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한 결과, 이제와서는 '너'와 '나'의 겉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너'와 '나'의 근본은 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물을 매체로 해 '너'와 '나' 사이에, 혹은 '나'와 '바람' 사이에, '나'와 '바위' 사이에, '나'와 '나무' 사이에, 혹은 '나'와 '물고기' 사이에 정보가 저절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다.

형이상학 · 관념적 구별없는 모두 '하나'

우주, 빈 공간 아닌 마음 같은 특성 있어

그래서 이 어항 속의 물로 따지면 여기와 저기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냥 한순간은 모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물이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듯이 동시성의 원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형이상적 논란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고 현실이며 우주의 실재(reality)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하여 우주의 허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묘한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공(空)이라고 하셨다. 불교 경전을 보면 공(空)이란 말은 '심(心)', '여래장(如來藏)' 혹은 '불성(佛性)' 등 여러 가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空)이란 마음(心)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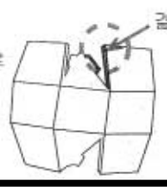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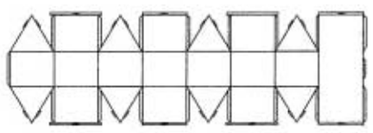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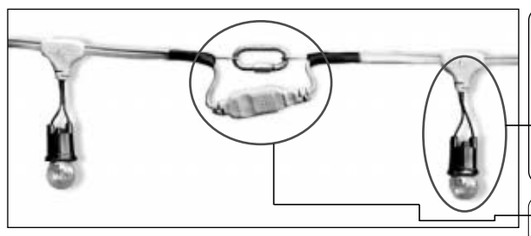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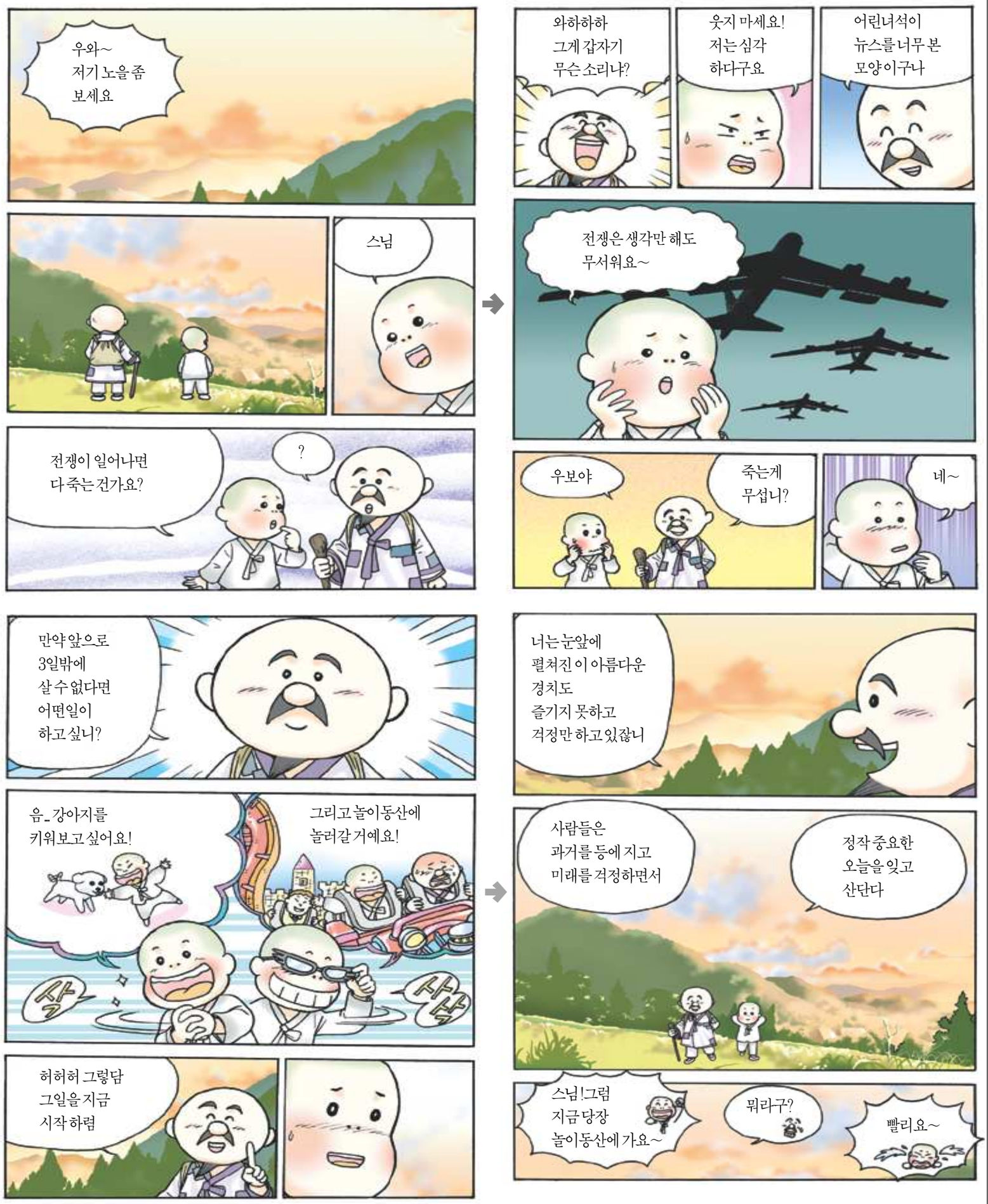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4화)

"꿈은 현실 속에 있나니…"

〈출전 : 맛지마 니까야. 3. p-233〉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두 가지 전쟁 소식

현실 바로 보기

뉴스와 신문 기사의 대부분을 전쟁 소식으로 채운 지 꽤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다. 곧 끝내겠다며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선재가 접하는 전쟁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이다. 국내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전하는 소식이 하나, 그리고 외국 방송사가 전하는 소식이 나머지 하나.

그런데 전쟁 소식을 전하는 외국 방송사의 역할이 지난 전쟁과는 많이 다르다. 이라크에서 CNN이 쫓겨나면서 아랍의 알 자지라 방송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달 선재가 처음 개전 소식을 접하던 CNN의 화면은 전자게임 자체였고,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대한민국 방송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알 자지라 방송의 역할이 커지자 소총의 공격에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위성이 제어하는 '스마트' 한 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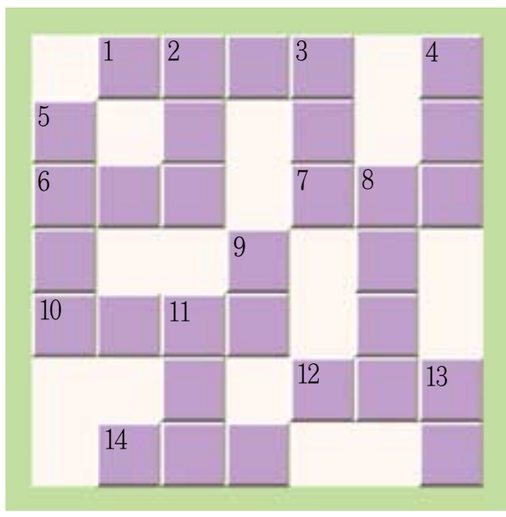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이 전변(轉變)과 전의(轉依)를 한다고 설명한다. 아뢰야식에서 7식, 6식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변이니 윤회를 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런 망식들을 바른 지혜로 바꾸는 일이 전의이니 깨달음을 향해 가는 모습일 터이다. 똑같은 전쟁을 전하는 말들 중에 한쪽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다른 한 쪽은 실상을 보게 만든다면 선재는 당연히 전쟁을 포장하지 않는 편을 들겠다.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일, 그것이 제대로 사는 첫걸음이니 말이다.

"대원경지(大圓鏡智)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완전한 거울처럼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그 거울에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대원경지는 모든 것을 항상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이것은 자기와 우주의 진실과 하나가 된 지혜이며, 여기에서 다른 모든 지혜가 생겨난다"

<성유식론>이 전하는 대원경지의 모습이다. 알 자지라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아제아제 0000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6.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결사로서 남송 초기에 자조자원(?~1166)이 시작. 백련채(白蓮菜)라고도 부름. 7.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것을 일컬음. 10.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면 얻을수 있는 열가지 덕. 남녀의 경지가 없으니 애욕심이 없다. 잡된 말의 연이 없으니 거짓말의 허물이 없다 등.(閑居十德). 12. 원래명칭은 팔리어의 담마파다(Dhammapada)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 불교의 윤리적인 교의를 시의 형태로 나타낸 경구를 모아놓은 경전. 14. 수계할 때 계를 주는 대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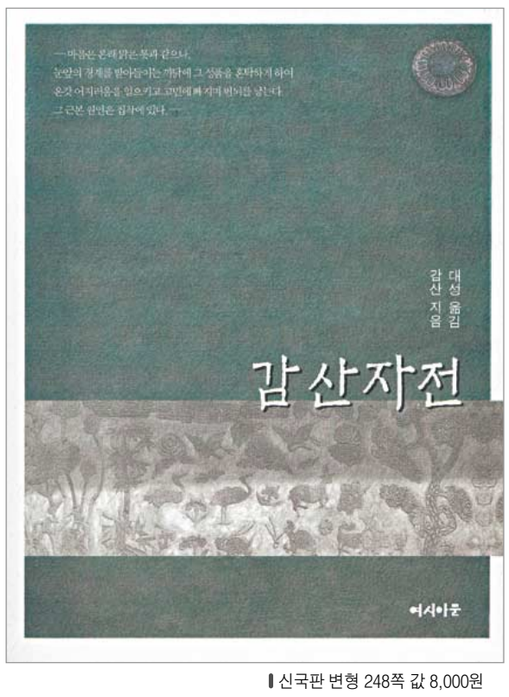
〈415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2. 티베트를 중심으로 흥성한 불교. 3. 추수한 것을 제사의 비용으로 하는 밭.(祭位田). 4.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 중생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함.(神通輪). 5. 부처님 입멸 후 제 1결집시에 모인 수행승들을 지칭. 우리나라에서는 거조암의 이 전각이 유명함. 8. 극락세계를 설계한 비구. 극락세계에 나타난 장엄(莊嚴)이 48가지여서 이를 0000 48대원이라고 함. 9. 선을 쌓아 얻을수 있는 것으로 선행의 결과로서 보답받는 과보를 말함. 11. 인간을 구성하는 18개의 구성요소. 육근(눈 · 귀 · 코 · 혀 · 몸 · 의식)과 육경(색 · 소리 · 향 · 맛 · 촉 · 법), 육식(눈 · 귀 · 코 · 혀 · 몸 · 생각)을 말함. 13. 신라의 수도.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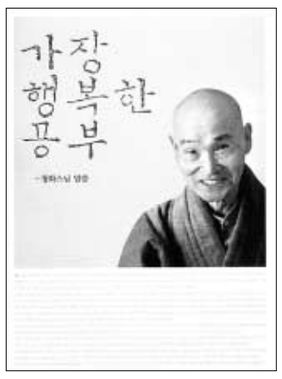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선지식이 일러주는 행복의 길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 9천원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지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 조계종 원로회원)의 감로 법문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청화 스님은 80 고령에도 불구 대중법문에 나섰으나 아무래도 듣는 대중은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자하는 수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문 테이프와 보시용 소책자다. 스님이 드러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한사코 대중 출판을 만류해 스님의 법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녹음테이프를 풀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글로 유포하기도 했다. 급기야 상황이 이렇게 까지 이르자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공유하자는 팬(?)들이 스님 설득에 나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공부>다.



◇대중들과 함께 참선 삼매에 든 청화 스님(앞줄 맨 왼쪽).

"올바른 참선 · 염불수행이 無明 벗게 해"

법문 가려 정리, 가르침 곁에서 듣는 듯

무한한 인내를 요하는 공부란게 결코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을텐데 세상에 과연 행복한 공부가 존재할까. 청화 스님은 이 화두의 답을 이 책에서 참다운 참선과 염불이라고 제시한다. 스님은 감수(感受), 상상(想像), 의지(意志), 의식하는 것 모두가 다 비었다고 분명히 느껴야 참다운 반야지혜가 생겨 올바른 참선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스님은 '조사선(祖師禪)과 염불선(念佛禪)'이 돼야 올바른 참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스님은 "참선공부가 어째서 행복한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국병이니 무슨 병이니하는 '병'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무명병(無明病)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병이나 미국병이나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무명병입니다."고 가장 행복한 공부가 참선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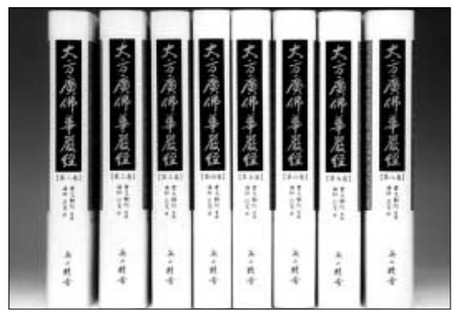
이 책이 어려운 참선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책장이 술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스님의 법문 어투를 그대로 사용한데 있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 스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직접 듣는 듯하다. 가령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날이 좋은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모든 시비를 떠나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에 임하는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는 식이다.

이 책에서 스님이 강조하는 또하나가 바로 '하심(下心)'이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모든일이 순리대로 풀리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침을 주신다.

이따끔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토굴 수행담에서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갔던 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느낄 수 있다. 1천미터 이상 되는 고지에서 추운 겨울에 장작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세 개비만 때면서 죽을 각오로 수행했다는 대목은 책을 덮고서도 한참동안 긴 여운과 감동으로 남는다.

스님의 법문 중 10편을 뽑아 정리한 이 책은 태안사 법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 1부 '마음의 고향'을 비롯해 젊은 불자들에게 설법한 제 2부 '젊은 불교를 위하여', 동안거 결제에 정진중인 스님들에게 하신 제 3부 '정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24면 '지상백고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방광불화엄경'

거부 스님 역주

운주사 / 전 8권 20만원

혼자서도 강독할 수 있는 화엄경

원문 · 역문 같은 장에 … 대조해 읽기 편해

前 수덕사 승가대학 강주 거부(巨芙) 스님(표충사 무이정사)이 공부하는 학인들을 위해 최근 방대한 <화엄경> 원문을 알기 쉽게 풀어 놓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전 8권)을 출간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전통강원 본인 80권본 <화엄경>과 39품을 합해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자세한 해설을 붙여 놓아 전통강원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이 책은 원문과 번역이 한 장에 함께 실려 있어 한문에 약한 신세대 학인들과 불자들도 바로 대조해 가며 읽기 편하게 구성돼 있다. 그래서 방대한 양과 어려운 한문에 압도돼 그동안 공부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책이다.

역자인 거부 스님이 92년부터 컴퓨터로 한자를 직접 만들어 가며 10년동안 번역 작업을 해왔다고 하니 수행자이자 학자적인 인내와 고집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거부스님은 "<화엄경>은 강원에서도 전과정을 강의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 경전"이라며 "하지만 모든 불경의 결론을 총 집약한 중요한 경전이므로 혼자라서도 학인들이나 불자들이 읽으면서 인연 맺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선원제전집도서 주해'

법장 스님 엮음

동국역경원 / 2만원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都序'

<선원제전집도서 주해(禪源諸詮集都序註解)>는 문장 해독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선원제전집>의 '도서(都序)'를 선운사 강주 법장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쓴 책이다. 조선 중기 이후 강원의 소의 경전 중 하나로 채택돼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도서'를 문법적인 해설을 곁들여 읽기 쉽게 번역했다. 또 각 장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졸가리(줄거리)'를 덧붙여 놓아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선원제전집>은 '선과 교의 본뜻은 둘이 아니다'라는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제창하기 위해 당나라 화엄종 제5조 종밀 스님(宗密, 780~840)이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선(禪)의 어구와 게송 등을 모은 100권이 넘는 문헌이었으나, 현재는 서문에 해당되는 '도서' 상하 두 권만 전한다. '도서'에는 <선원제전집>의 편찬 배경과 선의 참뜻 근원, 선정의 필요성, 종파의 특성, 선의 종류와 보리달마의 선, 선교일치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책 구입은 선운사 강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063)561-147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큰스님들 선문답 160편 모아

'순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혜범 엮음

북갤럽 / 8천원

달마와 혜능, 마조, 경허 스님 등 깨달음을 전하는 큰스님들이 남긴 행적들과 선(禪)문답을 가려담은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가 나왔다. 자신을 해탈하게 해 달라고 하는 도신에게 '아무도 구속한 사람 없는데 무슨 해탈을 구하냐'고 반문한 승찬 스님,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한 조주 스님…. 선지식들의 일화가 가득 담겨 있어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왜 내게 묻는가', '졸고 있는 부처', '열린 문을 못 보는구나' 등 3개 장으로 나뉜 이 책에 실려 있는 160여편의 선문답 160여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화두로 삼을만한 것들이다.



대중강의 내용 묶어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텐진 갸초 지음 / 주민황 옮김

무우수 / 8천5백원

<반야심경>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사찰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암송되는 가장 중요한 불교경전중의 하나다. 우리 자신이나 사물들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간결하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지혜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달라이라마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뷰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차근차근 명료한 언어로 연속 강의한 내용을 묶은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은 불교의 기본교리와 <반야심경>을 현대적으로 쉽게 해설해 놓았다. 1부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제 2부에서는 <반야심경>의 전문을 수록하고 불교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해 놓았다.



진실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부자'

자원 스님 지음

운주사 / 7천5백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 신앙 대중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 스님(금강정토사)은 행복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라는 식의 바로 마음 부자가 되는 법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훌륭한 도반을 만난 사람, 발보리심을 내는 사람 등이 스님이 제시하는 마음 부자인 것이다. 이 책에는 불교 경전에 근거한 마음 부자가 되는 법 114가지가 소개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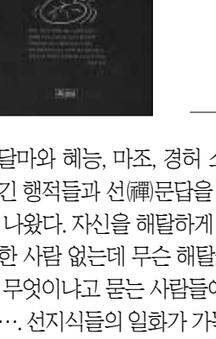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힘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운 주 사
4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 재 경	마당넓은집
5	통일법요집	편 집 부	조계종출판사
6	미소짓는 발걸음	틱 낫 한	열 림 원
7	주머니속의 조약돌	틱 낫 한	열 림 원
8	절간이야기	오현스님	고 요 아 침
9	묻지않는질문	현응스님	민 족 사
10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 특집사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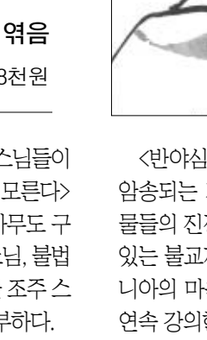
불교설법전서 (1~8권)



기념책자 견본

· 봉축법요식순
· 부처님은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표지포함)



특집사보 견본

· 봉축발원문
· 부처님의 탄생과 그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운동과 수행
· 불교와의 인연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쪽(표지포함)

단위 :원

기념책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1,200,000
특집사보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948,000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식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펍시다.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 실시"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500쪽)3만원 5권(720쪽)4만원
2권(596쪽)4만원 6권(816쪽)5만원
3권(612쪽)4만원 7권(894쪽)5만원
4권(798쪽)4만원 8권(790쪽)5만원

*곧 9권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 설법연구원 편 | 각권 30,000~50,000원
· 참회정진 | 도법 편저 | 3,000원
·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 반영규 지음 | 7,000원
· 천수경 | 윤오연 편저 | 6,000원
·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 임근동 지음 |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 설법연구원 편 | 10,000원
· 불교사경집 | 설법연구원 편 | 예불 · 반야심경 3,000원, 지장경 5,000원
· 불교지도자론 I | 설법연구원 편 |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 송찬우 역저 | 12,0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옮김 (곧 발간예정)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 김장열 · 방경일 공저 (곧 발간예정)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있을 것 있고 없을 것 없는 세상을”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

윤구병 지음

도서출판 보리 / 1만3천원



◇2월 24일 회갑을 맞아 변산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한 윤구병(왼쪽에서 두번째) 씨.



“세상 눈먼 마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있을 것’, ‘없을 것’ 끊임없이 엉켜 흐트러 놓아도 이제 하나를 알고 그 세상 무엇들이 다 내 안에 있으니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눈익은 퍼즐 조각 단번에 자리 찾듯 한 줄기 섬광과도 같은 직관으로 단칼에 무명(無明)을 날린다.”

송광사 행자 출신의 자칭 ‘농부’ 윤구병(60)씨가 낸 철학책 <윤구병의 존재론 강의: 있음과 없음>(보리刊)에 나오는 알쏭달쏭한 화두 풀이다.

1996년, 53세의 늦은 나이에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전북변산에서 농사 짓고 공동체 학교를 꾸리는 철학자 윤구병씨. 그가 대학을 버리고 생태공동체 건설에 나서게 한 실천적 문제의식을 존재론적으로 조망한 이 책은 책 표지 안에 쓴 말 그래도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쓴 윤구병식 존재론 이야기’다.

그의 전공이었던 서양 고대 철학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존재론을 풀아가는 이 책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묻고 답하듯이 풀어가는 글을 통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보여준다. ‘존재와 운동’ ‘하나와 여럿’ 등의 주제를 자신의 경험과 구수한 어법으로 구사하는 책 내용은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하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양하게 인용되는 등 지루하지 않게 철학을 접할 수 있다.

서양고대철학 중심 존재론 치밀하게 탐구
자신의 경험 불교적 사유로 구수하게

제논이나 파르메니데스 뿐 아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기독교형이상학의 여러 존재론의 사고 틀은 윤구병식으로 해설되며, 그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를 엿보게 하는 시간과 공간, 유한과 무한, 실체와 현상, 좋음과 나쁨의 문제가 언급된다.

윤구병씨의 철학은 결국 ‘있음/없음’의 존재론을 징검다리로 해서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이라는 실천론으로 넘어간다. 거기서 그가 꿈꾸는 목표는 ‘억압 착취 전쟁 이기심 탐욕 증오처럼 없어야 할 것들이 없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긴밀하게 연관 맺고 있는 문화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은 반쪽이다. ‘있음’ ‘없음’에 이어 ‘함’ ‘됨’의 문제를 다루었어야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될것인가’를 전혀 다루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아마도 기약없는 다음 책에서 그 내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변산공동체를 한번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책이었던 그의 아버지, 한국전쟁 과정에서 잃어버린 6명의 형, 소주 한병과 오징어 뒷다리를 뒷주머니에 꽂고 다닌 고등학교, 서른네살에 출가해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 임신한 아내가 아이 손잡고 찾아오자 하산한 일, 그리고 교수직 사퇴….

철학교수들을 대표해 글을 실은 이정호 방송대 교수는 “존재론을 강단의 것이 아닌 현실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의 통찰에 주목해 후학들이 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적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두보시선’
‘이백시선’

이원섭 역해

현암사 / 1만3천원, 1만2천원



중국 두 詩聖의 생애·시 세계

老시인의 한시 해석 … 은은한 맛과 멋

시인이자 불교학자인 이원섭(79·사진)씨가 중국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두 시인 두보와 이백의 대표작들로 엮은 <두보 시선> <이백 시선>을 역해했다.

<두보 시선>은 1976년 정음사에서 문고판으로 냈다가 절판된 것을 오식을 바로잡고 작품 제작연대를 보충해 재출간했다. <이백 시선>은 1996년 현암사가 냈던 <당시(唐詩)>에 실린 50여편의 시에 이백의 대표적 장시(長詩) 등을 첨가해 새롭게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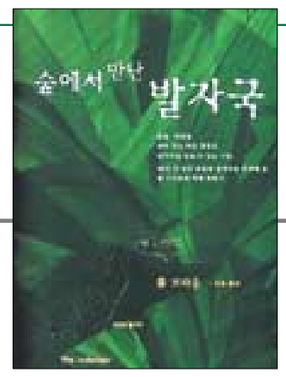
120편의 두보 시와 110편의 이백 시를 망라한 이 책들은 지금까지의 <두보 시선>, <이백 시선>의 오역까지 바로 잡은 책이다. 유려한 우리말로 번역한 시와 함께 원문, 주, 해설을 달아 문학도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두보와 이백의 선적인 일생, 시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노시인의 연륜에서 우러난 한시 해석의 은은한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본업인 시 창작 보다는 불교 경전과 선(禪)의 세계에서 문자 뒤의 진리를 찾고, 그것을 빼어난 우리말로 옮기는 울력을 해 온 이원섭 시인. 그는 대선배인 중국을 대표하는 시성 두보와 이백을 이렇게 본다.

“이백을 보면 도처에서 꿈을 발견하고는 그 꿈에 시의 날개를 달아 무지개처럼 찬란히 펼쳐보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설사 현실적으로는 실의에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꿈은 농도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은 점에 끌리지요. 두보는 고통과 번뇌가 키워낸 중국문학사의 시성이지요. 시대와의 불화탓인지 삶과의 불화탓인지 잘 모르지만, 그는 고통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시를 쏟아냈지요.”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숲에서 만난 발자국’

톰 브라운 지음 / 김훈 옮김

황금가지 / 1만3천5백원

20여년 산에서의 야생체험기

우선 이 책 <숲에서 만난 발자국>을, 일곱 살이던 때부터 20여년을 산 속에서 살아온 톰 브라운의 야생체험기라고 해두자. 나는 이 책에 흐르는 기조가 소중한 무엇의 상실이라고 읽었는데, 우리가 숲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우리에게 숲은 도시의 반대편쯤에 놓여 있는 사물이다. 그것은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잠깐의 쉼을 위한 레저용 사물이다. 아니면 애초부터 밟기를 두려워하도록 이미지화된 사물이거나, 군사작전 용도의 출입금지 지역이다. 혹은 개발용의 사물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을 도로용으로 삼는 계획과 지리산의 계곡을 수장시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렇고, 백두대간을 9㎞마다 잘라낸 도로가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숲은 곧 도량(道場)이라는 불교의 전통이 있다. 출가를 입산(入山)이라고 했듯, 불교의 전통에서 산은 수행처인 도량의 대접을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불교의 전통은 위태롭지만 꽤 보편적이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산을 오른다고 하지 않고 유산(游山)이라고 했다. 산에 대한 겸허함이다.

야생성·도량 기능 해체 가속화 경고

우리의 전통에서 보면,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큰 산 ‘파인 배런즈’는 야생성의 산이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보다 훨씬 더 넓으며, 소나무와 덤불로 덮혀 있어 도로에서 백여 미터만 벗어나도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아찔한 곳이다. 그런데, 동물 발자국 추적자(The tracker, 이 책의 원 제목)인 톰 브라운에게 파인 배런즈는 “자취들과 그러한 자취들 너머에 존재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도량으로서의 공간이 된다.

아무리 험악한 산일지라도 사람과 산이 하나됨으로써 비로소 도량이 된다. 동물의 발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의 촉감을 통해 익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동물이 자신이 사는 동굴 속에서 안심하고 기어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풍경의 일부가 되어 한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많은 행위의 흔적이 깃든 자취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는 경지에 이른다.

“학교는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할아버지는 내게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셨다”고 한 아파치 인디언 할아버지인 ‘뒤를 밟는 늑대’의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추위는 네 형제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바람을 적으로 취급해왔다.” 이 말은 화두에 다름 아니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으로 확인한 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자연과 하나되는 절정의 순간의 기록화이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된다면 자연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나는 추위에 대해 저항하기를 그쳤다.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인지, 최근 몇 년 사이 숲 혹은 나무, 산에 대한 책의 출판이 활발하다. 서점의 한 서가를 차지할 정도이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발자국>도 굳이 분류한다면 그런 류에 속할 것이나,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연구의 결과 또는 관찰의 기록이 아닌, “마침내는 그 자취들이 주는 인상을 통해 그 동물을 거의 손으로 감촉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 앞에 떠오른다”고 서술할 정도의 온전한 체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산의 온전한 체험은 도시와 도시가 상징하는 그 물에 포섭되어 숲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삶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충분히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실시한 ‘불자들의 환경 인식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의 환경의식이 그 위의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편성된 환경교육을 받는데도 환경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친숙해지는 체험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경험한다 해도 야생성을 상실한 도심공원에서의 경험이거나 주말의 레저용이 고작이다.

산과 산의 야생성과 도량으로서의 산, 이 셋의 해체가 그치기는 커녕 더욱 가속화하는 이 때에 이 책의 지은이인 톰 브라운의 자조적인 경고를 듣는 심정은 허허롭다.

“그 비버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 일대가 모두 오염되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릭과 내가 느꼈던 그 혹심한 무력감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지만 그건 앞으로 꽤 많은 시일이 흐른 뒤의 일이 될 것이다.”

■정성운 /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숲에서 만난 발자국〉은 〈시튼 동물기〉를 닮았다. 시튼의 이야기 주인공이 동물인 것과 달리, 이 책의 주인공은 여덟 살 소년 저자 톰 브라운이다. 소년은 자연의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을 이웃집 인디언 할아버지께 배웠다.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며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1.)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컬러) / 14,500원

Human & Books 전화 · 02-6327-3535 팩스 · 02-6327-5353 e-mail · hbooks@empal.com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꼬?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정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떠리!”



•여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돌과 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러주고 있다. -조선일보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서정성 깊은 60편의 법문으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도



여성의 출가

어느 날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 명으로서 재기발랄한 아난다가 부처님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한다. "세존이시여, 여성은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장애가 많기 때문이니라" "설혹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가를 허락하는 것이 붕등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죽자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께 출가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출가하는 것은 장애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출가해서는 평생 부처님을 시봉한 아난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아난다가 이상의 질문을 통해 부처님을 설득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인가 동국대학에서 강의하던 중 어느 여학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가 있다. 화학과 여학생으로 기억되는데 자기는 불교를 결단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불교는 숲 속에 거주해야 했다. 이것은 인가를 멀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거기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서도 안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이 출가하여 수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출가에 대해 망서렸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하파자파티가 처음 여성의 몸으로 출가한 이래 많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갈희를 노래하고 있다. 흔히 <장로니게>로 알려진 경전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증일아함경>권3 비구니품에는 수행을 통해 일가를 이룬 비구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각 방면에 뛰어난 여러 명의 비구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국왕의 존경을 받은 비구니로 마하파자파티를 거명한다. 지혜롭고 총명한 비구니는 케마며, 신족통이 뛰어나서 모든 신들을 감동시킨 비구니는 우발화색(일명 연화색)이다. 두타행이 뛰어난 비구니는 키사고타미이며, 천안통이 뛰어난 비구니는 사람라이다. 선정에 들어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비구니는 사마며, 이치를 분별해 내리 도를 뭘친 비구니는 파두란사나이다.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은 비구니는 파타차라이며, 믿음의 해탈을 얻어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경지 올라간 비구니는 캇차야나요, 네 가지의 변재를 얻어 두려움이 없는 비구니는 최승이다. 자기 전생의 수없는 시간을 아는 비구니는 밧타카필리안이요, 얼굴이 단정하여 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비구니는 혜마사이다. 외도를 항복시켜 정법을 세운 비구니는 소나며, 이치를 분별하여 가타을 잘 설명한 비구니는 담마단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비구니는 우다라이며, 모든 갈관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은 비구니는 광명이다. 의복을 항상 정갈하게 하여 법다운

교성곡으로 부처님오심 찬탄

'다시 나를 바라보며' 9일 세종문화회관

'육바라밀 행을 통한 내 마음…' 10일



◇불교음악 CD출반기념으로 봉축 음악회를 여는 정부기 교수.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음악회가 잇다라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보불교음악협회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공동 주최로 9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는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의 불교음악 CD 출반 기념으로 기획됐다. 합창과 중창, 협연, 교성곡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부기 교수가 '밤비'를, 김문희씨와 문수현씨가 판소리인 '양면불'을 협연한다. 3부에서 펼쳐질 교성곡 '붇다의 노래' 도 코리안필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번 음악회의 스케일을 웅장하게 꾸며주는데 한 몫 한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는 정 교수의 대표곡 '무상을 느끼고'로 장식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박정희씨를 비롯해 바리톤 박성규 · 김성범, 테너 이동원 등 가창력이 풍부한 신세대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내실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창·판소리 '양면불' ·교성곡'붓다의 노래'

극형식 산사결혼식에 사물놀이 · 무용등

최근 내놓은 두개의 음반(붇다의 노래, 다시나를 바라보며)에 삽입된 '이 밤을 어디서 쉬나', '휴식', '조국', '그물걸려 앓던 삶의 노래' 등이 연주된다. 특히 이번 곡들은 효경(법안정사 주지) 스님이 가사를 지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시관현악단의 반주로 이동원씨

정부기 교수는 "법열을 느끼게 하는 효경 스님의 노랫말에 곡을 부치는 작업은 또하나의 기쁨이었다"며 "창작의 고통이 뒤따를때마다 불교음악을 만들어 부처님과 대중들께 바치는 작업도 수행의 연장이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 했다.

10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재단법인 선학원 보광사와 삼보불교음악협회 공동으로 보광사 합창단 연주회 '육바라밀 행을 통한 내 마음 찾아 절로절로'가 열린다.

안병길씨(삼보불교음악협회 운영위원장)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보광사 주지 스님이 치는 은은한 범종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서울시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보광사 합창단이 '바람부는 산사'를 비롯해 '지심귀명례',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오늘은 기쁜 날', '거룩한 삼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을 부른다.

극 형식으로 꾸며질 이번 무대의 제 1장에서는 스님의 주례로 산사에서 부부가 올리는 결혼식을 사물놀이와 합창, 무용 등을 등장시켜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킨다. 휴식 후 다시 시작되는 제 2장은 이번 공연의 클라이 막스다. '바람부는 산사'의 합창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쌓인 산사에 노부부가 등장하면서 지장보살님께 해탈을 발원하는 이중창 '해탈의 기쁨'을 소리높여 부른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지 스님이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르면서 108염주를 걸어준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중창단과 영산법화사 합창단도 이번 음성공양에 출연해 무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정수사 꽃살문' 부분. 관조스님 作.

14개 사찰 꽃살문 담아

관조스님, 사진집 출간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중인 관조 스님이 최근에 출간한 <사찰 꽃살문>(솔 출판사/ 값 3만5천원)에는 조선 사찰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살문 사진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돋보기를 대고 문 앞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이 책에는 꽃살문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을 비롯해 기림사 대적광전, 정수사 대웅보전, 통도사 적멸보궁, 선암사 원통보전, 성혈사 나한전 등 14개 사찰 꽃살문이 소개돼 있다.

'진리로 향하는 문', '극락으로 이르는 문', '깨달음으로 열리는 문' 등으로 나눠져 있어 각 문의 의미를 되새기는데도 일조한다.

책 출간에 맞춰 스님은 국립청주박물관(27일까지), 광주시립박물관(5월), 국립제주박물관(6월), 국립춘천박물관(7 · 8월), 부산시립박물관(9 · 10일) 등의 일정으로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기자

문화소식

제5회 찬불가의 밤 개최

서귀포 연꽃합창단

제주 서귀포 연꽃합창단이 11일 저녁 7시30분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제 5회 찬불가의 밤'을 개최한다. 양경식 교사(삼성여고)가 지휘하는 이번 공연의 1부 순서에서는 '스스로 밝은 곳에', '당신의 미소', '잉태' 등을 부른다. 이어 2부에서는 '초파일 송가'를 비롯해 '성불하십시오', '노래같이 좋은 것은 없네' 등을 음성공양 한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서는 서귀포 명성어린이집의 사물놀이와 신은숙 죽향국악원장의 대금산조 연주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011)697-0155.

문화명상교실 열어

달마선원, 12·13 이틀간

예술과 명상을 통해 참선을 할 수 있는 문화명상 이벤트가 마련된다.

속리산 달마선원 선문화예술원(원장 범주 스님)은 12 · 13일 양일간 '문화명상 교실'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명상전 마음을 열고 발심할 수 있는 범주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음악과 춤을 통한 동적인 명상, 참선과 비파사나 등의 정적인 명상, 자연 감상과 산행을 통한 침묵의 명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 다음날에는 범주 스님의 지도로 선묵화 그리기 체험을 하며 동해소리 전수자인 종산 스님의 지도로 북과 소리를 통한 명상(동해의 소리)배우기 체험을 한다. 참가비는 5만원. (054)535-0378

가볼만한 전시회

지형스님, 대길상 선화전 10~14일

10년동안 길상도만을 화폭에 담아온 지형스님(서울 소림정사 주지)의 '옥룡자 대길상 선화전'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에서 열린다. 8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힘차고 역동적인 기존의 '말(馬)' 그림 위주에서 벗어나 연꽃, 복숭아, 학 등 간결하고 선(禪)적인 이미지로 화풍이 변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미년 양(羊)의 해를 맞아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세 마리 양의 자태를 그린 '삼양개태(三羊開泰)'와 3천년만에 한번 피워 무병장수를 상징한다는 '3천 도화도(桃花圖)' 등이 좋은 예이다.

2백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지형 스님은 '양(羊), 용(龍), 거북(龜), 말(馬), 학(鶴), 봉황(鳳)' 등 6가지 상서로운 동물을 갑골문자로 표현해 작품영역이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의 힘찬 비상을 표현한 '독수리'와 스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백마리 말이 동시에 달리는 모습을 담은 '대용마도' 등도 여전히 감상할 수 있다. (02)511-6210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지형스님의 '3천 도화도'.

김주일 기자

상서로운 동물·꽃 禪 이미지로 표현

귀산스님, 티베트 불화전 11~17일



◇귀산 스님의 티베트 불화 '바르도의 오여래'.

티베트불화인 '탕카(Thanka)'는 불보살과 만다라를 그린 것으로 아름답고 정교하며 세밀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우기도 그만큼 까다롭다. '탕카'의 기법을 9년간 인도 다람살라에서 익히고 돌아온 귀산 스님이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 '티베트불화展'을 갖는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탕카전을 몇차례 열기는 했지만 한국인이 전문적으로 배워 국내에 선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갈라차크라 만다라',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참제업장 35불', '화이트 따라', '영산회상도' 등 60여점이 소개된다.

귀산 스님의 작품이 다른 '탕카'들과 차별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탱화기법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산회상도'는 국내 사찰의 어디서 인가 한번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이 익는다.

'탕카'는 국내 탱화와는 달리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방에 모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되기 때문에 전시회장에서 들어설 때 큰 규모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02)733-5322.

'갈라차크라 만다라' '관세음보살' 등 60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6:00 뉴스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5:05 음악의 마을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21:05 경전공부
23:30 BBS 초대석
24:00 한방의 영상음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9일 10:20 재미있는 경전공부
10일 12:20 한국의 명찰
11일 08:20 한국불교의례
12일 10:00 btn주간뉴스
13일 15:10 혜거스님의 신심명강의
14일 20:40 생활건강백과
15일 09:30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11일 17:10)-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 종합 매거진 '무명을 밝히고'에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출연, 우리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사찰문화 기행'을 방송한다.

■**불교텔레비전**:△혜거스님의 신심명 강의(13일 15:10)-혜거스님의 신심명 강의를 총정리 하는 시간. 선과 악을 가리고, 좋고 나쁜 것을 차별하는 분별심을 버리면 진여 법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담은 신심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본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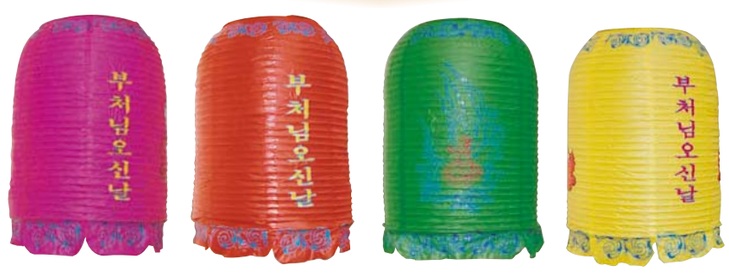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어르신, 봄철 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적당한 체중유지, 건강 점검 습관화 해야
비타민 보충, 하루 6~8잔 물 섭취 필요
영양관리,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 말끔히

추위로 한껏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 환절기인 요즈음은 1년 중 신체리듬의 변화가 가장 심한 때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의 신진대사가 급격히 늘어나 비타민의 소모량이 겨울보다 약 3~10배 정도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봄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월 28일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 스님) 강당에서는 '어르신 봄철 영양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신체 기능도 변하는 노인의 경우 영양 요구량이 장년기 때와 다르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한 최선경 영양사는 "항상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신체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입맛이 떨어지는 봄철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며,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인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매일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곤함과 나른함을 많이 느끼는 봄에는 새콤한 식초를 곁들인 봄나물이 식욕을 돋울 뿐만 아니라 춘곤증을 이기게 해 준다. 또 조기, 병어, 대구, 민어 등 단백질이 풍부한 흰살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최선경 영양사가 권하는 봄철 식단은 다음과 같다.

아침은 강낭콩 밥과 쑥국, 콩자반, 두부조림, 백김치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먹는다. 대신 점심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이 좋다. 비빔밥이나 설렁탕 등의 한 그릇 음식에 돌나물김치, 너비아니, 잡채 등의 반찬을 곁들인다. 저녁은 부담스럽지 않게 적은 양을 섭취한다. 다양한 잡곡을 넣은 영양밥과 된장국, 겉절이 정도면 충분하다.

영양관리와 함께 가벼운 운동도 봄철 피로를 이기는 방법이다. 1주일에 3~5회, 1회에 30~60분씩 달리기,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운동을 한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운동이 힘든 경우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무리하게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다면 약간 땀이 날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춘곤증으로 낮잠을 자는 경우도 많은데,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낮잠 자는 시간도 오후 2시 이전으로 해야 저녁에 잠을 방해받지 않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노인 식생활 지침〉

△다양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골고루 제시간에 먹는다.
△활동적인 생활 습관으로 식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적은 양을 자주 먹는다.
△두류와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를 늘린다.
△신선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동물성 식품은 어류와 육류를 골고루 섭취한다.
△음주량을 제한하고 충분한 양의 물과 음료를 마신다.
△식사 전에는 식욕을 돋구기 위해 가볍게 걷는다.

(자료제공=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식생활지침연구팀)

■어르신 영양관련 사이트

단 체	내 용	연락처
대한영양사협회 (www.dietitian.or.kr)	식품영양정보 및 식사요법, 식습관 및 비만도 평가 프로그램 제공.	(02)842-2466
한국영양학회 (www.kns.or.kr)	학회 소개와 부설단체인 영양단체 소개 및 학회지 정보 제공.	(02)3452-0048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w.kig.or.kr)	노인 생활실태와 관련자료 제공.	(02)714-9000
대한노인회 (http://koreapeople.co.kr)	노인의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정보 수록.	(02)715-2928
한국노인병연구소 (www.geriweb.com)	노인에게 좋은 음식과 건강관리법을 소개. 노인건강지수도 점검해 볼 수 있다.	(02)557-0606
노인건강 (www.longshot.co.kr)	노인성 치매 및 정신건강 정보를 담고 있다.	(051)554-1234



3월 28일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봄철 영양관리' 강좌에 1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원추리 토장국



원추리 200g, 된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쌀뜨물 7컵, 다시마(20cm) 1장

1. 원추리는 씻어 소쿠리에 건져 먹기 좋게 자른다.
2. 쌀뜨물에 된장, 고추장을 풀고 다시마를 넣어 끓인다.
3. 다시마는 건져내고 맛이 어우러지면 원추리를 넣고 조금 더 끓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은 칠보 팔찌매듭



순은에 연꽃문양 전통적 매듭사용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귀부인들의 노리개나 비녀 등 귀한 물건에만 사용했던 칠보기법.

'은 칠보 팔찌매듭'은 순은에 연꽃문양을 새긴 후 유약을 발라 구워낸 만든 것이다.

팔찌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매듭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값 2만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전쟁으로 고민에 빠진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교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불교유치원에서, 좀더 커서는 불교학생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의 불교는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 같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일 뿐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와 삶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건 이번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TV나 신문에서 연일 쏟아내는 이라크 전쟁 얘기를 듣고 보면서 지구에 정말 종교가 있는가하는 의문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에 정말 종교가 있다면 인간들이 연출해 내는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른 것이어야 하고, 종교가 없다면 지상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낸 사기극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청년은 종교에 관계된 책을 읽고, 종교와 관계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 합니다. 하지만 책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모두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자신이 제기한 근원적인 의문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답답해진 청년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문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배경을 설명한 신문 칼럼을 읽고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칼럼을 쓴 사람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배경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후세인이 제거되고 그 파급효과로 중동국가들이 민주화되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동의 세력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부시 정부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배경 중에는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주려는 계산도 포함돼 있는데, 부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구약성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는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영구적 평화를 도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 기사를 읽고 난 청년은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인간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한다면 그럼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하는 새로운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런 의심을 품고 나니 종교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느껴져서 더 큰 고민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천상에서 살고 있는 신들의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신들도 인간만큼이나 영토확장 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요? 지상의 종교가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싸우는 것은 신의 탐욕 때문인가요? 인간의 탐욕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퍼붓고 나서 다시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통해 배운 것은 탐, 진, 치 삼독심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과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은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인류의 정신연령 종교통해 성장시켜야



청년의 질문을 받고 난 저는 어떤 답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정신연령은 17살이라고 하더군요. 17살 먹은 청소년이 어른의 세계를 알려면 어른 만큼 나이를 먹어봐야겠지요. 또 신의 뜻을 헤아린다고 해봐야 17살 수준만큼 밖에는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류의 정신연령을 청소년 수준에서 장년 수준으로 높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상에서 전쟁도 사라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각자 자신의 정신연령을 청소년 수준에서 어른 수준으로 높여 가는 것이 급선무일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 종교가 있는 것이겠지만, 종교를 통해 자신의 정신연령을 높여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상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정신연령이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부처님, 걷고 뛰어 다니고 싶어요" (상)

엄범순(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모두 뇌성마비 1급 이상으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장애 고아들이다.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사랑 마을이라는 장애인복지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같은 재단인 '한사랑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다가 지난 2001년 2월 19일 중학부 3학년 13명 학생들이 마지막 학창시절의 졸업을 하게 되었다.

모두 뇌성마비 1급 이상의 심한 장애로 늦게 학교에 입학하여 18~21세 정도다. 중증장애로 인해 밖의 출입이 어렵지만 우리반 13명과 중1학년 2명을 포함 15명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가입해 있다. 서울의 선덕고와 명성여고 파라미타 지도교사와 회원들의 도움으로 여름방학에는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장에서 열린 파라미타 국제 캠프에 참석을 했다.

텐트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파라미타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고, 차량은 학교버스를 이용하면, 거의 경비가 들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했다. 난생 처음 이러한 경험을 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던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다.

'생방송 강원 365'라는 강릉 MBC에서도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캠프 취재를 하며, 외국인 청소년들과 일반학교 학생들만 참가하는 캠프인줄 알았는데 중증장애 학생들도 함께 하니, 청소년 캠프가 살아있는 교육 자체라고 극찬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심성을 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했다.

국제청소년 캠프라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몽골 등 외국의 청소년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과정활동 참여시에는 휠체어를 밀어주는 등 사랑으로 대해 주는 모습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축제에 우리 학생들이 장기로 준비한 댄스를 보고 비록 몸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무대 위에 돗자리를 깔고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에 일반 학생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특히 수상활동인 해수욕은 아마 우리 장애학생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일 것이다. 장애가 심하여 모두들 해수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의 선덕고, 명성여고 학생들의 도움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해수욕을 두번이나 했다. 정이 그리운 학생들에게 3박4일 동안 선덕고와 명성여고 파라미타 회원들은 따뜻한 정을 심어주었다. 끝나는 날에는 여학생들이

일반학생과 하나된 국제캠프 소중한 기억
'다음 生에 건강한 몸' 발원의 졸업여행

짝꿍과 헤어지기 싫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나도 텐트를 접으며 몰래 울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1년 10월에 열린 명성여고 학생회 축제기간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재회하는 기쁨도 가졌다. 명성여고 학생들은 지난해 2월에 가진 한사랑 학교 졸업여행에 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졸업여행(수학여행)이다.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자체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나 졸업여행경비는 학부모 부담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없어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 국가보조와 주위의 후원금으로 살림을 하는 한사랑 마을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여행 경비를 보조 못한다고 하고, 교장선생님도 지난 여름의 파라미타 캠프로 대체를 하자며 포기하자고 하셨다. 담임교사로서 우리 학생들 평생의 마지막 학창시절을 그냥 넘어가려 하니 마음이 아팠다. 마침 교원공제회에서 무상으로 벽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 초청하여 2박3일간 수학여행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장애학생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특수학교는 미처 생각을 못해 예산이 없다고 했다. 다음해에는 꼭 고려해 보겠다고 하나 그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던 차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조계종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사연을 듣고 흔쾌히 졸업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 봄방학이라 회원들도 몇 명 자원봉사로 참가하여 졸업여행을 특별하게 추진하였다. 그냥 외부에 나가서 잠이나 자고 구경이나 하고 즐겁게 먹고 놀며 나들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목적으로 졸업여행을 졸업식 바로 다음날 가기로 한 것이다.

나는 우리 장애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걷고, 뛰어 다니는 것이다. 현재는 장애인이지만 다음 생에서는 건강한 몸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절에서 예불에도 참석했고 건강한 몸 받길 발원하는 기도 법회를 설악산 신흥사에서 가졌다. 법안스님은 법문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화를 들려주셨다.(계속)

그림 · 김흥인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6화 라훌라의 탄생 ①



태자의 움직임을 세밀히 감시하고 있던 신하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태자의 모습을 숫도다나 라자께 보고 하였다. 이에 따라 태자의 출가는 기어코 막아 보려는 숫도다나 라자의 최후의 투쟁이 막을 열게 되었다. 지금까지 라자는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왕통을 이어 줄 것을 설득하여 보았고, 나라 안에 있는 명망있는 브라만들을 동원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리려고도 해 보았으며, 태자의 학창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우다인(Udayin)을 보내 간절하게 설득도 해 보았다.

그때마다 태자를 설득하기는 커녕 설득을 당하고 말아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 문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라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다.

태자가 비록 삼마디(Samadhi, 三摩提, 三昧)를 취하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도 오욕(五慾)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어쩌면 아직도 혈기 왕성한 태자의 젊음을 공격해 볼 길이 남아 있는 듯 했다.

이리하여 라자는 성 내외에서 500명의 소녀들을 뽑아서 노래와 춤과 유희등 갖가지의 재주를 가르치어 태자로 하여금 오욕의 향락 속에 그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욕(五慾): 인간들이 가장 탐욕하는 다섯가지의 욕망(慾望). 즉 식욕(食慾), 음욕(淫慾), 명예욕(名譽慾), 수면욕(睡眠慾), 재욕(財慾).

부왕(父王)숫도다나 라자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될수록 태자의 결심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다. 이러한 태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당황해 하는 숫도다나 라자의 그늘에는 남편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통곡하는 세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의 정비(正妃)인 야소다라 태자비와 제2 부인 고파(Gopa) 그리고 마노다라(Manodhara) 부인이 그들이다. 모두가 왕자에게 시집와 장차 일국의 왕비로서 행복한 여생이 보장되고 있던 여인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왕비 대신 생과부의 신세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태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로써 서로를 위로하며 태자의 심기가 변하기만을 고대했다.

태자여… 저희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옵니까…. 저희들 궁에 발길을 끊은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나 하고 계시옵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태자님의 아내들이온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버리려 하시옵니까? 태자님이 저희들을 버리시오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나에게 시집을 와 지금까지 얼굴에 슬픈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그 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니 어찌하여 아직도 고뇌의 바다속에 허우적 거리는 지아비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을 심어주려 하는가? 이것이 지아비를 섬기는 아내들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어찌 오욕의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속에서 어느틈엔가 우리도 그속에 빠져 허우적 거릴 수 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는데 무슨 경황이 있어 나 홀로 마음 편하게 오욕(五慾)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 부왕(父王)의 허락을 받아내 출가하여 열심히 수도에 전념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간적인 속세 인연에 얽매어 나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야….

태자마마…. 저희들은 그런 것 모르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사옵니다. 저희들 여인네의 소박한 꿈이라 해봐야 남편인 태자님을 잘 모시고 태자님의 씨를 받아 생산하여 고이 기르면서 태자님의 품속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태자님이 말씀하시는 생노병사의 고뇌는 적어도 저희들에겐 없는 일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했었는데 이제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아비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몸부림치고 있사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함부로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려 하지마라. 지각이 있는 남자라면 그의 일생에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으니 나도 다만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르려 한다.

그 첫째는 브라마 · 샤리아(Brahma-Carya) 기간으로, 부모 밑에서 학업과 성전을 공부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은 가르하스타(Garhasta) 기간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집안의 혈통을 계승하게 하고 제 식솔들이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가사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런 후 바나프라스타(Vanaparasta)시기에 들어서게 되어 아트만(Atman-自我)을 찾으며 수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산야사(Sannayasa)시기, 즉 출가로 궁극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에 가르하스타(가사를 세우는 기간)와 바나프라스타(인간의 자아를 찾는 기간)를 동시에 이루어 이제 산야사(궁극의 진리)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만 가문의 혈통을 이어줘야 하는 임무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여 부왕에게 큰 죄를 짓는 일로써 출가를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 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16호
서기 2003년 4월 9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알음알이로만 알고 흘려버리지 말고 도의 길을 직접 걸어가 봐야

삶의 실체에 대해서

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업보도 지은 게 없고 원죄도 없이 참나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나가 모여서 영원의 실체가 되는 건데 참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자신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답 여러분이 본래 공해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습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도착해도 종점이 없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한군데서, 한군데라고 해도 한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모두가 나온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는 게 고정됨이 없이 참나활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자식이 부르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아내가 부르면 금방 남편 노릇을 하고 또 부모님이 부를 때는 금방 자식 노릇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참나활나 돌아가는데 거기 업보 볼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업보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 내는 데에 따라서 업보가 붙는 거지 거기 어떻게 업보가 붙습니까?

과거는 바로 현재에 짊어지고 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업보가 볼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끄달린다면 3차원의 차원도 4차원의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업보가 볼을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즐겁게 살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갈릴길에 서 계신 거예요. 차원이 올라가서 모든 게 나 아님이 없는 도리를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하고 그런 의식만 있어 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 차원이 낮은 데로 떨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차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군데다, 맷돌도 중심을 잘 잡고 물건을 갈아야 맷돌이 이랍이 안돼서 잘 갈려 나오지 심봉을 딱 꽂지 않고 맷돌을 돌려보세요. 제대로 위 아래가 맞지 않으면 서로 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세우고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놓을 때, 그렇게 진실로 믿을 때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하나 실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나중에 탑 봉우리지가 턱 올라갈 때 홀연히 벗어나는 겁니다.

공부에 진척이 없어

문 마음법을 공부해 온 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공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진척이 없고 늦어지는 듯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 발 떼어 놓을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십시오.

답 그런데 마음 공부는 늦어도 늦은 게 아니고 일러도 이른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습니다. 둥글게 돌아간다 하면은 어디를 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늦은 것도 없고 이른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완전히 안다면 마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구정물을 밝은 물로 바꿔서 쓰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즉시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바꿔 놓으면 참나활나 바뀌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번연히 모든 것을 다 하고 가는 것이니까 그 주인을 진짜로 믿고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너는 다리가 많은데 왜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잘 가니?' 그러니까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잘 하다가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주인공 즉는 법은 없어요. 더하고 덜함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를, 내가 지금 움죽거리는 거나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회사에서 생기는 일이나 모든 일이 내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모두 나한테 비비는 거고 부딪치는 거니까 해결하는 것도 내 근본 주최, 주인공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하든지, 한마음 내밖에 없다고 하든지, 또 영원한 친구, 너밖에 없다고 하든지 아무래도 좋아요. 그것은 이름이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좋구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고 실험을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벌써 한 참나에 바꿔지는 중용이니까 그렇게 꼭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간다 하면은 어디를 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늦은 것도 없고 이른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완전히 안다면 마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겁니다.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도 모니깐,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되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이 되더라도 모든 걸 근본에다 맡아 던지세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구선 거기다 놓는 것이 인제 습관이 되면은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구선 가게 되고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문이 열리세요. 그렇지만 찾기는 뭘 찾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

저 나무들처럼 자기 뿌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깐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모든 거를 일임하고 감사하고 일거수일투족 거기서 살고 몸은 내 주인의 시자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속에서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나를 이끌어 가는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진짜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수없는 겁을 거듭거듭 화해서 형성된 건데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면은 자기 싹이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건데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 껍데기는 모두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자기를 형성시킨 참자기는 못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타의에서 누가 나를 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타의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도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살을 찢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짐승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역시, 뭄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 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다들 보면은 그만한 고통이 따르고 그만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아픔이 따릅니다. 그럼 때 잘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우리 인간도 지금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히고 있지 않나, 있지 않나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인간은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아도 역시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히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결국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거는 칼을 들고 와도 그걸 대치를 못해 거니까요. 몽둥이를 들고 와도 대치를 못해요. 병균이 탁쳐와도 대치를 못하고 영계성이 탁쳐와도 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근본 주최를 믿고 거기에 일체를 놓고 나가다 보면 한생각에서 다 진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중심을 딱 세우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고 놓을 때 해결이 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삼독심의 역할

문 예전에 어느 스님의 말씀에 '지옥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이 가장 무서운 곳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독심이 과연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남의 걸 탐을 내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본수를 모르고 뛰다가 물에 빠지는 거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부리고 집착하는 그 모든 걸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일체를 내려놓고 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삼독심을 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산다면 이 생이 다하고 또 살다가 죽어도 그 도리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을 관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와 자기가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환하게 알아져요.

그러니 빛보다 더 빨리 초월해서 들아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언제 일일이 다 배워서 가랍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욕심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일이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이끌어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는 대로 놓지도 못하면서 생각으로만 삼독심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면 언제 벗어납니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남을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아직 내가 장님이라면 모르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다 나오는 그 자리에 다시 놓고 지켜보세요. '삼독심이 공부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나' 하고 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두말 할 것도 없이 녹이고 가야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날까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왔는데 그냥 알음알이로만 알고 흘려버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실천을 직접 해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용법으로써, 어떻게 해나가야 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악과 선을 대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의 길을 직접 걸어가 봐야 만이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지?

문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에서 이 몸을 벗게 되면 내 안의 의식을 벗어나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불바퀴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나의 근본을 진짜로 믿고 마음도리를 지극하게만 해 나간다면 몸을 벗고 나서의 단계 아닌 세 단계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뭄에 빠지면 죽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빠진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뭄에 빠지면 죽는다는 의식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는 의식이 있고 총을 맞으면 죽는다는 게 의식적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공부는 뭘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공부를 해서 뭘질로다 나올 때 조금도 거침없이 착을 두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어서 내 안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뭄을 건너가야 되고 불바퀴를 넘어 가야 하는데,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가 나오면은 허허바다에 배 한 척 띄워 놓음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많은 중생들이 타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한다면 전부 일어서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앉아서 노젓는 뱃사공, 즉 말하자면 선장한테 한마음으로 마음을 이어준다면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던 말입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한 번 점프해서 넘어가 본다면 마음이 체가 없는데 뭄이 어디 있을 거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체가 없는데 바다가 어딨으며 바다가 없는데 배가 어딨겠느냐. 한생각이면 강도 없고 볼도 없는 거죠.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깐 말입니다. 이게는 마음이기 때문에 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뭄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뭄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난다면 태산도 톨고 나가고 땅 속 뭄 속도 못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강도 없고 벽도 없고 붓장도 없고 문도 없고, 마음이라는 건 분을 찾아다니지 않죠? 지금 앉은 곳에서 니 여러분이 이 한 생 동안 염심히 공부하셔서 그 불상한 생명들을 모두 지옥에서 건져내도록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얽히고 섭킨 인연들을 모두 건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식들한테 대대로 손손이도 이곱어지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이지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염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 껍데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자신을 형성한 '참자기' 못 믿나

자기의 일 자기가 해결하도록 평상시 관하는 도리 가르쳐야

문 이 몸이 죽으면 육신은 흙이 가려 갔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못 보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뿌리를 못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지만 나무의 싹은 흙이라는 무명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에게 뿌리가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믿어지는 거지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달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싹이나 이파리가 제 뿌리는 생각 안 하고 무명에 가려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싹이 자기라고 하고 이파리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싹이 자기라고 그럴 때는 그게 아상이죠. 자기 뿌리를 보니까 이파리가 뺏뺏해져서 나라는 존재를 세우니까 거기에는 아상이니 인상이니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니 거기 다 붙는 거죠. 싹은 뿌리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싹은 뿌리에다 전부 일임을 해서 믿고 맡기고 피어만 있어라 이겁니다. 원동력이 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도 싹이 자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세울 게 아니라 항상 싹은 뿌리로 인해서 있다는 인식을 중간에서 한다면…. 그래서 '계향' '정향' '혜향'을 말했습니다. '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돈하고, 즉 말하자면 부차원한 일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질서를 지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질서를 지키는 인간이 돼야 계법에 적응이 되거든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계법에 적응이 되니까 계향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이 정돈된 그 자체 중간에 정(靜)으로서 내가 한 중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하는 나침반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에 들었느냐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전체 싸고도는 정에 들었느냐, 아니면 지금 생활하는 데에 그냥 우리가 사사로운 사량심으로써 내가 똑바로 산다, 인간으로서 거짓없이 내가 똑바로 산다는 정에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쁨으로써 어디다가 세울 수 없는 정이 되죠. 우주를 전체 싼 정이 돼 버리고…. 어떠한 개별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면서 살아나가는 정은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고지식하게 아무 속임 없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한 정이고, 우주를 싸고 있는 지혜를 낸 다면 바로 그건 전체를 싸고 있는 그런 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해 보고 관해 들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그 자체도 세울 게 없더라 할 때 비로소 인제 타파가 되는 거죠. 전부 내가 되니까. 그래서 싹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자체가 뿌리라면은 그 생각을 내는 거는 바로 중간에서 싹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생각 내는 데에 달려 있다. 싹을 잘 이끌어 가지고 가려면 바로 자기 뿌리를 생각을 해야 싹은 잘 소생될 수 있고 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될 수가 있다. 바로 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갇기 때문에, 저런 나무들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주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어떠한 표본이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위해서 또 거기다 거름을 주고 뭄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뭘입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갑이 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면서 하나도 따로 떨어진 게 없이 지금 갑이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가 없는 그 공(空)의 위치의 식(識)은 항상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이니 법신이니 화신이니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누구나가 생활에서 모든 걸 몰락 일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기 때문에 '공'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자체가 공에서 나왔다가 공에서 사라지니 바로 전체가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전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성된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 그림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 옷이다는 거밖엔 안되니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밥엤을 때 놔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공이라고 세워놓는 것뿐이죠. 그렇게 해서 몰락 다 놔버렸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는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모든 걸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합으로써 그것은 합이 없이 한 겁니다. 자기가 공이기 때문에 생각도 공이요, 또 우리가 추구하고 들어가는 것도 공이요, 모두가 삼합이 다 공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해요. 모두가 한 마당의 공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국한 지어서 생각하는 건 아상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를 다 내려놓고 둥글려서 한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라는 걸 세우기 때문에 아상도 무명도 생기는 것

동생을 살릴 수 없는지

문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된 연유는 동생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쭙기 위해서 입니다. 동생이 지금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얘기로는 너무 늦어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동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동생을 살리려면 어떻게 관해야 합니까?

답 그거는 우선 옆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멱이는 것도 그렇고, 의사의 손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이름을 떠나서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그냥 한군데로 몰아서 넣어 가면서 먹는 거라든가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잘 해 주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정리하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괜찮게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마음공부를 해서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깐 그거는 내가 의식도 아니고, 의식라도 또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사가 40%다 하면 60%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 '아휴, 그까짓 것 아무리 해보면 뭘 해?' 이제는 죽는다는데 기다리고나 있을 뿐이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는데 자기가 해결하도록 평상시 관하는 도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나를 위해서,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배워서 미리미리 하다 보면은 이리로 갈 것도 저리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마음이 벌써 자기를 이끌고 갈 때 잘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깐 미리미리 자식들한테, 하다못해 감기가 들려라도 "너 감기 낫게 하면…. 그냥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佛)은 생명이요, 즉 생명의 근본 불입니다. 곤충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으니깐 전부 불이죠. 그러고 교(敎)는 바로 수레가 돌아가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가는 것이 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불교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알지 못하면 죽어서도 빠져 죽는 줄 알고 강을 못 건너가고, 타죽는 줄 알고 불바퀴를 못 지나가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떠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음의 근본을 발현해서 이 한 생을 헛되이 사시지 마시고, 다가오는 세세생생을 지금 이 한 생에 그냥 메꿔 버리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고기들, 불쌍하게…. 하여튼 하천세계의 동물이나 생물이나 전부 불쌍하고, 닭도 하루에 몇 마리씩 그냥 이 드거든 뭄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한 생 동안 염심히 공부하셔서 그 불쌍한 생명들을 모두 지옥에서 건져내도록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얽히고 섭킨 인연들을 모두 건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식들한테 대대로 손손이도 이곱어지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이지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염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라는 걸 세우기 때문에 아상도 무명도 생기는 것

문 그러고 싹이나 이파리가 제 뿌리는 생각 안 하고 무명에 가려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싹이 자기라고 하고 이파리는 "너는 자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본에 완전히 믿기지 못하고 자기라는 겉 세우기 때문에 아상이 생기는 거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겁니다.

나무들도 자기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흙이 가려 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못 보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뿌리를 못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지만 나무의 싹은 흙이라는 무명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에게 뿌리가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믿어지는 거지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달리 나가는 거죠.

그리



불교이래서 좋다

최재윤

동양대 인터넷산업공학부 2학년

"있는 만큼 행복한 삶"

어렸을 때부터 난 불교가 좋았다. 절에서 먹는 비빔밥도 맛있고 법당에 앉아 있으면 참으로 편했다. 그저 막연히 좋기만 했던 불교가 얼마 전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용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대를 낮추고 '있는 만큼 행복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순간부터 내 삶에 너무도 큰 변화가 생겼다

어렸을 적 나는 심장병을 앓았다. 살아날 확률도 거의 없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난 살아남았다. 남들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난 늘 마음이 무거웠다. 난 살아났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아난 기쁨보단 죄책감이 앞섰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잘못임을 알았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 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깨가 무겁진 않다. 그만큼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보시 아닌 보시를 평생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넌 항상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아니야. 세상 슬픔 다 가진 눈을 하면서 그런 가식 웃음 짓지 마." 늘 당당해 보이기 위해 웃음을 지었던 내가 들은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젠 내가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즐겁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렇다.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닌 그냥 미소를 머금게 되는 나 자신이 너무도 좋다. 어린 시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스님들의 따뜻한 표정을 조금은 닮아 가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믿음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며 노력함으로써 정진하게 하는 불교가 너무도 좋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이 불교가 아닐까? 이렇게 좋은 불교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는가?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본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내가 가진 만큼 행복하자.'



◇"Coming soon. 기대하시라!" 3월 29일 명성여고 법당인 수심당에 모인 '사라나 청소년기자단'.

"청소년 기자가 짱 이야!"

정보갈증 해소… "학생들의 눈과 귀 역할"
행사 뒤 숨은 이야기 적극 발굴 공유 예정
진학, 학습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안녕하세요. 저희 명성여중에서는 부처님 생일인 초파일을 맞아 이쁜~! 아기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종립학교에 다니는 불자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명성여중 청소년 기자 청풍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라나 청소년기자단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sarana.or.kr)에 접속한 동대부고 2학년 전인호 군. 전 군은 지금 기자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초파일 봉축행사 예고기사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 붙이는 중이다. 전 군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가득하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나 들었던 다른 종립학교 소식을,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이 올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흔히 보게 될 모습이다. 동대부고, 광동고등학교 소속 200여 학생들은 3월 29일 서울 명성여고 법당에서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을 발족시켰다.

전국 22개 종립학교 소속 청소년 기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기사거리를 찾고 있다. 예전 같으면 추억 속의 사진으로 남을 사건들이 속속 인터넷으로 올라온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은 종립학교 학생들의 정보갈증을 시원스럽게 해소해줌으로써 바람직한 대안언론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이 따끈따끈한 기사로 만들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청소년 기자단은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소풍 등 종립학교 행사를 취재한다. 특히 청소년 기자단은 이들 행사 뒤에 숨은 이야기도 적극 발굴해 전국의 종립학교 학생들과 공유한다.

중요한 청소년 문제를 다룰 집중 기획 취재 활동도 벌일 계획. 진학 · 우정 · 이성 문제 등 청소년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기획 취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한다는 목표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습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된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은 불교 관련 정보, 청소년 법회나 수련회 정보 제공은 물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 기자단장 박홍렬 군(동대부고 2년)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아쇼카 왕이 기원전 3세기 경 조성한 산치대탑.

인도 불교유적 동영상으로

동대부고 김재욱 교사 답사자료 모아
교육용으로 구성 종립학교 배포 예정

청소년들에게 인도 불교 유적지를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가 나왔다.

동대부속고등학교 김재욱(수학) 교사는 3월 29일 명성여고에서 열린 청소년문화연구소 3월 월례 세미나를 통해 대표적인 인도 불교 유적의 모습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한 '인도 불교 세계 문화 유산 답사 보고'를 발표했다. 이 동영상 자료는 김 교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아잔타석굴, 산치대탑 등 인도 현지를 답사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산하 청소년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이 동영상을 중 · 고등학교 교육용 교재로 재구성해 전국의 종립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명성여고에서 서울지역 파라미타 학생자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학생자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소식지를 발간하고 합동법회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초등생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실시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은 8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꿈을 이루는 생활의 길' 주제의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습방법 △장래 설계하기 △계획적인 생활 습관 갖기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 · 5 · 6학년, 상담시간은 매주 화 · 금요일 오후 4시부터다. 참가비는 2만원.(02)838-1318

제5회 몰운대 어린이 동요제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제5회 몰운대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한다. 예선전은 26일 오후 2시, 본선은 5월 3일 오후 2시 30분 복지관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주 초등학생 대상의 이번 동요제는 독창과 중창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되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부상이 수여된다. 19일까지 악보를 지참하고 복지관으로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051)264-9033

명작 비디오 파일

천녀유혼

1987년 개봉한 정소동 감독의 천녀유혼은 당시 전세계 18개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받는등 화제를 일으켰다.

영채신은 하룻밤 머물기 위해 난야사라는 절을 찾아 간다. 그곳에서 여자요괴 섭소천을 만난 영채신은 소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소천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소천을 사랑하게 된 영채신은 소천이 귀신인지 알고도 그녀를 환생시켜주기로 마음먹는다. 귀신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겨우 세상으로 돌아온 영채신은 날이 밝아 소천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헤어진다. 영채신은 소천의 유골을 묻어주며 그녀의 환생을 빈다.

<아미타경>에서 극락은 여러 가지의 괴로움이 없고 단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 극락왕생을 빌었기에 채신은 미련없이 그녀의 유골을 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스크린에서 천녀유혼의 명배우 장국영씨를 만날 수 없다. 1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지연 기자



2003 '세계 물의 해'

지하수 오염

지하수의 오염 원인은 다양하다. 가정 하수나 축산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 지나친 농약 사용,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 벤처의 산실로 여겨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1984년 지역 주민들이 그레이트 오크스 수도회사, IBM 등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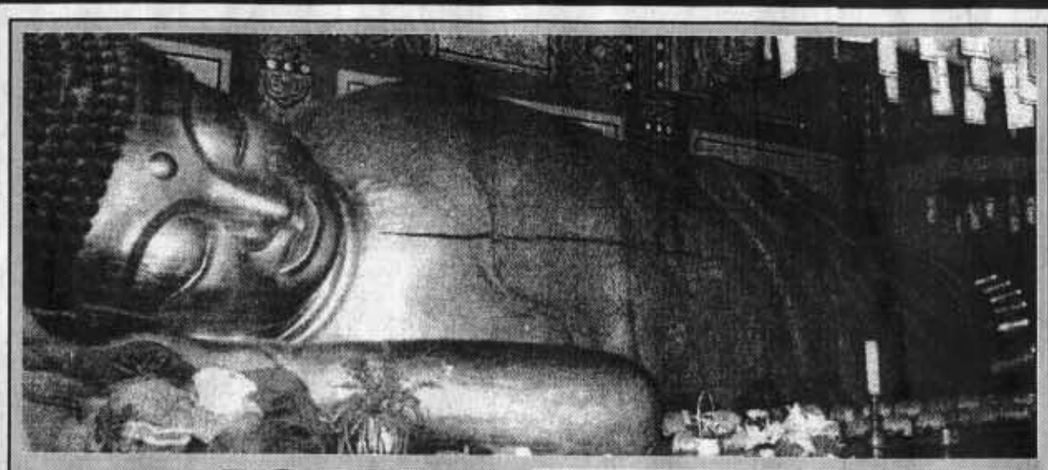
지하수 오염의 특징은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오염현상이 대부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며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

장기적, 점진적으로 오염
수십년 지나도 회복 어려워

사회학자들은 지하수 오염은 오염 원인자 및 오염 정도를 규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피해보상 및 오염회복 비용부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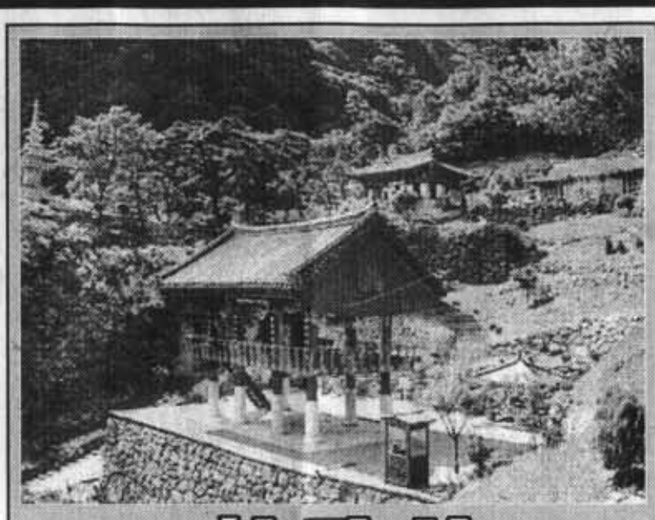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명찰 순례여행 [삼사찰]



용인 와우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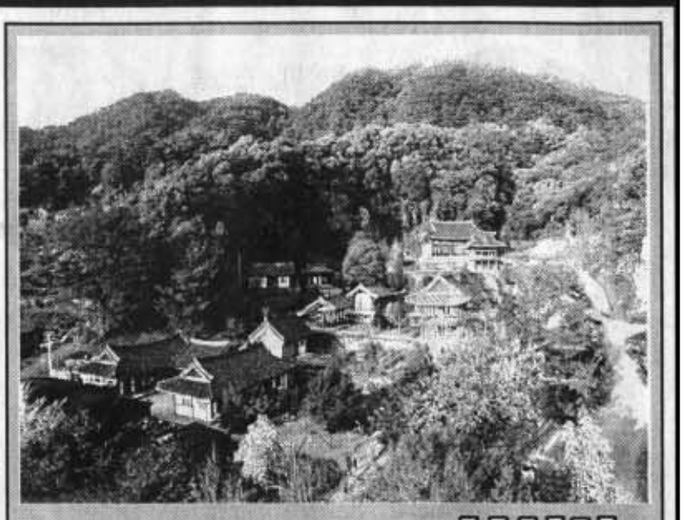
와우정사는 대한열반종 총본사로 1975년 창건된 젊은 사찰이다. 잘 꾸민 산책로와 곳곳에 우뚝 솟은 불상, 불탑들은 30년이 안된 일천한 가람 역사를 잊게 만든다. 열반종은 열반에 든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와우정사를 찾는 사람들은 다른 절에서 만나기 힘든 누워있는 석가모니와 마주치게 된다. 주차장에 내리면 절 입구에서 높이 8m에 이르는 석가모니 두상을 볼 수 있다. 불신이 완성되면 높이 100m가 넘는다고 한다.





청 량 사

청량산 도립공원내에 자리한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형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봉우리)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자리이다. 이 청량사에는 진귀한 보물 2개가 남아있다. 공민왕의 친필로 쓴 현판 '유리보전(琉璃寶殿)'과 지불이다.



극락으로 오르는 행복한 순례 부석사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는 10대 명찰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최고(最高)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 하나만으로도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지닌 유적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칭송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국보 5점, 보물 4점, 도유형문화재 2점 등 문화재가 풍부하며, 곳곳에 얽힌 전설만으로도 찾는 이를 사로잡습니다.

■ 날짜 : 2003년 4월 16일 ~ 5월 15일(30일간) 매일출발 [당일코스]
■ 코스 : 서울 - 용인(와우정사) - 봉화 청량산(청량사) - 영주 소백산(부석사) - 소수서원 - 귀가
■ 회비 : 25,000원 (교통비 : 입장료, 3식제공, 봉사료 일체 포함)
■ 장소 : 07:00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앞, 07:30 서울역 대우빌딩앞, 08:00 잠실롯데호텔 너구리상앞

www.dongbaektour.co.kr
친목단체환영 / 주야 · 휴일 접수함 ※특전 : 동백회원 10% DC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안내 - 신용카드무이자 할부서비스]

행사내용 : 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 회원에게 무이자할부 2~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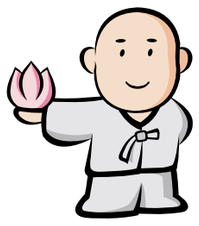
행사기간 : 2003년 03월 21일 ~ 0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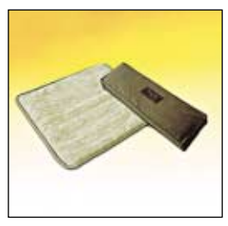
3만원이상 주문시 택배 무료발송

주문전화 02)732-1520

국민은행 023537-04-000359 농협 053-01-254668 예금주 : (주)지도리

추천 상품





희담석 방석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이즈 : 38.5cm X 35.5cm
- 색 상 : 연카키색, 살구색
- 상품가 :198,000원



분청달마살독

陶藝人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수공예품으로서 곡물을 보관하는 경우 벌레가 절대로 생기지않는 위생적인 곡물단지 입니다.

- 40kg : 42cm(지름) X 56cm(높이) 98,000원
- 20kg : 36cm(지름) X 47cm(높이) 68,000원



천연향-구례소리세트(B)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들어 낸 천연향 구례소리세트는 은한 녹차의 내음을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 구 성 : 세트 B = (구례소리 아침 1 + 녹차향엽 2 + 여행용 향엽샘플 2 + 향꽃이 1) 50,000원



등초(大)

- 길이 12.5cm x 지름 3.1cm
- 240개입(120세트)
- 상품가 : 65,000원



연옥합장주(매듭)

연옥[軟玉, nephrite]은 생명에너지인 氣를 발산하는 특수 광물질로서 인체 생명력의 에너지원인 마그네슘(엽록소의 핵)을 40%이상 함유

- 재 질 : 연옥[軟玉, nephrite]
- 사이즈 : 10mm
- 상품가 : 7,000원



녹 야 (스님용 두피보호크림)

녹야크림은 머리카락이 재거된 두피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발생을 방지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고안된 신 두피보호 크림입니다.

- 상품가 : 30,000원



연꽃연밥차걸이세트

안전운전을 위한 불자 차걸이.
사부대중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불교인의 생활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차걸이 입니다.

- 2개 1세트
- 상품가 : 7,000원



가정용반야심경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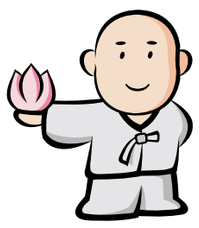
- 사이즈 : 4.5cm(높이) x 6cm(지름)
- 상품가 :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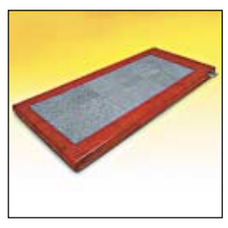


가정용 촛대 (모델명 : 6039)

- 재 질 : 놋쇠 8cm(넓이) X 7cm(높이) X 7cm(밑넓이)
- 1 set(촛대 2개) = 30,000원

효도 선물





희담석 보료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 보료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 상품가 : 4,000,000원



건강지압봉(은행나무봉)

건강봉은 물리치료,운동치료,기치료 전문인들이 오랜 경험과 인체공학적 고찰을 통해 개발한 현대인의 건강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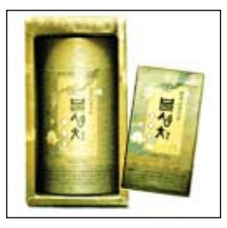
- 3종세트(1호봉, 2호봉, 3호봉)
- 상품가 : 16,000 원



분청다기세트

청자,백자보다 단열보온성이 우수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다기가 숨을 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가 : 98,000 원



불성차-우전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동(銅)가마솥엣 전승비법으로 빛어낸 전통 수제차입니다.

- 상품가 : 90,000 원



심장을 돕는 숯 목걸이

숯의 보석 비장탄이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의 발생 그리고 탄소덩어리인 숯에서 유도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상품가 : 19,800원



녹차향엽-목욕용 녹차향

지리산 야생녹차로 만든 목욕용 녹차향

- 구성 : 18개 원료와 함량 : 국내산 녹차 100%
- 상품가 : 15,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희담석 다기>는 최고의 장인이 희담석 가루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만든 다기로서, 차의 맛을 좋게 함은 물론 차를 마시면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1인 다기 세트 : 1인 다기 2개
- 상품가 : 80,000원



연꽃불자시계

연꽃불자시계의 구성을 보면 시계밴드 위쪽으로 광명진언을 아래쪽에는 소원성취진언을 새겨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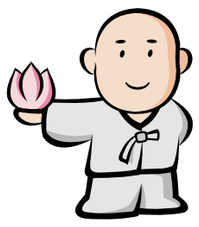
- 남성용/여성용
- 상품가 : 99,000원

Silver 건강팔지



- 성공과 건강, 행운의 3대 복을 누리세요.
- 고급 명품스타일 디자인
- 은볼에 자력을 넣어 자력 효과를 줌
- 자력 효과 : 사람의 혈액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에는 철 성분이 있어 자력을 띤 제품을 몸에 끼고 있으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져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됨.
- 자기 결핍 증후군 : 신경통, 어깨결림, 습관성 변비,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 안쪽의 은볼돌기로 지압 효과를 얻을수 있음
- 로듐 도금처리 : 로듐 도금 처리로 변질 및 알러지 방지
- 현재 미국 판매중(2003 뉴욕쇼 출품作)
- 디자인고시 상품(디자인고시 No. 연합-02-038)
- 기본재료 92.5% silver사용(실버자체 항균/해독작용 응용)
- 상품가 : 99,000원

어린이날 추천상품





고불인형세트

- 크기 : 12cm(높이) X 9cm(너비)
- 상품가 : 20,000원



멜로디 동자승인형

자녀분들에게 친근하고, 인기있는 너무나도 귀엽고 독특한 동자승 캐릭터 인형입니다.
동자승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사이즈 : 13Cm(세로)
- 상품가 : 8,000원



멜로디 아기부처인형

자녀분들에게 친근하고, 인기있는 너무나도 귀엽고 독특한 아기부처 캐릭터 인형입니다.
아기부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사이즈 : 13Cm(세로)
- 상품가 : 8,000원









도자기 인형

도예가의 순수 수공예작품으로서 천진난만한 동자스님들을소재로 하여 정감이 가도록 표현한 도자기 인형입니다.

1. 스님과 소
- 규격 : 길이30cm, 폭14cm, 높이18cm
- 상품가 : 55,000원

2. 목탁스님
- 스님 : 높이16cm, 직경 7cm 목탁 : 높이 8cm, 직경13cm
- 상품가 : 45,000원

3. 스 님
- 규 격 : 직경9cm, 높이22cm
- 상품가 : 35,000원

4. 다도
- 규 격 : 길이18cm, 폭11cm, 높이14cm
- 상품가 : 42,000원









동자인형시리즈

1. 동자인형-사탕
2. 동자인형-게
3. 동자인형-가사
- 상품가 : 5,000원

4. 동자인형-천수경
- 상품가 : 8,000원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 가족을 부처님처럼

절에서나 집에서나 인터넷과 전화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02) 732 - 1520



캐릭터 비닐 만월등

· 색 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 1 Box = 2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2,000원



공단등(大/中/小)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 大 : 지름 23cm 7,000원
· 中 : 지름 18cm 4,000원
· 小 : 지름 15cm 3,000원



만 월 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 1 Box = 1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1,500원



팔모접등(주름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상 : 핑크, 오렌지, 연두
· 1 Box = 6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3,000원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 1 Box = 100개 (색상별 20개씩 주문가능)
· 1,800원



봉축 현수막 : 90cm×6m(40,000원),7m(45,000원), 10m(60,000원),12m(70,000원) ※ 주문시 사찰명 기재 요망



장엄 번(만장기) 90cm×210cm 40,000원

13,000원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 : 시간 / 보냉 : 6시간

8,000원

연꽃타올 4,000원

※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다 포
규격 : 39cm X 78cm
색상 : 회색 2,000원
백색 1,8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지하철현수막(1안) 40.0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연화당초문양손수건 면 80수 4,000원

불교기, 법륜기 12,000원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캐릭터 부채 세트 10개 1set 7.000원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방생 타이슬링 2,000원
2개 1set 지름:7,5cm

봉축타이슬링 5,600원
8개 1set 지름 : 5,5cm

연꽃 차걸이 세트 7,000원

캐릭터 풍선 세트 30,000원
100개 1set(대롱포함)

봉축 버튼 3,200원

봉축리본 - 일반리본(분홍, 노랑, 진분홍) 250원
고급리본(분홍, 진분홍) 35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2-1520